손.발.어깨.무릎.목.허리
MS재건병원
동인네거리 053.653.0119 지하철1호선 칠성시장역

每日新聞

성심요양병원
남구 대명로14
1호선 성당못역 1번 출구 | T_053.657.2111~20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음력 3月 22日 乙巳) 대표전화 053)255-5001 imaeil.com 대구 10~29℃ 구미 8~28℃ 안동 8~26℃ 포항 13~30℃ 제23902호

"文대통령, 강 건너 불구경 안 된다"

검수완박 중재 노력 실종

靑 삼권분립 이유 계속 침묵
국회의장도 총장에 말 아껴

민주 정치 보복 불식 위해선
尹 당선인도 합의 참여해야



대구지검 수사관 500명, 대통령에 호소 21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관련 대구지검 본·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전체회의에서 황혜경 수사관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향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전국 최초로 열린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관련 전체회의에 대구지검 본청 검찰수사관 200여 명은 현장에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3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총 500여 명이 참여했다. 4면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원내 제1당의 힘자랑이 임박하자 국회가 의회주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실한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결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4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안이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민생 현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이어진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장과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 차원의 거중조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제언도 나온다.

여야가 열흘 넘게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처리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관문을 지키고 있는 입법부 수장은 애초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본인이 직접 관장하기로 했지만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직권 상정 거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희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오늘은 박 의장이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고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입법부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이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자세다. 문 대통령의 '입'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 입법권, 이런 걸 안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데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로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치권에선 정치적으로 다음 행보가 없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사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타협인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이 작업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사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합의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더욱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기가 문재인 정권 구하기용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당사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취할 태도로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는 폭로를 내놓은 마당에 문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며 "민주당의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우려하는 '정치 보복' 가능성을 불식하고 새 정부 출범 즈음에 민생 우선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도 참여해 '검수완박' 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민주 "오늘 본회의" 국힘 "비상대기령"

법사위 안건조정위 소집 불발
검수완박 담긴 법안 개정 미뤄
일각 "국회의장 설득 실패했나"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는 각오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8시까지 회의 소집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전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에 비상대기시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설득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22일 오전 열릴 국회의장단 회의 후 박 의장이 입장을 정하면 민주당도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국회에 전운이 감돌았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원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여당의 강행 압박에 국민의힘은 이날 종일 최고위원회의, 중진의원 연석회의,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가며 반대 여론전에 주력했다.

박 위원장이 민주당의 뜻대로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날 오후 진행된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망가지는 거야 자업자득이지만 이런 민주당의 자해적 행위에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쌓아온 사법체계가 무너지려 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이번 주 열 가능성이 있다. 21~22일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달라'는 알림 공지를 보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형배 의원 탈당 조치에 대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박 의장 설득에 실패했고,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2일을 협상 시한으로 잡고 있으며,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박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일단 협상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안건조정위를 즉각 구성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국힘 대구시장 후보 내일 발표

民心 굳히기냐 黨心 결집이냐

여론조사 앞선 홍준표 유리
후보 3인방, 책임당원 구애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21일 오전 책임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 결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를 종합해 23일 최종 대구시장 후보를 내놓을 방침이다. 3면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까지 3파전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중심 화두는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의 '친박 단일화'였지만 결국 막판까지 이어졌던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면서 세 후보가 당심과 민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선 일단 여론조사상 우위를 유지해 온 홍 의원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막바지 경선 구도를 만들게 됐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는 당원들의 표심이다. 최종 후보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50%에 책임당원 투표 결과 50%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세 후보 모두 21일 당원 표심을 잡는 데 주력하는 일정을 잡았다. 막판까지 '사람 대 사람'으로 당원 및 지지층을 만나 마지막 한 표까지 흡수하는 데 총력전을 벌이는 분위기였다.

홍 의원은 직접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지지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모아 직접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사무실에서 당원들을 만나며 접촉을 한층 강화했고, 유 변호사는 팔달시장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후보들 모두 당원 표심이 자신을 향해 웃어줄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홍 의원 측은 여론조사의 압도적 우위가 당원들에게도 '밴드왜건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최고위원은 경선 초기부터 당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력에 공을 들였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유 변호사 측도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강한 점을 활용해 '박심'을 호소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www.myhair.co.kr
김찬월가모연구가 발명특허
발명 특허 : 제 10-1604533호
가발 결속형 고정틀 성형재 고정 방법
격렬한 운동이나 레저 활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20~30대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사 접착제 사용 방법과는 기술이 다릅니다.)
발명 특허 : 제 10-2015-0048965
숨쉬는 공기층 구비한 탈착 가능 가발
모근이 약한 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KS가모 명칭)
클립형 자모 튼튼한 고객분들의 착탈 방법입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층 2030세대
특허결속 고정 가모 특별할인혜택 50%
2021년 9월부터~
가모연구가 김찬월 방송 특별 출연
MBC 생방송 '아침만들기' (1995. 10)
- 국내 최초 가모연구가 김찬월 초청 방송
- 10여년 연구 결속고정방법 소개
- 고객의 모발과 유사한 인모 사용
TBC 소원성취 프로그램 (1996. 6)
- 가모 사용 후 가발로 인한 불편 최소화
- 골프, 수영, 샤워 가능 가모 연구 스토리
SBS '인생대역전' (2001. 3)
- 미용실 운영중 가모 아이디어로 가모연구실 설립
ytv 일본 요리우리TV (2003. 11)
- 한국인 가모연구가 국내 최초 출연, 화제 집중
- 자유자재로 원하는 스타일 연출
- 티없이 자연스러운 내 머리처럼 편안한 착용
- 두피 트러블 방지 효과로 스트레스 감소
KBS '생로병사의 비밀' (2001. 11)
- 화상, 선천적 완전 탈모 : 티없는 가발로 커버하는 기술 소개
SBS 휴먼다큐 '신한국인' (2001. 4)
- 성공인생 가모연구가 1시간 단독 출연
- 3월 신기술 벤처기업 선정, 신지식 특허인 선정
대구수성점 053-744-4343
서울역점 02-717-0046
서울시청점 02-747-3500
인천부평점 032-503-5707
부산역점 051-467-1600
부산서면점 051-802-2882
21년 연구한 신 커-트기술
NO 클립·접착·테잎
대한민국 특허가발 김찬월가모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每日新聞

심의필 190508-중-93654호
오래된 척추·관절 통증
완쾌신경과의원 t.642-2123
(상인동 홈플러스 옆 우리은행 3층, 7층)

해외여행 물꼬 텄지만 "PCR 비용 부담에…"

대구공항 국제선 내달 운항
4인 태국행에 80만원 넘어
잦은 검사·격리도 걸림돌로
횟수 감소 6월 회복 기대감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다음 달부터 대구국제공항 '국제선'이 부활하지만 잦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해외여행 수요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일 한국공항공사와 티웨이항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티웨이항공이 신청한 '5월 대구국제노선 정기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번 정기편은 대구~베트남 다낭 노선과 대구~태국 방콕 노선으로 각각 다음 달 28, 29일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티웨이항공은 두 노선 모두 주 2회 운항할 계획이다.

당초 티웨이항공은 이달부터 대구~방콕(주 1회) 노선과 대구~다낭(주 2회) 노선을 재개할 계획이었다가 해외여행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다음 달로 연기했다.

다른 저비용항공사들도 수요 문제로 대구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를 미루고 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은 아직 대구 노선 운항 계획이 없다.

항공업계는 잦은 PCR 검사와 회당 10만원 안팎의 검사 비용 부담을 국제선 수요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여행 국가를 다녀오려면 유료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영문 음성 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태국은 출국 전 PCR 음성 확인서는 필요 없지만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 동안 격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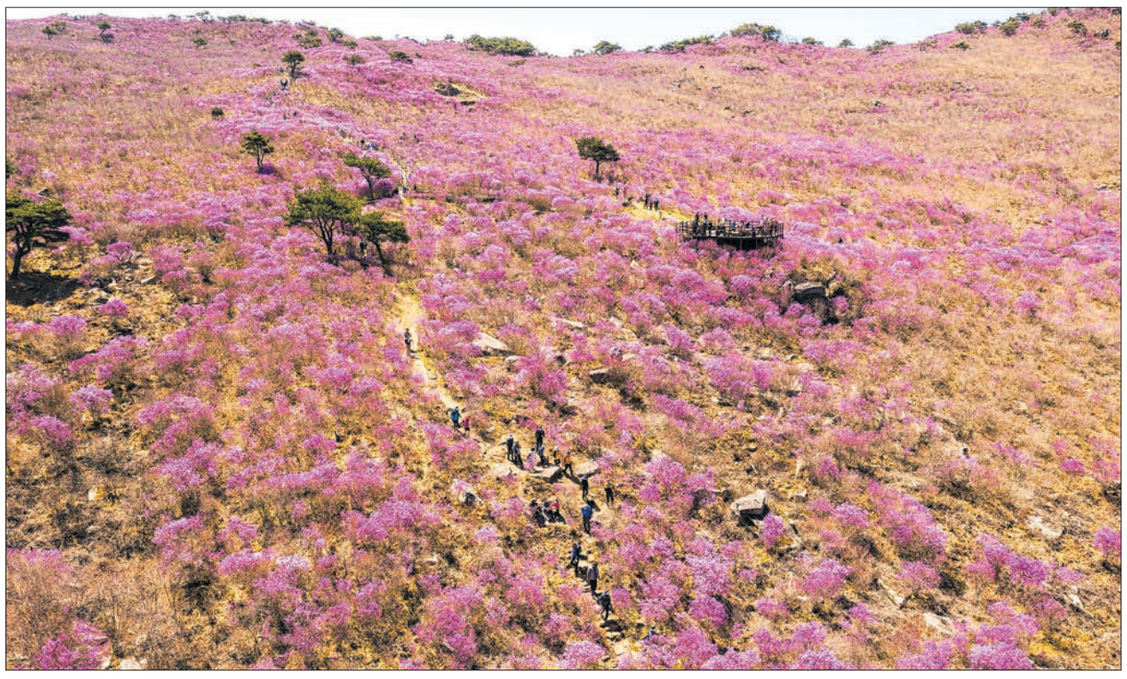
해외여행을 마친 뒤 국내 입국 전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또 필요하다. 국내 입국 첫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1회(무료)를 받고 6, 7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는 6월 1일부터 1회로 줄어든다.

잦은 PCR 검사도 문제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이 더 부담이다.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국내 10만~12만원, 베트남·태국 현지 기준 5만~13만원이 든다. 4인 가족이 태국을 방문할 경우 PCR 검사 비용만 80만원 이상 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려면 PCR 검사 횟수를 줄이거나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약 국가를 확대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 등은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모두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PCR 검사 비용 부담이 커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더라도 탑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PCR 검사 횟수가 줄어드는 6월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참꽃으로 발그레 물든 비슬산 21일 오전 대구 달성군 비슬산 정상에 펼쳐진 참꽃 군락지가 분홍색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째 열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유튜브 채널 '전국달성자랑'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꽃 군락지의 절경을 볼 수 있게 온라인 중계 중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청도 숙원 '비슬산 마령재터널' 올해 착공

청도 풍각~대구 현풍 1.3㎞ 터널
달성 공단 출퇴근 시간 줄어들 듯



경북 청도 주민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비슬산 마령재터널 건설 공사가 올해 시작될 전망이다. 5년 뒤 터널이 뚫리면 청도군 풍각면과 대구 달성군 현풍읍 간 이동거리가 크게 줄어 달성 일대 공단 출퇴근 주민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마령재터널 건설 공사는 총 2.9㎞ 길이로, 이 가운데 터널 구간은 1.3㎞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560억9천500만원이며, 지난 2016년 8월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

청도 풍각에서 테크노폴리스 등이 있는 대구 현풍으로 이동하려면 경남 창녕으로 수㎞를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구상이 건설의 배경이 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청도 지역 발전을 위해 마령재에 터널을 뚫어 두 지역 간 접근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관계 기관 사이에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주로 대구와 청도 주민이 이용하게 될 터널이지만 주소지상 경남 창녕군 성산면 일부를 지나기 때문. 경남도는 보상과 공사 등에 들어갈 창녕 구간 사업비 수십억원을 부담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공사비를 제외한 보상비만 경남도가 부담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최근 협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 재원 중 국비 295억9천만원, 경북도가 249억5천만원, 경남도가 15억5천만원을 부담하기로 결론을 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공사업체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5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도와 대구가 한층 더 가까워져 대구 시민의 잦은 발걸음으로 청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 한 주민은 "그간 청도로 가려면 긴 시골길을 돌아가야 했는데 터널이 뚫리면 훨씬 편해지니 자주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도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난관을 뚫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민 보상 등 후속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울진금강소나무숲길서 힐링하세요"

내일부터 개방…하루 80명 예약제
산불로 훼손 일부 구간 긴급 보수

울진 산불로 탐방이 중단됐던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이 다시 탐방객을 맞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3일부터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숲길 개방은 종전대로 금강소나무숲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구간별 탐방 인원을 하루 80명으로 제한하는 예약탐방가이드제로 운영된다. 앞서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울진 산불로 일부 훼손된 '숲길1구간'(보부상길)을 긴급 보수했다.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산림청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관광을 표방하며 국비로 조성한 1호 숲길이자 지난해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울진군 북면·금강송면 일대 총 7개 구간(79.4㎞)으로 조성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국내 최대 금강소나무숲을 비롯해 보호수(대왕소나무 등 3본), 보부상 유적, 화전민 터 등 다양한 생활문화와 '황장봉계' 등 역사문화유적을 품고 있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개방으로 많은 국민들이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을 찾아 장기간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더불어 산불피해로 침체된 울진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탐방 희망자는 사전에 온라인(숲나들e)으로 예약해야 한다. 숲길 탐방 및 예약 문의는 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로 하면 된다.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바이든 대통령, 내달 20~22일 방한 유력

21일 尹 당선인과 정상회담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쯤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여 20~22일 방한 일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의 중인데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간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비무장지대(DMZ),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등의 방문 일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대통령실이 이전할 용산 인근에 정상회담 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연회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용산 국방컨벤션센터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등 다른 장소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경북대학교병원 모발이식센터 임상교수 역임
모발이식
닥터헤어Lee 의원
원장 이정호 2·28기념중앙공원 옆 053-422-5824

여론조사 洪 앞서…당원 투표 결집력은 어디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21일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당심'(黨心)의 향방으로 쏠리고 있다.

최종 후보는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50%에다 책임당원 투표 50%를 반영해 선출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앞서 여러 언론사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지만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당원 표심이 경선 판도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변수 '당원 표심'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로 각각 나눠 경선을 시작했다. 막바지에 접어든 경선판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책임당원들의 표심이다.

◆현역 의원 '오더' 있을까?

특히 국민의힘 당원 투표의 경우 당협 위원장직을 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중에도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정당에선 과거 당내 경선 때면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오더' 행위가 이뤄졌다. 자신이 이끄는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주문하는 식이었다. 지금도 드러내놓고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암암리에 자신의 투표 방침을 밝히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홍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의원들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관망'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도, 비토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선 당원 투표가 모바일로 이뤄지면서 '오더'의 영향력이 감소한 점을 체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한 의원은 "현장투표를 하던 예전과 상황이 좀 달라졌다. 모바일 투표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그에 따른다는 보장도 없고,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아졌다. 괜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누구를 찍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도 잘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판이 달아오르면서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의원들끼리 선거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도 많이 줄었다는 전언이다. 대구의 다른 중진 의원은 "과거엔 지역 의원들이 모여 특정 후보를 밀자는 이야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모이지도 않았고, 그런 분위기도 없다"며 "당직자가 지침이 없냐고 물어보면 비공식적으로 지지 후보를 밝히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누구를 찍으라는 식의 지시를 내리는 일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경우 홍준표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대구를 위해서는 파워풀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본다. 큰 그림을 그릴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후보들 서로 자신감 비쳐
洪 측 "넘사벽으로 이길 것"
金 측 "처음부터 당원 공략"

의원 '오더' 관행 깨고 관망
특정 후보 지지·반대 않아
오해 피하고 자율적 판단

일반 시민 여론조사의 경우 일찌감치 대구시장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각종 언론에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한 탓에 유권자 입장에선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당원 투표는 여론조사 상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가늠해볼 수 있을 뿐이다. '보수 텃밭'인 대구의 특성 상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해서 모두 책임당원인 것은 아닌데다, 정당의 당원 명부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와는 오차가 클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경선판의 마지막 남은 변수가 바로 책임당원들의 표심인 셈이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각 캠프에서 당원 표심에 공을 들여왔고, 저마다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 측 관계자는 "지난 대선 경선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전체 표심보다 밀렸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일반 여론보다 더 큰 격차로 리드할 때도 많았다"며 "당심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넘사벽'으로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측 관계자도 "처음부터 여론조사에서는 뒤진다고 보고 책임당원 쪽 조직력을 차근차근 촘촘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자신있다"며 "여론조사에서 20%까지 뒤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시작된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책임당원이 모바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후보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50%)와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50%)를 합산해 선출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반영
시민 2천명+책임당원 4만7천명

안갯속 당원 표심에 이목 집중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민심과 당심의 심판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것이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구시장 경선은 이틀간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결과 50%를 각각 반영한 뒤 합산해 선출한다.

국민의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를 대상으로 당의 대구시장 후보를 결정짓는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에 들어갔다.

여론조사는 대구에 주소지를 둔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당원 투표는 4만7천여 명의 대구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다. 21일 모바일 투표, 22일 전화투표로 진행되며, 이날 책임당원을 대상으로는 모바일을 통한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으로 실시됐다. 케이보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이다.

최근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김 전 최고위원, 유 변호사를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대구시민의 표심은 어느 정도 확인됐으나, 당원 표심의 향방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가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서며 양자 대결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양측은 극심한 이견 끝에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김재원-유영하 단일화 무산
"1강 홍준표 입지만 견고해져"

정치권 "洪, 최대 수혜자" 예상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단일화 협상 결렬을 두고 서로 책임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시작됐다.

2위권 후보들 간 갈등 격화로 현재 여론조사 선두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과의 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 사이의 막판 단일화 시도 및 무산이 결과적으로 홍 의원의 독주만 허용한 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강 2중' 구도를 흔들기 위해 시도된 2중 간 단일화 협상이 볼썽사나운 감정싸움으로 끝나버리자 '1강' 홍 의원의 입지만 더 견고해졌다는 설명이다.

정치평론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1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홍준표 의원과 대적하기 위해선 '박심+윤심'으로 '홍심'을 상대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 간 단일화가 무산되며 윤심이 작동할 여지가 사라졌고, 결국 1강 2중 구도로 경선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무산 책임이 누구 한 사람이 탓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두 사람이 감정싸움까지 벌이면서 홍 의원이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도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 모두 명분이 부족한 출마였다. 단일화 무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대구시민들만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심의필 제190813-중-97996호
대구연세안과
레이저백내장 노안수술 · 라식
수성보건소 맞은편 T_053.626.8881

민주당, 위장 탈당 이어 '회기 쪼개기' 준비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 박차
朴 국회의장에 본회의 요청
국힘 전체 의원에 비상대기
與 내부도 "민주주의 능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른바 '이른바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자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편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의원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직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심사를 마치고 곧장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서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주에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박병석 의장이 내놓는 중재안이 있다면 수용할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대해선 회기를 2~3일씩 나누는 방식의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할 계획이다. 본회의 회기 종료시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회기에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길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회기 쪼개기로 갈 것"이라며 "그것은 180석이 필요 없다.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펴는 동시에 총력 저지 태세를 갖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이번 주에 열 가능성이 있다. 21~22일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고 전체 의원들에 공지했다. 그는 최고위 회의에선 "검수완박법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죄인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강행 처리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 불발을 1차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의도대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를 강행한다면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모두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와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규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그간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로는 결코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검찰수사관 500여명 집단행동

전국 첫 지검단위 전체회의 열어
"입법 강행 땐 국민에 피해 돌아가"

대구지검 본청 및 산하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500여 명이 21일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수사관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졸속 입법의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특히 검수완박 입법이 강행된다면 국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 등을 당해 검찰의 직접 조사를 원해도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어 국민의 사법서비스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축적된 검찰수사관의 수사·형 집행·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 역량과 경험이 사장되고, 범죄와 형 집행 대응역량이 약화돼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혜경 대구지검 수사관은 '대통령, 국회의장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고된 수사에 비해 늦은 승진, 박봉 등 보상은 많지 않음에도 우리가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수사 공백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과다한 직접수사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전관 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식의 수사권 박탈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김오수 총장 "민주당 案대로 가면 사법체제 붕괴"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 호소
"수사 공정 특별법 만들어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안대로 가면 정밀 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설득하며 중재를 호소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약 30여 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재판도 지연되고, 국민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의 처벌도 지연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중재 대안으로는 "2019년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며 "특별법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국민 50%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여론조사 결과 찬성보다 11%P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부정적 47%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7명(응답률 19.5%)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0%, 찬성 의견은 39%로, 반대가 11%포인트(p) 더 많았다.

해당 법안의 4월 내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은 65%였으나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7%였다. 격차는 38%p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4월 내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서는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33%가 반대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 응답자 중 4월 내 처리를 지지한 이들은 63%였다.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4월 내 처리 반대 비율이 94%에 달했고, 찬성은 4%에 불과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이었다. '잘못한 인선'이라는 의견이 47%로 '잘한 인선'(36%)이라는 의견에 비해 11%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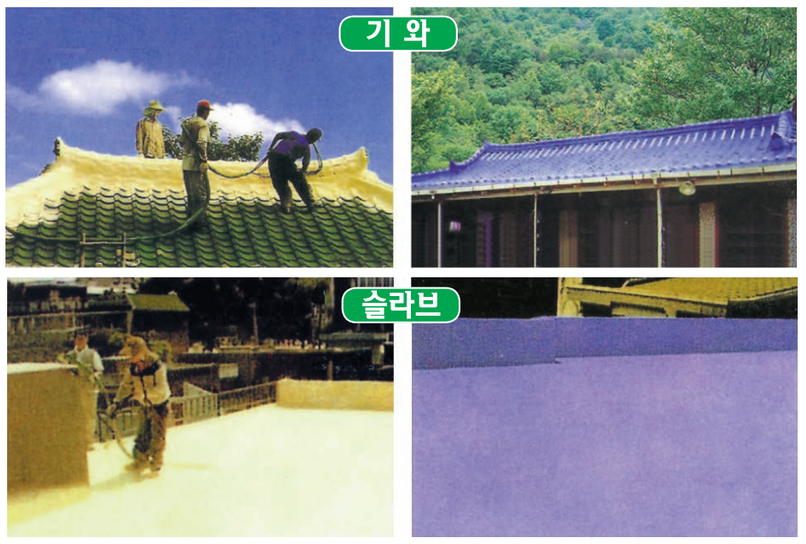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9.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비새는 집 방수 한번 시공으로 OK
우레탄 방수·단열 전문 시공업체·하자 보증보험 100%
기 와 → 우레탄 폼 + TOP코팅
스레트·공장판넬 → 우레탄 폼 + TOP코팅
옥상 스라브 → 우레탄 폼 + 하이브래드 + TOP코팅

방수1팀	방수2팀	방수3팀
우레탄 폼	도막방수	외벽도색
단열방수팀	시트방수	외벽방수

한번 시공으로 방수에서 단열까지 반영구적. 어디든지 무료출장 견적 상담 해드립니다.

▼시공 중인 모습 ▼시공 후


(주)한일우레탄·한일주택
053)568-0600
010-3202-4848
FAX)755-5543
NAVER, DAUM 우레탄 방수 검색 http://www.hanilure.co.kr

정호영 아들 재검 2015년과 같은 4급

MRI 추간판 탈출증 의심 진단
鄭 "국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전문성 갖춘 의료인에 공개"
내달 3일 인사청문회 개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관련 검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1일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 판정과 관련해 재검진 받은 결과 "2015년과 마찬가지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재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준비단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 아들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날 MRI 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의심 진단이 나왔으며, 이는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 아들은 이번 재검에 2015년도 MRI 영상기록, 진료내역도 함께 제출하고 진단을 요청했으며,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세브란스 측은 정 후보자 아들이 과거 MRI에서도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했다. 현재는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왔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전날 촬영한 MRI 영상에선 왼쪽 제1 천추 신경(S1 nerve compression)을 압박하는 제5 요추-제1 천추의 추간판 돌출(L5-S1 disc extrusion), 그리고 이로 인한 중앙 척추관 협착증(central spinal canal stenosis) 소견이 나왔다. 이는 2015년 MRI와 비교해 조금 더 진행된 소견으로 판단된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준비단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2015년도 기준에 따른 4급 판정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러한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검증을 소망한다"며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면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셀프 검증에 이어 셀프판정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궁금한 것은 2015년 MRI(자기공명영상)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과 당시 4급 판정의 적절성 여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정 후보자는 '병역법에 따른 4급 판정이 맞음'이라고 단언했는데 4급 판정을 판단한 주체가 누구냐"면서 "진단에 대한 병역급수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게 돼 있다. 오늘 (4급 판정) 판단은 세브란스가 한 것이냐, 인수위가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여야는 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5월 3일 열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정호영 후보자 의혹 수사착수
경찰청 고발사건 대구청 이첩

대구경찰청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21일 정 후보자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접수한 고발사건을 대구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정 후보자와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구민수 기자

대통령실 5수석·1기획관 유력
24일 직제 개편·인선 발표 예고

경제 최상목·정무 이진복 거론
시민사회 강승규 등 하마평
민정·일자리 수석 폐지 확실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체제가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1기획관(인사)'으로 바뀔 전망이다. 구체적인 그림은 오는 24일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직제 개편과 인선을 같이 발표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직제에 대해 "6수석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일 인선 발표와 관련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토요일(23일)에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마음에 들면 발표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좀 걸릴 것이다. 검증에 들어간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8수석 체제에서 민정과 일자리 수석은 폐지가 확실시된다. 나머지 주요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 수석실이 담당해 온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석' 명칭을 '보좌관'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가에서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수석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수석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홍보수석과 대변인은 전·현직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비서관 수도 현재 51명에서 30명 안팎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는 만큼 반부패비서관이 사라지며, 대통령실 내부를 감찰하는 준법감시관에는 내각 인선 검증을 담당했던 주진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비서관에는 강명구 전 대선 캠프 일정팀장이 거론된다.

한편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는 구호에만 집중하며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하는 바람에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공약 파기를 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했다"며 "수석비서관 폐지"를 약속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송·박 배제 취소…민주 "서울시장 100%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컷오프 방침을 철회하고 100%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두 사람에 대한 컷오프를 비상대책위원회가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경선으로 (선출)한다"며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TV 토론을 1회 이상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두 사람에 대한 배제 없이 이들을 포함해 22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하고, 거기에서 적정한 수의 후보를 경선(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송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 내지는 어제 계파 (관련) 발언 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후보군을 넓히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의견을 그렇게 모았다"고 설명했다.

컷오프 당시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을 통해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천 배제 결정 번복으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난맥상만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마땅한 '오세훈 대항마'를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내 계파 갈등까지 여과 없이 노출, 지방선거 필승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장 공모에는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전남 행정부지사 등 6명이 등록한 상태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경남 찾은 尹 "국민 삶 어떻게 챙길지 잠 안 온다"

"자유 민주주의, 나라 안팎서 공격 반드시 수호해 국가번영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전남과 경남을 횡단하며 민생·통합 행보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 유등 중앙시장을 찾아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야말로 우리 번영의 핵심, 우리 번영의 출발점"이라며 "안팎의 어떤 공격과 위기에도 우리나라 자유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서 우리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민생을 힘을 다해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정말 국민을 잘 모시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하는 걸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느꼈다"면서 "헌법이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법전 속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삶의 현장, 이 유등 중앙시장 안에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방문한 창원 마산어시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놓고 더 국민의 복리후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과를 내놓을지, 물가가 펑펑 올라가는데 국민 삶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와 인재들을 진영, 지역에 상관없이 뽑아서 그분들과 밤새 고민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현장을 챙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은 그는 이날 전남·경남 지역 총 4개 도시를 방문했다. 22일에는 부산·울산을 방문, 2박3일 일정의 호남·PK(부산·경남) 순회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모 집

배 달 직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업계최고대우 중범어지국 010-3515-6388

아파트 배달 원 시지, 노변동 남고산 지국 791-3061·010-2873-8885

대명3동 두류동 일대 남녀 노소, 오토바이소지 자可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만촌3동 일대 배달원 모집 남녀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배달원 동구 방촌동 남여노소가능,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010-5584-8331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숙식 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 사원 오토바이소유자 및 송현1·2동거주자 환영 송현1동지국 625-6315·010-2809-0030

배달원모집 봉덕/이천동 오토바이소유자 특대우 남부지국 471-9478

배달원모집 오토바이 소유자 노원동 3공단 010-6509-9174

배달원모집 경산 거주자 우대, 경산시 진량읍 진량지국 010-3536-6620

직업 배달원 오토바이소유자 새벽2시~6시30분자유(1시간50분소요) 월50만 남칠곡지국010-3810-7005

배달원모집 신천동, 대현2동, 신암동, 칠성동 일대 010-3046-3113

배달원 북구 산격1·3·4동 일대 남여노소 가능 오토바이소유자必 010-4628-1134

성당지국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일대 배달가능 010-3819-0808

배달원 황금동, 두산동, 지산동일대 주택상가 주부환영 경험자우대 황금두산, 지산지국762-4769

배달원 급구 경산시 압량읍 010-2517-1109

배달원 모집 남대구·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급구 대신동일대 남녀노소 252-7741·010-2511-1274

배달원모집 중구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종로지국 257-2902

배달원급구 율하, 신기, 안심 963-7355

배달원급구 파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유자 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1·2동 일대 남녀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 달성논공·옥포읍 면소재지,남여노소 정년,퇴직자, 오토바이소유자 우대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이곡동일대 남여노소, 주부우대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감삼두류3지국 010-3071-3529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471 명예훼손

피 고 인 김기도

위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2021. 6. 8. 선고(대구지방법원 2021노1972), 2022. 4. 14.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장 판사 황용남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스튜디오 개인, 웨딩샵
광고문의 : 251-1234

국내 전문 수림결혼정보 초혼 재혼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보증보험 국가등록 대구2008-3호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관음동101호)

한국결혼정보원
국제·국내, 초혼, 재혼
국제혼가 대구중구 2018-0001 국내, 허 대구중구 2018-0002
010-3810-3003 ★독립 매니저 초청★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73) 동인3가 271-128
T.053-424-5500 F.423-6003,010-8181-8024(옥소장)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1013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피상속인 : 망 김영규 (1936. 03. 02.생)
사 망 일 : 2021. 12. 27.
최후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16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 4. 22.

청 구 인 : 박연자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247번길 26, 203호 (노서동)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10432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박인준 (1953. 09. 10.생)
사 망 일 : 2021. 12. 25.
최후주소 : 대구 동구 방천로7길 33, 201호(지저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 4. 22.

청 구 인 : 박주현
주 소 : 대구 동구 방천로7길 33, 201호 (지저동)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10373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정미진 (1981. 02. 08.생)
사 망 일 : 2022. 1. 18.
최후주소 : 대구 북구 대학로9길 72 (산격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 4. 22.

청 구 인 : 정재선, 엄순희
주 소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033번길 17, B동 204호 (풍호동, 녹수빌라)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10406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이수종 (1972.8.2.생)
사 망 일 : 2022.1.18.
최후주소 : 영천시 모란1길 18, 101동 1602호 (야사동, 청구타운)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 4. 22.

청 구 인 : 김량희, 이유빈
주 소 : (김량희) 영천시 모란1길 18, 101동 1602호 (야사동, 청구타운)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피고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85 도로법위반	해원중기 주식회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86 도로법위반	해원중기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각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최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4. 2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사 김 대 현

매일안내 광고문의
080-711-2001
053 251-1234
每日新聞社

"공천 언제 끝나나요" 유권자는 '깜깜이'

지방선거 코앞인데 절차 지연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이르면 주말 경선 후보 결정
선거운동·토론회 일정 빡빡
민주당 출마자 인물난 여전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대구 8개 구·군, 경북 23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등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대선과 맞물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선거구 획정 등이 늦어진 여파이다. 공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면접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기초단체장 등 경선 후보를 모두 결정할 예정이라는 게 시당의 설명이다. 경선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운동과 토론회 등에 일주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5월 초가 돼서야 최종 후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빠듯한 일정 속에 최근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후보자 추가 공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따른 국민의당 소속 출마자들에 대한 후보자 추가 공모까지 받으면서 심사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앞서 대구시당 공관위가 현역 단체장 지지율이 해당 지역의 당 지지율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컷오프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교체지수 조사도 22일 시작될 예정이라 심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전략공천설'도 고개를 들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시당 관계자는 "여러 잣대들을 봐야 한다. 교체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쟁력이 뛰어나고 월등하면 단수로 공천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기초단체장 등 공천 신청자 면접을 가까스로 마무리하고, 선거 40일 전에서야 본격적인 공관위 논의에 착수했다. 공천 심사가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모든 경선지역의 토론회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도당은 후보자로부터 정견 발표 영상을 받아 당원 선거인단에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TV 토론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도당 관계자는 "금주 중 후보자를 발표해야 하고, 다음주 경선 접수와 선거운동 등을 고려하면 기본 5일이 소요된다. 현재로선 일정이 빠듯하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수 텃밭'과 정권 교체 영향 속에 인물난이 여전해 고충이 큰 처지다. 출마자를 내놓지 못한 지역들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후보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검증 작업과 선거 활동에 매진할 때"라며 "합당 문제, 선거구 획정 등 각종 이슈들로 인해 선거 준비가 밀리면서 시·도당 공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구미시장 선거에 조폭 논란 국힘 예비후보 진흙탕 싸움

"폭력배 사주 의혹 김장호 사퇴를"
예비후보 5명 시청 앞 기자회견
金 "사분오열 저급한 정치쇼" 반박
유권자는 "정책 고민부터…" 한숨

구미시장 선거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서로 흠집 내기에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김석호, 김영택, 원종욱, 이양호, 이태식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폭력배 사주 등의 의혹에 휩싸인 김장호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장호 예비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구미지역 언론사 A기자가 김 예비후보의 사주로 대구의 폭력조직원으로부터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기자는 김 예비후보를 협박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은 구미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관련 기사를 근거로 내세우며 김장호 예비후보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사가 사실이라면 통탄할 일"이라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조속한 진상 조사 및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장호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흠집 내기 고소와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쓰여진 언론 기사에 부화뇌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5명의 예비후보들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같은 당의 후보에게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행태는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저급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또 "4년 전에도 경선 후보끼리 사분오열하며 물고 뜯고 흠집을 내다가 더불어민주당에게 구미시장을 내줬다"며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에는 관용 없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구미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 A(56) 씨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서로 깎아내리는 일로 유권자에게 얼굴을 더 알리는 꼴"이라며 "상호 견제에 쓸 힘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광 기자 kwang623@imaeil.com





21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앞에서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 5명(위)은 긴급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광 기자

내년 지방선거 출마합니다

"공항 이전터 세계적 명소 조성"

배기철 동구청장 예비후보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누구보다 동구 미래를 위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과 36만 동구 주민 번영을 위해 다시 한 번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안심연료단지 이전 및 안심뉴타운 건설 ▷신암·신천·효목 재건축·재개발 ▷21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 유치 ▷121개 공모사업 선정 등을 지난 4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배 구청장은 "공항 이전터를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팔공산과 금호강을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도시를 조성해 동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앞으로 4년은 동구가 대구경북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로 나아갈 시기인 만큼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최고의 행정전문가 배기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우 기자

"경북 제1의 도시로 만들겠다"

장세용 구미시장 예비후보



장세용(68·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그는 "4년 동안 구미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각오로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 유치 7조3천억 원, 지난해 수출 296억달러, 구미형 일자리 LG-BCM 착공, 지방교부세 3천억원 확보 등 시민들과 함께 동심협력(同心協力) 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낙동강 물 분쟁 갈등을 종식하고 KTX역 신설, 낙동강 해평습지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자부했다. 장 시장은 이어 "중단 없는 구미 발전을 위해선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면서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도록 하는 동시에 스마트 미래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 활기찬 상생도시, 희망찬 청년도시를 만들어 경북 제1의 도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병용 기자

"오직 시민 이익 바라보며 전진"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



최기문(70·무소속) 경북 영천시장이 21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최 시장은 지난 4년간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읍 연장 ▷영천-경산-대구 대중교통 무료 환승 ▷한방·마늘산업특구 지정 등 '위대한 영천 만들기'를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탄약창 군사보호구역(제2·3지역) 해제, 영천경마공원 역세권 개발 등 살고 싶은 영천 ▷112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영천 ▷시립박물관 건립 등을 통한 문화·예술·관광도시 영천 ▷미래형 스마트팜 확대, 청년농부 육성 등 스마트하고 젊은 부자농촌 영천 등을 내걸었다. 최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나서 소통하고, 정당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뛰겠다"고 약속했다. 강선일 기자

부동산

빌라/원룸

신축 원룸 용산동 역세권 대80 건146
매20억 주인살고 월순수익 260만
인수가 9억6천/ 원룸 월순수익 507만
인수가 6억8천 010-7373-9939
No. 27290-2020-00067 달서구 광명부동산 최용석

상가주택

수성구신축4층 대325㎡ 월650出
상가주택 (주인세대 살고) E/V有 전면좋고
위치최상 12억인수 010-3520-8117
No. 27170-2020-00012 서구 온누리부동산 양현석

상가

사무실

개업공인중개사 모집
합동사무소 (초보 환영) 남·여 200/22
(시설공과금 포함) 010-3200-3069
No. 27-2014-00079 달서구 개업공인중개사공동사무실

오피스텔

남구미IC근 주거형 오피스텔 면적 73㎡ 풀옵션 정남향
전망최상 매8700만 054)956-9080

일반상가

월2500出 임대 걱정없는 상권 E/V 有
병원빌딩 주차타워 부가세·관리비별도, 융·보증금안고 65억인수 010-5341-0049
No. 27170-2020-00017 서구 대진부동산 이승열

통상가 교회, 회사 사옥 최적지 대198 건302
북구 연경동 매37억
주인직영 010-6727-3330

수성구 통상가 月1000出
범어네거리 유동인구多 최고 상권
대240㎡(73) 매47억 425-4501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주) 강은경

만촌동 4층통상가
메트로 팔레스 상가요지 도10m 대191.8㎡
月340만出 매가18억 053)421-1405
No. 가-15-673 북구 대일공인 이봉현

신천동 택배영업소 매매가 3억 5톤_1대, 1톤탑차_3대, 지게차_1대 010-2028-2128

경산 갓바위 입구 상가 카페와 식당, 사무실, 주택등 위치전망 최상, 계곡·큰도로접
건40대154매4억5천 010-3818-9881

모텔

모텔 매매 주차 대만족
뷰 최상 대2644㎡ 건1900㎡ 객실 39, 총매가 24억
주인직접 010-3509-6186

특급호텔 1천인수
대구 최요지 빚 청산 선착순1명
주인직접 010-7409-7995

대구모텔 매매
대738 건1148, 룸27, 매출月5000出
대형주차(24대), 올리모델링 완료
융28억, 현금16억 인수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주) 강은경

대구모텔 임대 보5억 월1400
룸27 월매출 4500이상 주인직영중/
보10억 월2300 룸42 월매출 7000出
신축1년 주인직영중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주) 강은경

구미모텔 매매 대658 건974 룸32 대형주차(25대) 월매출 4500出 월순수익 2천이상
올리모델링 완료, 무인시스템
융19억 현금15억인수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주) 강은경

신축 무인 카모텔 대140 13호실 월매출
1500만, 대출11억3천 안고 등기가능/
빌라 동해안 바닷가 66㎡ 방2개, 주·거·욕 몽땅4천만 010-7559-1145
No. 403-8601070 (주)동화

무인모텔 방13개 융14억
국도 5호선접
몽땅 19억5천 010-4538-4590

무인모텔 7억인수
대1100㎡ 건430㎡ 룸13개 月1400出
융6억有(승계가능) 공단 입구
리모델링2년 주인 010-4420-0484

전원주택

성주 포천계곡 대320 건68
민박 및 전원주택
매매 4억2천 010-8242-4406

대지/임야/공장

달구벌대로네거리 50m×20m코너 대668㎡ 매66억
(병원, 전시장)최적 010-3501-1477

급매 대825㎡ 당2600만원
병원 상가부지 매65억
010-4643-6770
No. 27200-2021-00065 남구 류길하 시원공인중개

달성군청 투자200%
준공업 자연녹지 (전) 3,870㎡(1,173)
당250만 공장, 폐차장, 자원 다용도
향후 달성군청 역세권053)635-5301
No. 27710-2017-00100 달성군 매일공인 손종배

병원·전시장최적지
범어동대도로코너
대827㎡ 당6000만 010-3501-1477

이현공단 대지 분할 330㎡ (100) 13억, 4620㎡(1400)
78억5천(도소매, 물류창고) 567-1189
No. 27170-2018-00043 서구 뉴삼강부동산 김정현

청도 매전면 전727㎡ (220)
임야23,140㎡(7000) 중 16,529㎡(5000) 관리지역, 건축 가능
몽땅 3억6천 010-8383-3029

성서공단 매매
500,1000,1500
010-3528-3307
No. 가-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청도 이서 싼 임야
계획관리 정남향 3928㎡(1188)
당22만 허가필 010-5856-8806

대도로 상업지역땅
3호선 역세권 대1,662㎡
당2000만 010-4000-1573
No. 11-2014-2 남구 조성진 천마부동산

금호 준공업 창고
당130만 대700(2924㎡) 건362(1198㎡) 창고·공장·모텔 신월리 214-12 236-8 주인직 010-3806-8538

성서공장 매매
대지500·1000·1500
2,000 053)593-2300
No. 27290-2018-00244 달서구 미래로공인 최정은

군위 소보면 땅
신공항 계획관리/농림지역 205,000㎡(62,000)당
3만원, 인근 임야 010-8579-1801

의성IC앞 공장
대지 9,428㎡ (2,852)
건평 2,310㎡ (700)
봉양농공단지 010-8579-1801

의성 콘크리트공장
의성농공단지 식생옹벽 블록
7,924㎡ (2,400) 010-8579-1801

청도군 매전면 임야
7,000 (23,140㎡) 당4만원 전체 관리지역, 천하절경
과수원 일부 포함 010)8383)3029

마트·병원부지
급매 대단지아파트앞 코너 대614㎡
건344㎡ 명도가능, 업종다양
총매가 29억7천만 010-3509-6186

기타부동산

스크린골프장 양도
대구 다사읍 방8개 연습타석有
주차무한대 010-3501-8969

주유소 매매·임대
리모델링
010-8977-5151

스크린골프장(성업중)
매매 (TWO비젼2대/연습타석9대) 매4억5천 (대출 2억可)
보5천/ 월330만 010-9294-9006

울진한울원전 3호, 4호기
공사재개 확정, 모텔·함바식당·인부숙소, 급매매(정문앞) 대1400 건650
매도가 21억 5천 010-6543-3126
No. 27140-2018-00109 동구 (주)신대양부동산 김신호

분실공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빌리브스카이 103동 1703호 (계약자: 정석철, 심소영) 아파트분양계약서 분실, 공고 이후 무효임.

KOREA CAMPING FAIR

캠핑의 시작,
Camping, Begin again

2022 대한민국 캠핑대전

4.29 금 ~ 5.1 일 엑스코

- 캠핑차량 공식 스폰서 -

FF캠핑카 · 카이트카라반 · 캠핑타임

- ✓ 유튜브 실시간스트리밍 생방송
-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23개 시군 참여
- ✓ '매일신문사' 주최 – 76년 역사의 지역 대표 언론
- ✓ 관련협 · 단체, 동호회 등과 공동진행
- ✓ 캠핑 A to Z – 캠퍼들을 사로잡을 양질의 전시장 구성



참가문의
전화 | 053)382-7979, 010-2942-7973 팩스 | 0505-484-0505
이메일 | campingfair@doc4ever.kr

주최/주관 每日新聞 DOC DREAM O'CLOCK

여성인 척 사귈래? 男 3만명 넘어갔다

대구지검, 데이팅앱 사기일당 검거

남녀가 서로 교제 상대를 찾는 모바일 '데이팅 앱'에서 매력적인 여성 행세를 하며 회원들에게서 12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다른 여성의 신상으로 가입한 '사이버 여장남자'에게 3만여 명이 놀아났다.

교제 의사 있는 것처럼 행세 사진·영상 보내며 12억 챙겨

◆'사이버 여장남자'로 돈벌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0일 데이팅 앱에서 만남이나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이용자들을 기만해 12억800만 원을 챙긴 신종사기 집단을 적발,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 17명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5개월 간 특정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돈벌이를 했다.

이들이 범행에 활용한 앱은 남성 회원이 유료 결제로 포인트를 충전해야 활동이 가능하다.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에게 대화를 걸 때마다 포인트가 차감되고 여성 회원이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 역시 포인트를 써야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여성 회원은 남성 회원이 사용한 포인트를 다시 현금화해 돈을 벌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회원들을 기만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은 A씨와 B씨는 사무실까지 차리고 조직원을 고용해 체계적으로 범행 방법을 교육, 수익을 공유했다.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으로 매력적인 여성을 가장한 조직원들은 만남이나 교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행세하며 남성들을 농락했다. 일부 조직원들은 여성이었으나 상당수는 남성이었다.

어떻게 하면 남성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조직원들은 회원정보에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남심'을 공략했고, 모두 3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갔다.

◆반복되는 현금인출 단서 잡혀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적 범행은 수백만 원대 소액사기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으나 담당 검사가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으로 조직적 범죄라는 단서를 발견,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여성 회원 1명이 남성 1명에게서 교제비 등 417만 원을 편취한 단순 사기 사건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남성들이 범행 수익을 인출하는 폐쇄회로

소액사기 조사하다 "뭔가 수상" 검사 직감으로 조직 범죄 밝혀

(CC)TV 장면을 포착, 이 여성이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 여성 조직원은 경찰 수사에서 "남자친구와 그 친구가 현금을 대신 인출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로 큰 그림을 감췄으나,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한 반복적인 현금인출 장면 중 피의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점을 눈여겨봤다.

허위진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검찰은 대면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다. 결국 벌금 대납 등을 약속하는 주범 A, B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동구·달서구·달성군…대구 하루에만 산불 3건

월요일까지 비 소식 없는데다 강풍까지 불어 대형 화재 우려 "당분간 건조한 날씨, 주의 당부"



대구·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오전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학산을 찾은 한 등산객이 나뭇가지로 잔불을 끄고 있다. 최근 이틀간 대구에서만 팔공산 동화사와 염불암, 달성군 옥포 등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시민들과 등산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건조한 날씨 속에 대구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하루에만 대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산불 3건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기상청은 주말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오후 1시 54분쯤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 염불암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헬기 7대를 비롯해 장비 31대, 인력 157명을 진화에 동원했다. 산불은 일대 산림 0.08㏊를 태우고 오후 4시 2분쯤 꺼졌다.

같은 날 오후 4시 37분에는 대구 달성군 옥포읍 김흥리 야산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산림 당국이 헬기 7대와 인력 97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0.07㏊의 산림이 소실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32분에는 달서구 월성동 학산 근린공원 인근에서 산불이 나 산림 6㏊를 태웠다. 산림 및 소방 당국이 산불특수진화대, 소방인력 및 공무원 등 인력 1천850명과 장비 59대를 동원해 다음날 오전 0시 25분에야 진화를 완료했다.

대구에는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내주 월요일 오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다"며 "산불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거리두기 뜻밖의 효과? 다른 감염병 '뚝'

변이 대유행에 방역 강화 덕분 결핵·수두 등 전년 대비 40%↓ 한 달 새 독감 환자도 거의 없어

오미크론 대유행이 '뜻밖의 효과'를 낳았다.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법정 감염병 신고 건수가 최대 40%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대유행 장기화로 철저한 개인위생이 생활화된 데다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에 접촉 기회도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6주간(지난해 12월 26일~올해 4월 16일) 결핵,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C형간염 등의 감염병 신고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방역 당국은 의료 기관의 신고를 통해 1~3급 감염병은 전수 감시,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 방식으로 확산세를 파악한다.

최근 16주간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결핵 신고 건수는 27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19건)보다 13.4% 줄었다. 이어 수두는 전년도 255건에서 올해 185건으로 27.5% 감소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전년도 105건에서 올해 76건으로 27.6% 줄었다.

3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C형간염 신고 건수도 지난해 142건에서 올해 86건으로 39.4%나 감소했다.

최근 한 달여간 대구의 인플루엔자(독감) 환자도 거의 사라졌다.

질병관리청 및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주간 표본감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 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올해 11~14주(3월 6일~4월 2일) 차 기준 0명이다. 같은 기간 전국(3.8~4.8명) 수치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15주(4월 3~9일) 차 기준으로는 1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3.2명)을 크게 밑돌았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병원 알레르기감염내과 교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의료 기관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법정 감염병의 진단 빈도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며 "거리두기 등으로 사람 간 접촉 빈도가 줄어들었고, 생활 위생에 신경 쓴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땐 2m 간격 두고 벗어도 돼

앞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2m 간격 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게 되면 야외에서 사람 간 간격 기준도 없어질 것"이라며 "간격이 좁아지면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여름이 다가오는 상황을 감안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름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이용하는 습관 등을 고려할 때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허현정 기자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흥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풀칼라 LED전광판 ◆공장도 판매◆
풀칼라동영상시대 / 기존삼색 / 보상매입
시공 / 견적문의 / 상담환영
국제LED ☎ 1877-3166

벌목 임업 전문 위험수목 제거
태양광모듈 청소·예초기
(주)푸른임업 · 벌초
053)424-6567, 010-8773-6567

매일안내 광고문의
053)251-1234
080-711-2001
每日新聞

계령철학원
작명, 사주, 궁합 택일, 사성 풍수 (이장, 가족묘원전문)교육
대한역학인연합회 회장
대구 달서구 죽전로18 (감삼동 46-15)
www.namdosa.com
053-568-2525 (010-3814-0200)

고화질 최신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

법원경매 무료 상담
공장/주택/아파트/대지/상가/농지/임야
경매경력25년 경매전문가 직접상담
대구법원 매수대리등록업체
053) 564-1234
(주)유투브 옥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0-1 (2층)
(경매 관심있는 직원 약간명 모집)

칠·방수
※ DPI 도색 전문 ※
노출 콘크리트 내·외부 시공
건물·주택·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
회사 공장바닥 에폭시 시공,
기계도색, 쫄라톤, 무늬코드,
APT 내·외부공사, 실내·외 도색
성진도료 (삼화 페인트 대리점)
053)552-7217, 010-3507-7216
대구 서구 내당동 297-18

천기부적
氣(기)가 나옴을 즉석에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사주·운세·궁합·이사 운 봐드립니다
연화원 법연화 합장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 공원로51 (4층,연화원)
010-6633-3245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 · 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진산철학관
사주, 작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성, 병명없이 고생하시는 분,
친절상담, 즉석선처,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 달서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파산 면책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묘목판매
◆ 과 실 수 : 감, 대추, 사과, 체리, 오디, 복숭아, 자두, 살구,
◆ 조 경 수 : 사철, 연산홍, 왕벚, 남천
◆ 약 용 수 : 가시없는 두릅, 가시없는 엄나무, 참두릅, 엄나무, 구지뽕, 구기자, 오미자, 가시없는 복분자, 오갈피, 옻나무, 가죽
◆ 산소조경 : 황금측백, 옥향
송정원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1037번지
010-7150-3429 / 010-4008-4823

30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가발명장 1호 천정일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120만
30년 연구한 가발!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증서)
셀모가발 010-6250-3899 (반월당 23번 출구앞)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등산복 작업복 골프웨어 | 남성복 여성복 상품 다양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국내 유명브랜드) (KY 어패럴 본사 1층 800평) (매주 수시 신상품)

- TV방영 프로그램 -

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봄맞이 초저가 창고 대 방출!)



2016년 6월 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가격파괴 창고형 의류 판매장!)



전품목 매장방문시 추가할인

2015년 9월 1일 KBS2 「생생정보」
(불황타파! 초저렴의류 할인매장)



2015년 7월 16일 MBN 「리얼다큐 숨」
(대한민국 최저가를 찾아라)



2015년 5월 6일 채널A 「관찰카메라24시」
(창고 대개방~! 쇼핑v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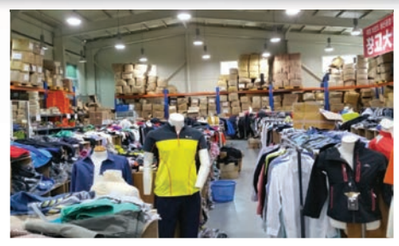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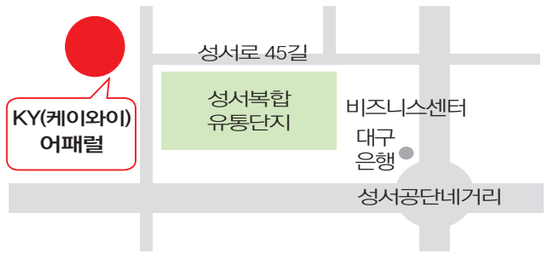


KY어패럴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문의전화 : 053-591-6328
· 주 소 : 대구 달서구 갈산동 산 57-1

KY어패럴은 연중 무휴이며 설, 추석 당일 및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휴무합니다.

성서공단네거리 대구 비즈니스센터 뒷편



긴급대처분

등산복 / 작업복 / 골프웨어 / 운동화



메긴나잇 페미닌 모달티 5종 티셔츠
25,000원



뽀송 플리스 하이넥 베스트
19,500원



블루종 남녀공용 항공점퍼 1장
16,900원

2015년 5월 06일 채널A '초특가로 모십니다'
2015년 7월 17일 MBN '리얼다큐 숨'
2015년 9월 01일 KBS2 '생생정보'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골프웨어 등산복 등 다양한 상품

2016년 6월 0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TG 남성 여름 콤비 자켓



사이즈 :
95,100,105,110

가격 :
~~199,000원~~
45,900원

색상 :
체크그레이

소재 :
폴리에스터르 81%
레이온 16%
폴리우레탄 3%

※여러가지 제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브랜드 납품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제작 컬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시원한 여름 소재로 비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뽀송 플리스 하이넥 집업 점퍼



사이즈 :
95(M), 100(L),
105(XL), 110(2XL)

가격 : 21,500원

색상 :
아이보리, 그레이, 베이지, 블랙

소재 : 폴리에스터르 100%

※풍성한 소재로 목까지 따뜻하게 보호 해주는 하이넥 스타일
※섬유층 사이에 많은 미세한 공기층을 형성하여 보온성을 극대화

※배송료는 3,000원 / CJ대한통운으로 빠른배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및 반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가능합니다. 교환 및 반품 전 반드시 고객센터로 먼저 접수해주셔야합니다. ※본 상품은 배송료 별도(소비자부담)로 구매가능한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 053) 591-6328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주 소 : 대구 달서구 갈산동 산 57-1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휴무

종량제 봉투 부서 실명제 도입 남구청, 한달 분리 배출 효과는?

대구 지역서 처음…3월부터 실시

아직 익숙지 않은 직원들 많아

재활용품·음식물 섞이기 일쑤

"관공서 전반에 확대" 의견 나와



남구청 공무원들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직원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남구청 제공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 문화 정착을 목표로, 대구 남구청이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대구에서 처음 시도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부서별 실명제 방식으로, 부서명이 적힌 스티커를 종량제 봉투에 붙여 쓰레기를 배출한다. 그동안 남구청 청사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 내에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등 혼입이 잦으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실명제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 매달 1회 점검을 통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재활용품·음식물 등의 분리 배출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행정 게시판을 통해 경고 조치한다.

그동안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생활쓰레기 감소 및 분리 배출 활성화의 대안으로 꼽혀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 주민 반발이 심해 쉽게 도입하지 못했다. 이번 남구청의 시도가 대구에서 처음 진행하는 실명제 사례다.

다만 시행 첫 달, 아직까지 일부 직원은 실명제 배출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첫 점검에서 여전히 플라스틱 컵이나 유리병이 종량제 봉투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쓰레기 처리 관리부서의 경고가 이어졌다.

남구청의 종량제 봉투 실명제 배출이 대구시내 관공서 전반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구·군청의 경우 쓰레기 배출 관리 팀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은 봉투에 쓰레기를 버린 뒤 위탁한 민간업체에 재분리를 맡기는 등 분리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의 한 구청 쓰레기를 처리하는 관계자는 "음식물 등 종량제 봉투에 버려선 안 되는 쓰레기가 많아 재분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책임을 갖고 쓰레기를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선 공공 영역에서 실명제 배출로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행동이 정착된다면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잘 배출하고 지인에게 바른 방법을 알릴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다만 실명제가 직원들의 통제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배주현 기자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

수면제 과다 복용…건강 이상무

"처·딸에게 미안하다" 유서 남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21일 "유 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정 당국은 유 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유 씨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어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교정당국은 유 씨의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법원은 전날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 씨는 이날 밤 12시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추가 영장 발부로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더 하게 됐다. 연합뉴스



"지구가 아파요" 지구의날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기후에 따라 변하는 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다. 지구의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날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호·경비 업무 경찰관 '드론 자격증' 필수 시대

실종자 수색·추락 사고 차단 목적

대구청, 현장 대응 강화 교육 실시

무인비행장치인 '드론'(drone)이 일상화되면서 경호·경비 업무를 맡은 현직 경찰관에게 '드론 자격증'이 필수가 됐다.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은 물론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

지난달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입주 행사를 앞둔 대구경찰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드론이었다. 몰려드는 인파는 기존 매뉴얼대로 관리·통제가 가능했지만, 하늘로 날아드는 드론은 경호 취약점으로 꼽혔다.

대구 도심은 공항 탓에 반경 9.3km 기준으로 대부분 비행금지 구역이지만 달성군 등 외곽 지역은 제재할 방법도 마땅찮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종사 실수나 기기 결함으로 드론이 추락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호도 신경 써야 했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들이 드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었다. 드론이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운행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아는 경찰은 드물다.

기술 변화에 따라 드론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상식을 숙지해야 한다고 본 대구경찰청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체 기동대원 45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온라인 드론 교육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드론 지식을 평가하는 '무인멀티콥터(4종) 자격증' 취득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전원 취득'이 목표다.

경호·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라 드론은 구조자 수색 목적으로만 운용된다. 대구경찰청이 보유한 드론은 모두 10대이며 장비 관리를 맡고 있는 인원 3명 모두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재무제표 허위작성' 에스엘 前 임원 2명 징역형 구형

영업익 줄이고 부채 부풀린 혐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이게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엘의 전직 임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21일 주식회사등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엘 및 이 회사 전 임원 A,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인도법인장 및 본사 재무담당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회사에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에스엘은 2016~2018년 회사 영업이익을 줄이거나 부채를 부풀리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이게 재무제표를 조작한 이른바 '역분식회계' 혐의가 제기돼 금융위원회와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원청인 완성차업체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각각 약 130억 원, 119억 원 줄이고, 반대로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약 111억 원을 늘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A씨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위와 동기가 일반적인 분식회계와는 다르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윤기 기자

연금복권 720 (제10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700만원x20년	4조	786276
2등	월 100만원x10년	각조	786276
3등	1,000,000	각조	86276
4등	100,000	각조	6276
5등	50,000	각조	276
6등	5,000	각조	76
7등	1,000	각조	6
보너스	월 100만원x10년	각조	763443





인산인해를 이룬 지난 문경찻사발축제 모습. 관람객들이 축제 현장에서 구입한 도자기를 쇼핑용 가방에 넣거나 손에 들고 가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띈다. 문경시 제공

문경 찻사발축제 3년 만에 다시 열려요

30일~내달 8일 문경새재도립공원

도예인 작품 1만여 점 전시

도자기 명장 직접 제작·설명

찻사발 랜선번개마켓 이벤트

"코로나 지친 연인·가족 함께"

"지난 3년 가까이 지긋지긋한 거리두기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지자체 축제 한번 제대로 즐겨보지 못했는 데, 경북 문경찻사발축제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장축제 중심으로 열린다 하니 가족과 함께 꼭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봄 향기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를 계획하는 연인과 가족들이 부쩍 늘었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 축제도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지역축제에 가보고 싶은 설렘도 가득하다.

이런 가운데 경북 문경이 가장 먼저 봄 축제 행렬의 포문을 연다. 문경찻사발축제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일정으로 국민관광지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다채롭게 마련돼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지친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 '문경새재와 찻사발축제'=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문경찻사발축제는 우리나라 전통 차(茶) 문화와 도자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거쳐 올해는 '찻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이란 주제를 정하고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치러진다. 도예인과 차인들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축제가 열리는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궁궐과 전통가옥 130동이 어우러져 있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이 있으며 국가명승지 문경새재 1관문과 곳곳 명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용했던 문경새재 1관문을 지나 2~3관문까지 옛 과거길은 부드러운 옛길 그대로 보존돼 있어 느낌 좋은 맨발 걷기 체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문경새재 입구 야외공연장에는 도예인들의 작품 1만여 점이 전시된다.

◆다양한 볼거리 및 행사 눈길=매일 2회씩 축제장에서 유명 도자기 명장이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자기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직접 설명해 주는 소통형 참여 프로그램 '사기장의 하루' 행사가 마련됐다.

또 전국 도예인 200명의 찻사발 작품을 전시하는 '대한민국찻사발 200인 초대전'도 열리며 최근 작고한 대한민국 도예명장 도천 천한봉 선생 추모 특별전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축제에서 찻사발 빚기 체험을 한 외국인들 모습. 문경시 제공

도자기 경매 등의 다양한 판매행사도 이어져 관광객들은 엄격한 검증절차를 받은 품격 있는 전통도자기를 싼 값에 살 수 있다. 또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빚은 도자기를 축제 종료 후 가마에 구워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다(택배비 별도)

이외에도 ▷찻사발 랜선번개마켓 ▷문경찻사발 5행시 작명▷상품 증정 이벤트, SNS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다. 축제가 열리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 먹거리촌에는 다양한 메뉴를 갖춘 30여곳의 맛집들도 즐비해 '식후경'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축제기간 중 온라인·오프라인 등 모든 도자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달항아리를 경품으로 증정하기도 한다.

문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도예명장 6명 중 3명을 배출했고, 요장을 운영하는 명망 있는 도예인들은 40여 명에 이른다. 특히 대부분 가정들이 다기세트와 찻사발 등을 갖추고 있을 만큼 도자기의 고장이다.

고도현 기자 dory@imaeil.com

"경주 도동택지조합 파행 배후에 전국 '부동산 마피아' 개입 의혹"

코아루 부지소유권 이전 신경전

대책위 "공소시효 남아 수사해야"

한토신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일"

경주 도동택지조합의 오랜 파행 운영으로 주민들이 수천억원대 재산 피해 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합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합 파행 운영의 배후에 '전국 규모 부동산 마피아조직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동방코아루아파트(660가구) 입주민들이 10여년째 개별 대지권 등기와 인접 도동택지 (19만㎡) 구획정리를 못하는 주원인은 조합의 체비지였던 코아루아파트 부지소유권 이전 문제로 파악된다.

조합은 지난 1990년대초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당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원의 땅을 모두 거둬들인 후 그중 50%는 사업비로 사용하는 체비지, 나머지 50%는 개인들에게 되돌려 주는 환지정리를 했다.

그후 조합은 체비지 3만4419㎡에 코아루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대금 가운데 부동산금융회사(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신탁보수수수료와 공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받아 택지정리사업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6년쯤 이 체비지 소유권이 조합에서 A씨(B건설)에게 이전된 뒤 다시 한토신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논란의 핵심은 당시 조합이 A씨에게 체비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수절차인 총회 의결을 거쳤느냐는 것이다.

당시 조합 감사직을 7년간 맡았던 최모(74) 씨는 "지난 2005년 이후 총회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조합 내부 사정은 2012년 조합장이 된 나에게 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는데, 우연히 불법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0년쯤 코아루아파트 시공사가 땅값 65억원을 A씨에게 지급해 택지정리사업을 벌였다'는 주장이 조합 측에서 제기됐으나 공사대금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주 부동산업계는 "전국에 도동지구 같이 각종 비리의혹 공사현장이 10여군데 이른다"면서 "서울의 모회사 등 부동산 마피아조직들이 어수룩한 지방도시를 타깃 삼아 돈 장난을 친 결과"라고 분석한다.

도동택지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코아루아파트 대지권이 한토신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주민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토신은 "체비지 소유권 문제는 조합과 A씨간에 벌어진 일로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고 A씨는 "내가 위수탁 계약자여서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비지 소유권을 내게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홍 기자 pjhbsk@imaeil.com

영주 8.15 광복쌀 모내기



경북 영주시는 21일 안정면 오계리 516-16번지 황순섭(40) 씨의 논(8·15 광복쌀 재배단지)에서 올해 첫 모내기(사진)를 했다.

8·15 광복쌀(조생종 해담벼와 진옥벼)은 황 씨의 논을 시작으로 5월 초까지 20ha를 순차적으로 모내기하고 광복절 전후 120t 정도 생산할 예정이다.

황 씨는 "모내기 하는날 날씨가 너무 좋아 풍년이 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며 "광복절에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수확 시기를 잘 조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15 광복 쌀은 영주시가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쌀시장 개방과 산지 쌀값 하락 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석용 햅쌀로 개발한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이다.

마경대 기자 kdma@imaeil.com



마스크도 패션이다
발렌키에서 만들면 다르다!

의약외품 | 식약처허가

KF94마스크

입체구조로 쾌적하게,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하게,
밀착구조로 안전하게,
다중필터 ——
미세먼지방역



MADE IN KOREA

대형1매입 | 감염원차단 | 부분4중구조필터 | 고탄력밴드





발렌키 KF94 새부리형

코와 입의 라인을 분리하여
편안함을 높여주는
세부리형 마스크!

KF94 정전필터

유해물질로 부터
완벽하게 보호한다!

2D / 3D / 덴탈마스크 / 아동용마스크

NAVER 아이다마스크

상품상담전화 : 053-552-7088
상품주문휴대폰 : 010-7498-7088
상품주문팩스 : 053-555-7188

Balenkey
발 렌 키

DGB Index 〈21일〉

코스피	2,728.21	(+0.35P)
코스닥	929.68	(+0.75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2.927	(-0.030%P)
환율 (원·달러)	1,239.0	(+2.9원)
금값 (1g)	77,490	(+660원)



이창용 韓銀총재 "물가·부채·성장, 균형 찾겠다"

이창용(사진)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공식 취임했다. 취임의 영광보다 풀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갈수록 커지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맞서 물가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 뛰었다.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총재는 이날 취임사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trade-off)가 통화정책을 더욱 제약하는 상황인 만큼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 정책을 운용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물가 상승 심리(기대인플레이션)가 올라가고 있어 인기는 없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그널(신호)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려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채 연착륙" 적극 조율 시사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유지
경기 감안해 속도 조절할 듯

◆가계부채 관리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2조1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천755조8천억원에 이른다.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총재는 취임사에서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인구 고령화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키워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 등과의 소통과 조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경기 크게 둔화하면 금리 조율"

한은이 물가와 가계부채에만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성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국내 물가의 상방 위험뿐만 아니라 경기의 하방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물가·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성장 추세가 이어진다면",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하면 그때그때 조율하겠지만" 등의 조건과 전제를 달았다.

따라서 향후 이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통화정책 완화 정도 축소) 기조를 유지하되, 성장률 추이 등을 봐가며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친환경 소비 합시다 대구신세계백화점은 기후 변화 주간(4월 22일~4월 28일)을 맞아 고객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백화점 매장 내에도 고객에게 다양한 친환경 제품 특가 기획과 상품 제안으로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쇼핑 속 탄소 줄이기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구신세계 제공

하이투자파트너스 본점 대구은행 제2본점으로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하이투자파트너스가 서울에서 대구로 본점을 옮겼다.

하이투자파트너스는 20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본점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하이투자파트너스는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 계열사로서 DGB금융그룹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대구경북 산업의 혁신과 유망기업 발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점을 옮겼다.

이번 이전을 통해 지역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효과를 거둘 거라는 게 하이투자파트너스의 기대다. 올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벤처펀드를 결성해 앞으로 3년 간 누적 결성액 기준 1천억원의 지역펀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 DG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FIUM Lab)'을 통한 혁신 스타트업 지원 강화 효과도 노린다.

권준희 대표는 "대구경북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코로나 때문에…60대 온라인 결제 142% 급증

신한카드 빅데이터팀 분석

전 연령대 평균 증가율의 2배나
40대 이상 배달앱·식품배송도 ↑

대구에 사는 김모(61) 씨는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정기 배송으로 두부·바나나·달걀 등 신선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전날에만 주문하면 좋은 상태의 제품이 새벽에 배송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김 씨는 "금방 변질될 수 있는 신선식품은 마트에 가서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코로나 시기 밖을 제대로 나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구매해 본 것이 생각보다 좋아 여전히 정기 배송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주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며 반강제적으로 디지털에 눈떠야 했던 고연령층이 2년 사이 온라인 소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불리던 고령층의 온라인 소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21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 연령대의 온라인 업종 전체 카드 결제 규모는 2019년 대비 71% 증가한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체 카드 결제 규모는 142%나 급증했다. 50대와 40대에서도 2년 만에 카드 결제 규모가 각각 110%와 84% 늘어나 전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45%와 63% 증가에 그쳤다.

배달업종과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에서도 40대 이상 연령층의 이용이 늘었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배달앱 이용 비중은 5%에서 9%로, 신선식품몰 이용 비중도 14%에서 21% 각각 확대됐다. 반면 20~30대의 이용량 비중은 배달앱에서 80%에서 67%로, 신선식품몰에서 51%에서 42%로 줄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50대 이상에서 이용이 활발해진 모습이다. 50대 이상 연령대의 이용량 비중은 OTT에서 9%에서 13%로, 음원 스트리밍에서는 7%에서 11%로 커졌다. 변선진 기자

"탄소 40% 감축, 원전 활성화가 핵심"

KIAF "신한울 3·4호기 완공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행하려면 원자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KIAF는 기계,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16개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곳이다.

KIAF에 따르면 2030년 NDC는 2018년 총 배출량 7억2760만톤(t)CO_2 eq(이산화탄소 환산량)보다 40% 감축된 4억3660만tCO_2 eq.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게 KIAF의 지적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원전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40% 감축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이게 여의치 않다면 부문별로라도 감축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원전을 활성화할 때 발전 부문에서 최대 7천900만t의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발전 부문 감축분을 산업 또는 수송 분야 감축 목표를 변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국 산업에 탄소 중립 목표는 도전적 과제다.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녹색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제조업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탄소 중립을 추진할 때 산업 구조 특징과 제조업 성장 비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의 얘기도 같은 흐름이었다. 정 소장은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라며 "자연조건, 원료 가격, 기술 등에 따라 발전원별 경쟁력은 천차만별이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에르메스 5천275억원 (전년대비 26%↑) HERMÈS PARIS

루이뷔통 1조4천681억원 (40%↑) LOUIS VUITTON

샤넬 1조2천238억원 (31.6%↑) CHANEL

에루샤 매출 3조원 돌파 가격 올려도 '보복 소비'

잇단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루이뷔통, 샤넬, 에르메스 등 주요 명품업체들이 지난해 눈부신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복 소비' 추세가 확산하면서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가 명품 주소비층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조2천238억원으로 전년(9천296억원)보다 3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천490억원으로 전년(1천491억원) 대비 67%나 급증했다. 루이뷔통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1조4천681억원으로 집계됐고, 영업이익은 3천1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가장 가격이 비싼 에르메스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달성했다. 에르메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5천275억원, 영업이익은 1천704억원으로

지난해 한국서 눈부신 실적
세 업체 모두 두 자릿수 성장
MZ세대 명품 사랑도 한몫

각각 전년 대비 26%, 28% 늘었다. 이른바 '3대 명품'으로 일컬어지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뷔통·샤넬을 합쳐 부르는 말)의 합산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다른 고가품 브랜드들의 실적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디올의 지난해 매출은 6천139억원으로 전년보다 87%, 영업이익은 2천115억원으로 102% 성장했다. 불가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48% 늘어난 2천722억원이었다.

이런 호실적은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지난해 제품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한 가운데 달성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루이뷔통은 지난해 5차례, 샤넬은 4차례나 가격을 올렸다.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의 명품 구매 욕구를 꺾지 못한 것이다.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복 소비' 트렌드가 명품 브랜드 실적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여행 자금을 명품 소비로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또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의 명품 사랑도 한몫했다.

해외 명품업체들은 한국 시장에서 큰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다.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배당 등을 통해 해외 본사로 송금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한 명품업체들은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줄 서서 사니 굳이 사회공헌 활동에 큰돈을 쓸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며 "한국은 '베블렌 효과'가 뚜렷한 소비 시장"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이른 여름휴가 준비 롯데백화점 대구점 7층 '아레나' 매장에서 비치웨어 및 구명조끼 등 다양한 수영 용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정부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 3만명 키운다

올해 224억원 투입 2천명 양성
6개 기관 협약 기업 맞춤형 정책

정부가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 3만 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차 분야 인력 양성 성과 확산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는 105억원을 투입해 1천100명의 미래차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올해는 2천233명을 키우기 위해 224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은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진행하는 일. 학부생, 재직자, 실직자 등 고용 분야별로 전(全) 주기 단계에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이날 보고회에서 밝힌 사업 추진 방향은 ▷수요기업 사전 참여 ▷사업 재편 지원 ▷제조·서비스 융합 지원 등 3가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날 '미래차 인력 양성의 산학협력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혁신 인재 육성을 통해 미래차로 전환하는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6개 기관이 협약을 맺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에 수요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하고 사업 재편 작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조와 서비스 융합형 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2030년까지 전문 인력 3만명이 미래차 분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대구3산단 ESG 경영 선포
친환경·사회 책임에 앞장

대구제3산업단지(3산단)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면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관리공단)은 이날 제115회 이사회를 열고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종윤 관리공단 이사장은 "ESG 경영은 인류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간 3산단 입주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을



대구제3산업단지(3산단)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면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제3산업단지 제공

위해 양적인 성장을 중요시했다"면서도 "앞으로 50년은 친환경적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 투명 경영에 앞장서서 존경받는 기업과 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강호 관리공단 전무는 "향후 ESG 경영에 대한 교육, ESG 경영 인증제도 도입, ESG 보고서 발간, 정기적인 플러깅, 국가기관·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공단은 지난해 대구은행과 ESG 경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ESG 경영에 대한 교육과 인증제도 도입,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대구시 '차세대 선도기술' 참여 기업 모집

미래신산업·섬유·기계부품 등 대상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가 '2022년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사업(이하 차세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추진 중이다.

차세대 사업은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기술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 사업. 단순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업화(Business)를 접목한 시장 중심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과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 디자인과 마케팅 등 사업화 패키지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는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대구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지원 대상은 대구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최근 급성장 중인 '5+1' 미래신산업(물, 의료, 미래형 자동차, 로봇,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와 기계부품, 섬유, 안경,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 분야가 대상이다.

중형과제 경우 기업당 최대 2억원(2년 간 최대 4억원), 소형과제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시제품 제작비와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기술도입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 복귀 기업, 대경혁신인재양성(휴스타) 프로젝트 참여 기업 등이 이 사업에 신청하면 선정 평가 때 우대 가산점이 있다.

2021년도 차세대 사업 성과 분석(2012~2020년 지원 사업) 결과에 따르면 매출 796억원, 신규 고용 425명, 지식재산권 581건, 사업화 성공률 71.3%라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에 참여할 기업은 대구시, 대구TP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2022 어린이사랑 다자녀가족

사진&UCC 공모전

총상금 : 1,500만원 5/15일까지



주최 대구광역시 每日新聞

협찬 NH농협 대구도시공사 금복문화재단 DEBEC

- 주제(택1)
  - 사랑스러운 어린이
  - 행복이 가득 담긴 다자녀 가족
  - 결혼, 출산, 가족의 소중함
- 접수마감 : ~5월 15일(일) 23:59까지
- 출품자격 :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누구나(내·외국인 제한 없음)
- 출품방법
  매일신문 앱 또는 홈페이지(imaeil.com) ☞ '사진·UCC공모전' 배너 클릭 ☞ 접수
  - 표현 : 자유(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등), 미발표작
  - 출품수 : 1인(팀) 4점(편) 이내 / 출품료 없음, 사진 및 UCC 복수 출품 가능
  - 출품부문
    - 사진 : 1MB(1,042KB) 이상, jpg파일로 접수
    - UCC(광고, 패러디 등 자유영상)
      규격 : 30~90초 이내, 해상도 1280×720 pixel 권장, 100MB 이내
      파일형태 : mp4, wmv, avi, mov 등 영상 파일
  - 유의사항
    - 입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고화질 원본 영상과 썸네일(JPG) 별도 제출
    - 동영상 시작 화면에 작품제목과 팀(개인)명 표기
    - 끝 화면에 BGM 제목 등 출처 반드시 명기
    ※ 제작에 사용된 음악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음원이어야 하며, 출품작의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음악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or.kr)에 문의
- 시상내역

구 분		시상내역
대 상	1점(편)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사진 1점	상패 및 상금 200만원
	UCC 1편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3점(편)	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장 려 상	10점(편)	각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 선	30점(편)	각 상장 및 상금 10만원

※ 5월 말 ~ 6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후보작을 공지하며, 발표 후 2주간의 표절 검증 기간을 거쳐 수상작 최종 결정
※ 입선 이상 수상자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매일사진동우회 입회 자격 부여
- 시상식 : 7월 2일(토) 오후 3시, 대백프라자갤러리 A관(12층)
- 수상작 전시
  - 1차 : 6. 28(화)~7. 3(일), 대백프라자갤러리 A관(12층)
  - 2차 : 9. 2(금)~3(토), '여성up엑스포' 특설갤러리존(엑스코 1층)
  - 사이버전시 : 6. 13(월)~, 매일신문 홈페이지 ☞ 포토갤러리
- 문의 : 053)251-1416
- 유의사항
  - 작품 제출은 아래 사항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공모전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 심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2차 수정) 안에서 작품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 복제 및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
    - 입상작은 발표일로부터 3년 동안 별도의 통지 없이 주최측(대구광역시, 매일신문)에서 진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활용(공익 목적을 위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 포함)
  - 이미 발표된 작품이거나 표절·합성·조작 등을 비롯한 출품작의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밝혀질 경우 전체 심사과정 제외와 수상 취소는 물론, 시상식 이후라도 상금 및 상패는 환수 조치됨
  - 입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상작 발표와 상금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제출규격에 맞는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상자는 시상식에 참여하여야 함
  - 공모요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들은 공모전의 일반 관례에 준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펄펄 끓는 라면 시장…비빔면·매운맛·고급화 경쟁



올해도 '라면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라면 업계 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힘 쏟는 세 가지는 '비빔면'·'매운맛'·'프리미엄'이다. 더운 날 수요가 많아지는 비빔면의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케팅이 한창이면서 매운맛 마니아층을 저격하기 위한 더 매운 제품 출시에 분주하다.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프리미엄 전략이 라면에도 붙기 시작한 모양새다.

◆점유율 쟁탈전…비빔면 전쟁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라면 업계는 비빔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시장 전체 규모는 2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년(2조8천억원)에 '코로나 특수'를 누린 것을 제외하곤 수년간 2조5억원 안팎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빔면 시장의 경우 2015년 760억원에서 지난해 1천500억원까지 6년새 2배 이상 커졌다. 비빔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마케팅을 통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빔면 시장의 선두 주자는 '팔도비빔면'의 팔도다. 1984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경쟁 업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잇따라 출시한 탓에 한때 80%가 넘던 점유율은 55~60% 수준까지 떨어졌다. 오뚜기와 삼양은 2020년 3월 '진비빔면'과 '불닭비빔면'을 각각 내놨고 농심은 지난해 3월 '배홍동'을 출시하면서 라면 빅 3사가 모두 비빔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농심이 20%, 오뚜기가 10% 정도의 비빔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팔도는 바빠졌다. 우선 지난달 '꼬들김'과 '꼬간초'라는 흰 빛깔의 비빔면을 출시했다. 통상 빨간 양념 소스에 비벼먹던 비빔면의 선을 넘은 것이다. 팔도는 소비자들의 출시 요청에 화답한 '모디슈머(Modisumer)' 마케팅으로 최근 중량을 20% 이상 늘린 '팔도비빔면 컵 1.2'를 한정판으로 내놓기도 했다. 방탄소년단(BTS)의 RM이 "팔도비빔면 1개는 양이 적다"며 "1.5배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업계 간 경쟁은 더 과열되고 있다. 농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델로 방송인 유재석을 발탁했고 오뚜기는 최근 '진비빔면'을 리뉴얼한 '진비빔면 배사매무초'를 내놨다. 풀무원은 지난해 4월 채식주의자를 위한 '정비빔면'을, 삼양식품은 지난 2월 양을 더 늘린 '비빔밀면'을 출시하면서 후발주자들도 가세한 상황이다.

비빔면 시장 6년 사이 2배 넘게 성장
코로나 이후 빅 3사 신제품 쏟아내

'맵부심' 겨냥 자극적인 맛 인기몰이
팔도 30만개 한정판 상품 조기 완판

한 봉지당 1천원 이상 프리미엄 전략
구색 다변화·업계 선도 차원 선보여

◆한국인의 맛 '매운맛'

매운맛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선 '맵부심'이 넘쳐나는 탓에, 이들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최근 열을 올리는 건 팔도인데, 팔도는 지난 1월 30만 개 한정판으로 선보인 '틈새라면 극한 체험'을 정식 출시한다고 했다. 베트남 하늘초를 사용해 기존 틈새라면에 매운맛과 건더기 스프를 강화한 제품이 한 달 만에 완판 된 데다, 추가 생산한 30만 개마저도 조기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젓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팔도는 지난 2월엔 '틈새라면 매운짜장'과 '틈새라면 매운카레' 등 2종의 제품도 선보였고 3월엔 '킹뚜껑'도 정식 출시를 알렸다. 킹뚜껑은 스코빌 지수(캡사이신 농도를 계량화한 수치)가 1만2천SHU로, 현재까지 출시된 국내 컵라면 중 가장 높아 화제가 됐다.

매운맛의 절대강자인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은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양새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불닭짬뽕'과 '불닭스리라차'를 새로 출시했다. 불닭짬뽕은 고기육수에 불닭소스를 넣은 국물 라면이고, 불닭스리라차는 불닭소스에 스리라차 핫소스를 더한 볶음면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매워 화가 날 정도의 맛은 반짝 인기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매운맛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라면이 1천원 훌쩍 넘는다

라면에도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좋은 것·비싼 것을 찾는 이들이 많아져서다. 저출산·고령화로 라면 등 식품의 소비층이 얇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수익성을 고민해야 했던 업계는 이번 기회로 제품군의 다변화를 노리고 있다.

농심이 지난 2011년 '신라면 블랙'이라는 프리미엄 라면을 내놓은 이후, 지난해 1월 오뚜기는 한 봉지당 1천800원인 '라면비책'을 선보였다. 같은 해 말 하림은 2천200원 하는 '장인라면'을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라면 경쟁에 뛰어들었다. 라면 한 봉지당 700원의 심리적 저항선을 훌쩍 깬 것이다. 업계는 프리미엄 라면이 단기적인 수익성·이벤트를 노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라면 구색의 다변화를 위한 선도 차원에서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라면 전체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2조억원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라면 업계의 제품 확대가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3조억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이마트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완구 최대 50% 할인

행사 물량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려
자전거 등 스포츠용품도 저렴하게 판매

이마트는 올해 선포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블록 완구와 유아 완구, 캐릭터 완구, 디지털 가전, 야외 스포츠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는 어린이날 100주년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형 행사인 점을 고려해 행사 물량을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렸다.

레고 40여 종의 상품은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다음 달 1일부터 레고 클래식 90주년 기념 세트도 단독 상품으로 선보인다. 레고 전 품목 10만원 이상 구매 시 '레고 파우치(스타트팩 2입 포함)'을 전점 1만 개 한정 증정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스터 관련 상품은 20% 할인 판매한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아동 글러브, 축구공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스포츠용품도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는 행사 카드로 완구 전 품목 7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과 '스타워즈 타포린백'을 전 점 1만 개 한정으로 준다.

완구 전 품목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4천원 상당의 '콩순이 에코백'을 100원에 판매한다.

김태영 이마트 완구 바이어는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맞아 협력사들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진행하는 대형 행사인 만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고객 방문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이마트가 다음 달 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1·2종, 대형, 2종소형, 견인차 자체시험
(츄레라)

- 54년 전통의 대구 최고 명문학원(since1968)
- 대구 시내 매시간 통학버스 운행
- 면허증 취득시 각종 공무원시험 가산점 혜택
- 공원 같은 쾌적한 교육장
- NAVER 대구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검색
- 학원에서 연습하고, 학원에서 시험칩니다!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팔달교옆 (3호선 팔달역앞)
053-314-8888

요충지 마리우폴 함락 임박…러시아 "최후항전지 장악할 것"

저항군에 '투항하라' 최후통첩
우크라軍 지하터널에서 버텨
군인·민간인 3500명 은신 추정
참사 우려 별도 특별협상 요구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남부의 전략 요충지 마리우폴이 함락이 임박한 상황이다.

로이터, AFP통신 등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내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항전지인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21일(현지시간) 내에 점령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 체첸 자치공화국의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는 "오늘 점심(한국시간 21일 저녁께) 전후에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첸은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쟁에 전투원을 파병했다.

우크라이나 해병대와 아조우 연대는 마리우폴 대부분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상황에서 이곳 지하터널을 요새로 삼아 버티고 있다.

러시아는 이들 우크라이나군에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8시)까지 투항하라고 최후통첩했다.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우크라이나군의 절박한 목소리가 현장에서도 전해졌다.

세르히 볼랴나 우크라이나 36해병여단 지휘관은 전날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10대 1 정도로 규모에서 열세"라며 "마지막 며칠을 맞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아조우스탈 제철소의 지하 터널에는 군인 2천500명과 민간인 1천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군은 지하 시설물을 타격하기 위해 관통력과 폭발력을 높인 무기인 벙커버스터까지 쓴다는 주장도 나온다.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예고되고 참사 우려가 커지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존 평화협상과는 별도의 '특별협상'을 요구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아조우스탈에 있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제조건 없이 마리우폴에서 직접 협상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확답이 있으면 바로 마리우폴로 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러시아로선 마리우폴을 장악하면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최대 전과를 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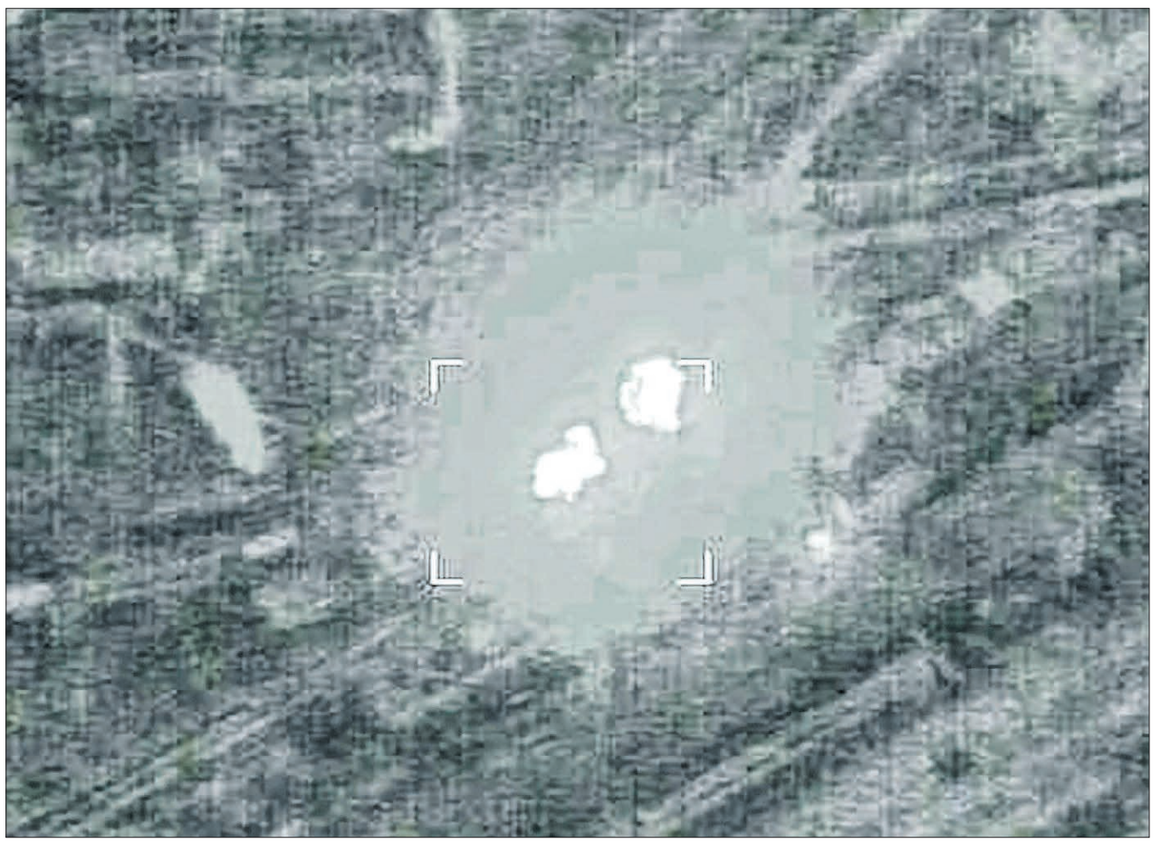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2014년 무력으로 병합한 남부 크림반도와 친러시아 반군의 점령지인 동부 돈바스를 육로로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시작한 뒤 소도시 유린을 되풀이했을 뿐 남부 헤르손 외에 마리우폴 같은 주요 도시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

서방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5월 9일 전승절(2차 대전 승전 기념일)에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열 것이라는 첩보도 보도됐다.

인구가 40만명이던 마리우폴은 이번 전쟁 직후부터 계속된 러시아군의 포위와 무차별 폭격으로 도시 대부분이 폐허가 됐다. 연합뉴스

〈아조우스탈 제철소〉



전폭기 공습받는 아조우스탈 제철소 러시아군 수호이(Su)-34 전폭기의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20일(현지시간)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 제철소에는 항복을 종용하는 러시아군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우크라이나군 2천500여 명 외에 민간인 1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러, 히로시마 원폭 2천배 ICBM 시험발사

"올가을 실전 배치할 계획"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에 핵 위협을 해 온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28 '사르맛'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타스·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이날 오후 3시 12분(한국시간 오후 9시 12분) 아르한겔스크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사르맛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험용 탄두는 캄차카반도의 예정된 지역에 정확히 명중했다"며 "이번이 사르맛 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라고 전했다.

사르맛은 2009년부터 우랄산맥 인근 첼랴빈스크주 마케예프 로켓 설계국에 의해 개발돼 온 격납고(사일로) 발사형 3단 액체연료 로켓 ICB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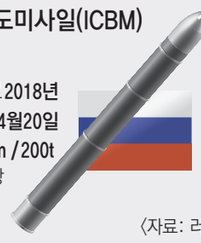
러시아가 지상 발사 핵전력의 근간으로 옛 소련 시절 생산된 ICBM R-36M '보예보다'(나토명 SS-18 '사탄') 대체용으로 개발해온 사르맛은 2016년 10월 마케예프 설계국이 웹사이트에 처음으로 사진을 올리면서 주목받았다.

러시아는 이 ICBM을 올가을에는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사거리가 1만8천㎞인 사르맛은 메가톤(TNT 폭발력 100만t)급 독립목표재돌입(핵)탄두(MIRV)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르맛에 장착된 핵탄두의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천 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러시아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맛'

- 개발시기 2009년 • 개발완료 2018년
- 시험발사(현지시간) 2022년 4월20일
- 길이/폭/중량(추정) 36m/3m/200t
- 최대 사거리 1만8,000km이상
- 속도 마하 20.7
- 메가톤(TNT 폭발력 100만t)급
- 독립목표재돌입 (핵)탄두(MIRV) 15개까지 탑재 가능 추정
- 핵탄두 위력 :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 원자폭탄보다 2천 배 큰 것으로 평가



〈자료: 러시아 국방부, 위키피디아〉 연합뉴스

北선전매체 "한미연합훈련은 북침전쟁연습"

"남북관계 최악의 국면 처해"

북한 선전매체들이 21일 한미연합훈련을 걸고넘어지며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했다고 맹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북침전쟁연습'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윤 당선인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관련 발언, 미국의 핵 항모 전단 동해 공해상 진입,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언급하며 "현 남조선 당국의 비굴한 추태와 신권력으로 불리는 윤석열 집단의 호전적 광기로 말미암아 북남(남북)관계와 조선반도 정세는 최악의 국면에 처해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적대와 반목, 불신과 대결이 한계점을 넘어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라며 "현 상황으로 볼 때 조선반도 정세는 이미 극단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최근 남조선군부의 대결 광기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겉으로는 방어의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저들이 지금껏 숙달·완성해온 북침 전쟁계획 수행을 위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완비하자는 것이 이번 훈련의 진목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군부와 미국이 강행하고 있는 군사적 도발 행위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몰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법인부동산

달 서 구

KT부동산중개㈜(허은,달서588-0097)27290-2018-00149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 부동산 공장 임대, 매매
최다물건보유,전화주세요 588-0097

★프레스공장 인수
하실분(성주선남)대2,644㎡,건561㎡
고8M,크2.8t 1대,프레스8대(로봇)
매매가16억5천만 010-9973-0097

★성서 공장매매★
대4900㎡, 건4,300㎡, 고5M
당460만 010-9973-0097

★성서신축공장매매
대2,446㎡, 건1,719㎡, 고9M
당625만 동력30KW 010-9973-0097

★현풍 금리 나대지 매매 자연녹지지역,공장밀집지역
대지2,492㎡(754) 당140만
투자 추천 010-9973-0097

★창녕 고암면★
계획관리지역,토지매매,13,474㎡
평탄작업,당35만, 추천용도:제조
물류, 영농법인 010-9973-0097

★왜관 소매점매매,대1029㎡
건305㎡, 대로변
핫플레이스,추천/산강공원다갖춘
땅,스타벅스,투썸,베이커리,스크린
골프,당600만 010-9973-0097

서 구

㈜대동부동산(윤희문,서구564-8200)가-13-2141

성주 산업단지 內 공장 대지19,800㎡
건물3,000㎡
분할가,가격문의 010-9007-8283

월1950 빌딩부지 대492,건2710,대로코너 61억인수,약국병원인접 당2,700,대로코너 역세권, 820㎡ 010-2509-9996

파리바게뜨 임대
보이천, 月백팔십, 일매백만
권시비1.3억
매물접수 053) 284-0118

고령운수 전원주택 730㎡,37만 1100㎡X23만
도6M 053)284-0076

팔공산 전원주택지 남원리 정남향 면적다양(150~300)
문의환영 053)284-0188

대지부동산

(임유현,서구561-6561)27170-2016-00067

카 모텔,3억인수(융자),대260
카모텔 객18,주택有3 파계사,교환可
신축5년 053)561-6561

모 텔,11억인수(융자)대209
모텔 R33,배관까지 올리모델링
시설 및 매출 양호 053)561-6561

호텔 12억인수,(융자),대390
모텔 룸48, 준신축
상가임대수입 별도 053)561-6561

호 텔26억인수융자대3100,R53
콘 실,신축수준,매출12000이상
도,33억 인수,(융자)
임대수입 별도 053)561-6561

재개발 예정지 35M코너 준주거, 3,525㎡
당 매매 1,380만
원대역 도보5분 053)719-4095

대농부동산(김영기,서구521-4949)27170-2019-00025

모텔매매 25억
대2,800㎡
객실45, 최신시설, 융.별
12억 대1,066㎡,객실35,주변 상권최상 053)521-4949

모텔매매 8억(융별)
대775㎡
객실30, 영업최상
12억 인수,대745㎡,객실30 시설최상 053)521-4949

온누리부동산(양현석,서구20일-공시공고)27170-2020-00012

구지 시세이하 땅!!
자연녹지,임23134㎡,도접,시세40만/당매매30만/3.3㎡(21억)
053)571-0413

★초대단지 통상가
25억,月1160만,1만세대,역세권
E/V,대512㎡,건1214㎡
053)571-0413

급 숨넘어가는모텔
11억(융자)룸38실,시세(감정가)이하
대1,551㎡,건2,584㎡
053)571-0413

팔공산 시세이하 땅
자연녹지,임11,071㎡,도접,시세50만/당,매매45만/3.3㎡(15억)
053)571-0411

★초대단지 통상가
18억,月736만,1만세대,역세권
E/V,대323.8㎡,건721㎡
053)571-0411

★9억인수,月720만
5층통상가,대로네거리코너,대234㎡
올수리,주차장,엘리베이트有,유동
인구多,특급상권 010-9357-5675

★32억인수,月1650
역출구앞 5층상가, 대568㎡,급매
초역세권,35M대로,엘리베이터有
고수익,특급상권 010-9357-5675

월300,3층상가주택
대228㎡,수익성 안정된 상가,20m
매8억3천 노후 보장 연금식 010-6435-2556

독점프랜차이즈상가
月1100 26억인수,대796.6㎡ 건1411.5㎡, 대도로
코너,손님바글바글 053)572-0410

★가창 땅 건축가능
26,446㎡(8,000) 가창카페/음식점
보1억,月330,권1500,대구통상가
다량보유 010-4001-4584

코너프랜차이즈상가
44억4천 月2천만, 융자無 공실 없슴
대733㎡,건1594㎡ 010-9760-5069

2호선코너특급상가
22억 月801만 목좋은 노다지 황금상권
대349㎡,건1022㎡010-9760-5069

연수익5.3%메디컬 빌딩
102억 月4,500만, 융자無 역세권 특상권, 대587㎡
건3,632㎡ 010-8896-4599

중심상업지35M코너 통상가 횡단보도앞 주상복합 대단지 초인근
대660㎡,59억 010-8896-4599

초역세권 전면최상 통상가 대565㎡,역출구앞 특급바글상권,공실無
39억,月1,600만 010-8896-4599

코너상가감정평가 이하 초급매 대357㎡, 활발한 먹자 상권, 공실無
17억,月630만 010-8896-4599

5% 일반상업 특급 상가
42억 月1700만, 융자無 초 대단지앞
공실無, 대590㎡ 010-8896-4599

연수익7%대단지빌딩
매125억 月7,100만 융자無,대1,000㎡
건1,800㎡ 010-4501-3935

네거리코너메디컬 빌딩
93억 月4천만, 초대단지앞 공실없음, 대1,190㎡
건5,570㎡ 010-4501-3935

서대구 역사 개통
3층통상가급급매,대300㎡,4차선 횡단보도,코너,재개발 예정지옆
투자굿,인수가7억 010-3851-5504

대단지코너상가주택
9억 月330만, 2호선, 역세권 공실없음, 대246.5㎡
건419㎡ 010-5432-9578

코너 약국병원상가
26억 月995만, 대단지앞 재래시장 근, 대616㎡
건1534㎡ 010-5432-9578

시세보다 2억 싼 땅!
계획 관리(대+전) 3,819㎡ 2차선 도로접, 전면85M
시세10억, 매8억 010-5432-9578

영천 땅 I·C 5분
95,000㎡(29,000) (올 계획관리)
3.3㎡ 당33만 053)572-0408

㈜삼성부동산

(조정현,서구568-8989)가-13-1978

수성구 매호동
땅2800 대지 562㎡ 촌집 있슴
매28억 053)568-8989(10)

★역세권상가 50억
대436㎡,건물1428㎡,보3억7000만
月1650出 2호선 초역세권 010-2234-2892

★특급상가 39억★
대980㎡,건1470㎡,4층,주차완비
성서 최고위치,사정상 급매 010-2234-2892

★메디컬 빌딩★
대1,240㎡, 건5,600㎡, 보26억
月5,000出,병원6개,약국,유명프랜
차이즈입점,145억 010-2234-2892

모텔 급매
대252,방33,매25억
대345,방34,매73억 010-8029-8118

매물접수,구합니다
통상가,빌딩,상가주택,신축부지,토지
소중한자산, 매물 받습니다.신속,정확
비밀, 조용하게 끝!! 053)557-9770

3층 통상가 대지202㎡ 건339㎡
도로12m아파트정문주통로최요지
인근대단지A상권,융자7억,보6천만
月370만,5억5천인수 053)557-9770

4층 통상가
대1,500㎡,대로35m접,사통팔달
장기계약,안전한 입점,평생공실無
月4,000만 44억인수 053)557-9770

5층 통상가
대로30m접,약국,병원,학원 통상가
초역세권최요지,유동인구 밀집지역
月1550만 몽땅45억 053)557-9770

2호선라인5층통상가
대로35m접,역세권,대단지A재개발
재건축,역세권,주통로,명품상권
月1430만,몽땅59억 053)557-9770

상가주택 대지264㎡ 건607㎡
신축A주통로 코너상가 1층 상가5칸
올리모델링,엘베유 50평대 주인세대
月582만,6억5천인수 053)557-9770

月1800지하철출구접
대지809㎡, 건2,099㎡
25억 인수,동구 최요지 통상가 010-6547-4488

月4300전층약국병원
대599㎡, 건3683㎡, 45억인수
지하철 출입구접, 횡단보도접 010-6547-4488

月1200진천역빌딩
20억인수 대530㎡,건1333㎡ 지하철 대로접
시세보다19억쌈 010-6547-4488

月1억2천,전층 약국 병원 대1,977㎡,건14,500㎡
120억인수,전층약국병원입
주,지하철출입구접 010-6547-4488

月3350사거리코너 빌딩
대755㎡, 건3600㎡, 35억인수
대로 사거리코너 최요지
서구 최요지 010-6547-4488

月400,몽땅9억7천 5억인수 대447㎡,건499㎡ 대단지정문 사거리
코너 최요지 010-6547-4488

★★칠호광장 땅★
몽땅 백십억 최고상권
급매물 053)527-9955

月1400,3층통상가
20억인수 황금상권 세융안고
급매물 053)527-9955

㈜대진부동산

(이승열,서구566-6400)27170-2020-00017

중심상업 4층 상가
대797㎡,보5억,대출80억
月4500 자부담 45억인수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대610㎡, 건1980㎡
月1600 보안고,43억5천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세안고 60억, 대522㎡,건1500㎡
月1700 프랜차이즈 입점 053)566-4488

월세많은3층상가 주택
대207㎡,2호선근,8m접,주인살고
月240出 세융없이 총7억2000 살면서월세받는물건
으로최고"매우급함" 053)556-3600

월세많은4층상가 주택
대219㎡, 도20×6M, 2호선근접
몽땅13억 月470出,물건확실 053)556-3600

수 성 구

최선부동산㈜(우병선,수성741-0070)27260-2017-00216

황금 태왕아너스75 매매 귀한명품아파트 전망 좋은집
최선부동산 053)741-0070

㈜경동부동산(한성구,수성1666-0577)가-16-3342

月9천出50억인수가
대4,270㎡, 건12,600㎡
통상가 (보15억,융자120억) 급매 1666-0577

현 커피숍 급매매
대지1,250㎡, 건480㎡, 당650만
10억인수가능, 임대가능, 보1억
月1,000만,권리금無 1666-0577

동 구

동경부동산㈜(금각연,동구744-6767)2714-0201-005006

※5층상가 이곡동
달구벌대로접, 대530㎡(160), 급매
몽땅28억 명도가능,상담환영 053)744-6767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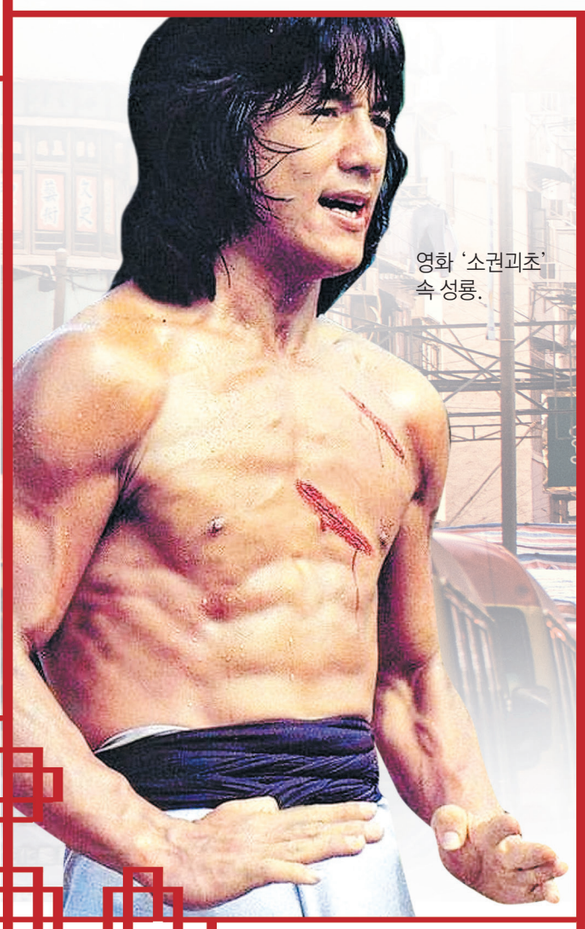
급! 신축 팔공산
대939, 건37,(2가구) 분할가능
매9억원 010-7127-6776

※서대구 역사 근
자연녹지,용도다양,도로6m,대형차
진입, 1,586㎡(480), 1,372㎡(415)
당380만 053)744-6767②

특AA 5층 상가!
도로50m,보2억5천만,月1950만
매55억 주차20대 053)744-6767③

19면 계속

‘아뵤~’ 소리도, 맨손 격투도 ‘아듀’



영화 ‘소권괴초’ 속 성룡.



1960년대 후반 아시아 최고의 스타배우였던 왕우.



영화 ‘천녀유혼’ 속 왕조현.



영화 ‘영웅본색’ 속 장국영.



영화 ‘사망유희’ 속 이소룡.



김중기의
필름통

홍콩영화에 대한 향수

전설의 외팔이 검객 왕우가 지난 5일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60년대 후반 아시아 최고의 스타배우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신성일과 윤정희, 문희, 남정임 등 소위 트로이카 배우가 인기를 끌던 시기. 홍콩 쇼브라더스사가 제작한 1967년 ‘독비도’(의리의 사나이 외팔이)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큰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외팔이 검객 시리즈는 왕우를 톱스타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옛 만경관에서 본 ‘독행도’(1971)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두 검객이 바닷가 갯벌에서 처절하게 싸우던 장면은 잊을 수가 없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우의 죽음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홍콩영화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이번 주에는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1994)까지 재개봉해 그 애련함을 더해주고 있다.

홍콩영화는 1970년부터 약 30년 간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영화라는 장르도 소멸했다. 이제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가 된 것이다. 옛 앨범을 넘기듯 홍콩영화에 대한 향수를 독자들과 나눠본다.

왕우가 대만으로 건너가 활동하던 시절 작은 거인이 홍콩영화에 등장했으니 바로 이소룡(1940~1973)이다. 대신동 시민극장에서 본 ‘정무문’(1972)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일본의 총구 앞에 선 그가 마지막 발차기를 내지르면서 영화가 끝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미가 이소룡이 내지르던 묘한 괴조음(이소룡 특유의 기합소리)과 함께 오랫동안 귓전을 맴돌았다.

이소룡의 발차기·성룡의 코믹 액션
장국영·주윤발의 ‘누아르 브로맨스’
남성관객 홀린 무협지 귀신 왕조현

이소룡은 미국인이다. 경극배우인 아버지가 미국 공연 중 낳았다. 이후 홍콩으로 건너왔지만 어린 시절 골목에서 싸움꾼으로 컸다. 엽문의 제자로 들어간 것도 이때다. 그가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TV와 영화계를 전전했지만 별 소득이 없어 다시 홍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찍은 첫 영화가 ‘당산대형’(1971)이었다. ‘정무문’보다 한 해 앞서 제작된 영화지만, 한국에서는 ‘정무문’의 성공에 힘입어 뒤늦게 개봉했다.

친구인 척 노리스와 ‘맹룡과강’(1972)을 찍은 후 드디어 이소룡의 상업성을 본 할리우드가 ‘용쟁호투’(1973)를 제작한다. 엄밀히 따지만 ‘용쟁호투’는 미국영화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공을 들인 이 영화의 개봉을 보지 못했다. 개봉 6일전인 1973년 7월 20일 33살의 나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망에 대한 루머는 아직도 분분하지만, 아들 브랜든 리 마저 1993년 영화 촬영 중 총기사고로 사망하면서 2대에 걸친 비극은 세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1978년에는 ‘사망유희’가 개봉했는데, 이 영화는 이소룡이 찍은 필름에 3명의 대역을 써서 짜깁기한 영화였다. 홍콩 골든하베스트사가 돈을 벌 요량으로 만든 영화라 완성도라 할 것도 없지만, 한국 법주사 팔상전에서 펼쳐지는 실제 이소룡의 결투는 가히 명장면이라 할 만 했다. 이소룡의 노랑 트레이닝복 이미지도 이때 생긴 것으로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 빌’에서 재연되기도 했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이 성룡이다. 1978년 제작된 ‘취권’, ‘사형도수’는 무술의 비장함 대신 코믹한 설정으로 미친 흥행몰이를 했다. 저예산 B급 영화인 ‘취권’이 이소룡의 빈자리와 왕우의 검객 영화가 주는 식상함의 끝을 절묘하게 파고든 결과

시대 풍미한 외팔이 검객 왕우 사망
반환전 홍콩배경 ‘중경삼림’ 재개봉
희미한 옛사랑처럼 추억 속으로…

였다. 이후 성룡은 ‘오복성’(1983), ‘프로젝트A’(1984), ‘쾌찬차’(1985), ‘폴리스 스토리’(1988) 등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아크로바틱 격투로 1980년대 한국의 극장가를 휘어잡았다.

이후 홍콩 누아르 붐이 일었는데 바로 오우삼 감독의 ‘영웅본색’(1987)이 시작이었다. 전통적인 맨손 격투와 검술에서 벗어나 화려한 쌍권총의 시대가 온 것이다. 형제애와 우정 등 동양적 정서에 남자들의 비극미가 누아르라는 이름으로 채색돼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영웅본색2’(1988), ‘첩혈쌍웅’(1989) 등과 함께 아류작들도 쏟아졌다. 새롭게 등장한 스타들이 장국영, 주윤발, 양조위 등이었다. 또 정소동 감독의 ‘천녀유혼’(1987)은 왕조현이라는 무협지 속 미녀를 건져 올려 많은 남성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했다. ‘첨밀밀’(1996)의 장만옥 또한 어떻고.

홍콩반환을 앞둔 홍콩인들의 불안한 정서를 왕가위 감독이 특유의 영상미로 그려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번 주 개봉한 ‘중경삼림’ 또한 1994년 홍콩에 살고 있는 외롭고 고독한 네 명의 인물을 잘 그려내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영화 속 마마스 앤 파파스의 노래 ‘캘리포니아 드리밍’은 그들이 꿈꾸고 싶은 미래의 홍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콩에 따스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들지 못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인들은 뿔뿔이 흩여졌고, 홍콩영화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 기억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돼 있을 뿐이다. 더구나 지난 1일은 장국영의 기일이기도 해 이래저래 홍콩영화를 추억하게 되는 4월이다. 영화평론가

새 영화

앵커



감독: 정지연
출연: 천우희, 이혜영, 신하균
생방송 5분 전, 자신의 죽음을 보도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앵커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방송국 앵커 세라(천우희)에게 자신이 살해될 것이라는 죽음을 예고하는 전화가 걸려온다. 장난전화로 여기기에는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그녀는 진짜 앵커가 될 기회라는 엄마 소정(이혜영)의 말에 제보자의 집으로 향한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제보자와 딸의 시체를 목격한다. 그날 이후 세라는 그들의 모습이 떠나질 않는다. 사건 현장에서 제보자의 주치의였던 정신과 의사 인호(신하균)를 마주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의심도 깊어진다. 세라가 사건을 파고들면서, 실체에 다가설수록 서서히 변해가는 심리와 그 과정에서 세라가 느끼는 공포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111분. 15세 이상 관람가.

로스트 시티



감독: 아담 니, 아론 니
출연: 산드라 블록, 채닝 테이텀
전설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코믹 액션 어드벤처 무비. 산드라 블록과 채닝 테이텀의 버라이어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다. 로레타(산드라 블록)은 베스트셀러 작가. 몇 년 전 남편이 죽은 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년 여성이다. 출판사의 요청으로 북 투어를 시작하지만 첫 날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납치당한다. 그녀를 납치한 사람은 억만 장자 아비게일(대니얼 래드클리프). 고고학자였던 로레타의 남편이 고대문자를 해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대 도시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한 것이다. 로레타의 책커버 모델인 앨런(채닝 테이텀)은 의문의 파트너(브래드 피트)와 함께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섬으로 향한다. 북미에서 개봉 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흥행작이다. 111분. 12세 이상 관람가.

소설가의 영화



감독: 홍상수
출연: 이혜영, 김민희, 서영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27번 째 작품. 흑백영화로 홍 감독이 각본과 촬영, 편집, 음악까지 담당했다. 소설가 준희(이혜영)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후배 세원(서영화)를 찾아 서울 근교의 한 서점을 찾는다. 세원을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준희는 공원 전망대를 찾았다가 안면이 있는 감독 효진(권해효)과 그의 아내(조윤희)를 만난다. 효진과는 한때 영화작업이 망해 불편한 관계다. 산책하던 준희는 활동이 뜸한 배우 길수(김민희)와 마주친다. 준희는 길수에게 함께 영화를 찍고 싶다고 말한다. 둘은 함께 식사하다가 세원의 서점에서 벌어진 술자리에 합류하게 된다. 거기서 시인 선배(기주봉)도 만난다. 짧은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이들의 일상을 그린 ‘홍상수 표’ 영화. 92분. 12세 이상 관람가.



"극장 아닌 스튜디오서 실험적인 무용 즐겨요"

아이러브발레 24일까지 '트리플 빌' 공연

극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실험적 작품을 선보이는 무용 공연이 열린다. 23일과 24일 대구 아이러브발레 스튜디오(달서구 조암남로 85) 블랙박스 무대에 오르는 '트리플 빌'이다.

이 공연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발한 국제 무용교류 활동을 하는 민간 무용단 데시그나레 무브먼트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단 PYDance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두 단체가 대표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시도하는 공연이다.

도지원이 안무한 '부싯돌', 서정빈이 안무한 'Into the flow, Already exists', 유호식이 안무한 'Traveling'이 무대에 오른다. 도지원과 객원 무용수 김가현·박지원·강지효가 출연한다.

유호식의 'Traveling'은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자위로와니아 국제무용극축제에 공식 초청을 받아 무대에 오른다. 그밖에도 이들 3작품은 올해 하반기 열리는 제11회 NDA 국제 무용 페스티벌 등을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23일 오후 6시, 24일 오후 4시 공연한다. 관람료는 2만원. 문의) 010-2683-3990. 김도훈 기자

추억의 물건, 새로운 시선

정문경 개인전 '오프 밸런스'

친숙한 사물 재미있는 오브제로 작가의 숨은 감정 느낄 수 있어 12점 설치 작품들 선보일 예정


정문경 작, Akimbo, 혼합재료, 모터, 사운드스피커, 35x35x85cm, 2020.

팽팽한 줄다리기를 상상해보자. 줄이 끊어질 듯 늘어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가 줄을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놓는다. 둘 사이를 지탱하던 밸런스가 깨지고 순식간에 상황은 전도된다.

아트스페이스펄(대구시 중구 명덕로35길 26 2층)에서 열리고 있는 정문경 개인전의 주제 '오프 밸런스'(Off Balance)가 의미하는 바다. 전시에 놓인 모든 오브제는 정 작가가 겪은 극한의 심리 상태 속 스스로를 가둔 벽과 틀을 깨고 그에게 새로운 생각을 준 것들이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12점의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Akimbo'는 자그마한 인형 12개가 회전을 반복하는 작품이다. 인형들은 작고 연약해보이고 싶지 않으려는 듯 손을 허리에 얹고 가슴을 크게 부풀린 모습이다.

'Lost Title'은 작가가 실제로 자신의 집 다락방에 있던 오래된 책을 벽에 못박았다. 세월이 흐르며 껍데기가 벗겨져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이 책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많은 얘기를 담은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듯 강렬하게 다가온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귀여운 인형을 스캔한 'Untitled'도 작가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마치 벽 너머의 세계에 갇혀 절규하는 듯한 인형의 모습에서 공포와 억압, 소통의 부재를 느낄 수 있다.

'입 속의 검은 잎' 작품은 기형도 시인의 시와 제목이 같다. 작가들이 각자의 입에 맞게 제작한 마스크를 쓰고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입만 뻥긋거린다. 입이 제 기능을 함에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전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에 작업한 작품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정명주 아트스페이스펄 대표는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신이 추구하는 지향점에 다가가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이 보이는 작품들"이라며 "그러한 고민을 자신의 추억과 관련된 재밌는 오브제들로 표현해냈다"고 말했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책에서 피어나는 봄

대구문학관 23~24일 문학주간 행사



대구문학관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을 문학주간으로 정해 '봄을 펼쳐 봄'이란 주제로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대구문학관은 지난해부터 '세계책의 날'인 23일부터 시작해 시인 이상화와 소설가 현진건의 작고일인 25일까지를 문학 주간으로 정했다. 작년엔 '책에서 피어나나 봄'이란 주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올해는 25일이 휴관일인 관계로 23일부터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나만의 초점책 만들기 ▷나만의 워터볼 만들기 ▷이건 읽어야 해 등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하석 대구문학관 관장은 "시민들이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대구문학관 문향정원에 들러 다양한 문학 작품을 체험과 함께 즐기고, 문학의 의미를 느끼다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아름다운 시절' 담은 플루트 선율

플루티스트 하지현 독주회

행복한 일상 회복 향한 바람 피아니스트 문재원과 협연

플루티스트 하지현(사진)의 18번째 독주회 '벨 에포크'가 26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린다.

하지현은 계명대 관현악과와 프랑스 파리 폴 뒤카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프랑스 레오폴드 벨랑 콩쿠르 1위와 프랑스 로제 부르당 콩쿠르 1위 등 국내외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현재 학교 강의와 전문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6년 귀국독주회 이후 독주회마다 새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났던 그는 이번 연주회 주제를 '벨 에포크'로 정했다.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란 의미다.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살롱에선 찬란한 조명이 빛났고 카페마다 예술가들이 모였다. 미술가와 음악가들은 각자의 사상과 사조를 공유하며 문화를 꽃피웠다. 프랑스인들은 이때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를 '벨 에포크'라고 불렀다. 하지현은 "감염병으로 가로막혔던 우리 일상에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또 다른 벨 에포크'를 향한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주회에서 피아니스트 문재원과 호흡을 맞춘다. ▷필리프 고베르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마드리갈' ▷올리비에 메시앙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검은 새' ▷멜 보니스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카를 라이네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물의정령'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관람료는 2만원, 만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53-623-0684

김도훈 기자 hoon@imaeil.com



매일춘추

무와 남자


김아가다

마트 옆, 수런거리던 인력시장이 잠잠하다. 봄이라고는 하나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아침, 한 사람씩 일거리를 찾아 떠난 자리에 모닥불은 재만 남기고 썰렁하다.

속살 뽀얀 무 하나를 손에 들고 발길을 돌리는 초라한 남자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간다. 동태 한 마리 넣어서 속풀이 국을 끓일 요량인지 내 알 바는 아니나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행색을 보니 세상살이에 속 끓이는 일이 수없이 많았을 것 같다. 약삭빠르지 못해 하루 일감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리라. 하기야 사는 것 별거 아니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뜨거운 국물 한 사발로 마음자리 가라앉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사람마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향해 나름대로 속을 끓인다. 어떤 이는 권력을 또 어떤 이는 재물을, 어떤 이는 사랑을 향한 갈망으로 속을 끓인다. 나도 되잖은 욕심으로 수없이 속을 끓였다. 값비싼 귀금속과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어 했고, 남들보다 앞에 서려고 안달복달했다.

하지만 밥벌이로 인한 속 끓임은 얼마나 처절한 일인가. 무를 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무겁게 다가온다. 생계에 매달리는 가장의 모습은 서글프다. 삶이라는 명제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밥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누구라도 어쩔 수 없다. 밥벌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다른 차원의 삶은 요원한 것이 된다.

무(無)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유(有)와 대립한다. 비존재, 허무, 공허이다. 남자는 하루 밥벌이를 위해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인력시장에 나왔을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뒤로하고 나섰으나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변변한 직장 하나 가지지 못한 남자의 마음은 속이 자글자글 끓어서 오그라들었으리라. 무 한 개에 속을 풀고 상처받은 자존감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나 성공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이다. 비록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희망을 버린 사람은 인간성마저 상실하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혹독한 한파를 이겨내야 새 생명을 피워낼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신산한 삶을 산 사람은 향기가, 사람 냄새가 난다고도 했다.

오지랖도 넓지, 일면식도 없는 저 남자 때문에 왜 쓸데없이 속을 끓이는지 모르겠다. 뭉근하게 된장을 풀고 무를 넣어 장국을 끓일까. 모쪼록 내일은 남자가 일거리를 찾아 편안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에게 행운이 있기를 빈다. 수필가(2021 매일시니어문학상 대상 수상자)





유퀴즈? 아, 아니 플레이유?

예능 '플레이유'의 한 장면. 카카오TV 제공

↳ 재석님 2시 방향에 출구 있어요
↳ 이게 집단지성입니까?
↳ 지성 아닌 집단지송 ㅋㅋ

정덕현의 **엔터 인사이드**

낯선 공간 마치 1인칭 게임 하듯
시청자 댓글로 미션 함께 풀어내
끝없는 잡담과 토크로 소통 본능

'로그인' 편 4일 만에 71만 조회수
라이브 방송 특유 날 것 묘미 선사

유재석이라 가능한 '게임예능'

유재석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카카오TV '플레이유'는 그가 가진 쌍방향 토크, 캐릭터쇼, 게임능력 등 다채로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 보여준다. '유재석을 플레이한다'는 단순명쾌한 기획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와 그 확장성은 신박함 그 자체다.

◆유재석을 플레이한다?

유재석과 게임 예능은 익숙하다. 이미 MBC '무한도전' 시절에 시도된 추격전 같은 게임 예능들이 있었고, SBS '런닝맨'은 아예 게임 예능을 전면에 내세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까지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서 뻗어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범인은 바로 너' 역시 그가 얼마나 게임 예능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실로 유재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게임 예능의 계보가 그려질 정도로 그는 시대 변화에 맞춰진 다양한 게임 예능의 진화를 전면에서 이끌어왔다.

예를 들어 강호동과 함께 진행했던 SBS 'X맨'은 스튜디오 예능이 주류였던 당대에서 시도된 게임 예능이었고, MBC '무한도전'에서 '여드름 브레이크' 같은 특집은 일상 속으로 뛰어든 게임 예능이었다. 또 SBS '패밀리가 떴다'가 'X맨' 방식의 게임 예능을 야외 시골집을 공간으로 풀어냈다면, SBS '런닝맨'은 유재석이 펼치는 '게임 무한도전'에 가깝게 다양한 형식의 게임들을 실험했다. 이것은 스튜디오에서 야외로 또 e스포츠라고도 불리게 된 게임의 가상공간 속으로 게임이라는 소재가 옮겨간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이를 예능 프로그램으로 소화해낸 유재석의 다양한 진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개념들이 익숙해진 현재, 게임예능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 카카오TV '플레이유'는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낯선 공간에 영문도 모른 채 뚝 떨어진 유재석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해가며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미션들을 풀어나가는 콘셉트를 가진 '플레이유'는 마치 1인칭 게임을 유재석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하는 실감을 방송으로 구현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참여해 던지는 조언과 참여를 유재석은 실제로 실행해주면서 주어진 미션을 풀어간다.

물론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모든 걸 수행하는 건 아니고, 또 여러 시청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중 하나를 고르기 위해 즉석에서 투표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른바 '집단지성'(?)과 함께 하는 게임이라는 것. 하지만 미션을 풀어가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재미와 웃음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 역시 유재석의 몫이다. 그래서 그는 이 방송에서 북 치고 장구 치듯 참 많은 역할을 수행해낸다. 심지어 시청자들이 TMI라고 부를 정도로 끝없이 게임과 상관없는 토크를 쏟아내고(제 얼굴에 잡티 지운 이야기 같은), 유(유재석)라는 부캐의 캐릭터쇼를 수행하기도 하며, 때론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는 몸 개그를 구사하기도 한다. 김노은 PD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재석이어서 가능했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별거 안한 거 같은데 강한 몰입감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모아 편집본을 내놓은 '플레이유'의 제1장 '로그인'편은 4일 만에 무려 7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유재석이 낯선 방에 떨어뜨려져 주어진 시간 안에 잃어버린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 로그인하라는 미션이 전부다. 하지만 이 간단한 미션에도 이를 수행하는 과정이 참 버라이어티하다.

이미 '놀면 뭐하니?'에서 간간히 선보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유재석의 TMI와 '소통 본능'이 시청자들과 끝없는 밀당을 벌이며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서다. 결국 '유재석을 플레이한다'는 콘셉트에 맞게 시청자들이 갇힌 방을 빠져나가기 위해 갖가지 제안과 명령을 댓글로 쏟아내지만 그렇다고 유재석이 모든 걸 실행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들도 그걸 딱히 바라는 것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적어 놓고는 서로 그 황당함에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유재석은 미션을 뒤로 한 채 빵빵 터지는 댓글 창을 읽으며 빠져들고, 심지어 레이저로 잡티를 지진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한다.

시청자들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유재석이 답답해하기도 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유재석은 역시 게임 예능의 베테랑이다. 이런 정신없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방에 숨겨진 해머를 찾아내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서 울려오는 전화벨 소리를 단서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찾아 나선다. 폐공장이 주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에 짐짓 귀신의 집 콘셉트로 놀라 자빠지는 몸 개그를 선사하면, 시청자들은 "2시 방향" 같은 댓글을 달아 유재석을 놀리는 재미에 빠져든다. 그러면 유재석도 "이게 집단지성이냐?"고 투덜대고 시청자들은 "집단지송" 같은 재치 있는 답변으로 화답한다. 사전에 맞춰진 게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대화는 즉흥적인 순발력이 더해져 라이브 방송 특유의 날 것의 묘미를 선사한다. 결국 폐공장을 뺑뺑 돌다가 본래 자신이 있던 곳 근처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과정은 유재석의 토크쇼와 캐릭터쇼 게임예능 등의 다양한 재미요소들로 채워지면서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 몰입감을 준다.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플레이유'는 그간 유재석이 해왔던 다양한 게임예능의 진화과정과,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시도했던 시청자들의 댓글 참여, 그리고 최근 뉴미디어의 등장과 더불어 하나의 방송 트렌드로 자리한 라이브 방송이 결합해 탄생시킨 예능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종의 1인칭 게임이 유재석 같은 인물을 통해 방송으로 구현되며 그것이 실감을 줄 수 있는 건, 최근 게임·가상현실·증강현실 같은 개념들이 점점 익숙해진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시청자들은 현실 공간이지만 그곳을 가상처럼 게임 공간으로 꾸며 실제 인물이 뛰어들어 미션을 수행하는 '플레이유' 같은 프로그램을 별다른 이물감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 물론 라이브 방송은 게임이라기보다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카메라 하나 들고 현장으로 뛰어들어 하는 현장 라이브에 가깝지만, 이 방송분량을 30분 남짓의 방송으로 압축 편집하고 여기에 자막과 디자인을 더하면 마치 유재석을 캐릭터로 하는 1인칭 게임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플레이유'의 탄생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시대에 진화된 형태로 등장한 게임예능처럼 보인다. 다양한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재석이라 그 첫 발을 디뎠지만, 향후 이런 콘셉트가 익숙해지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시도할 수도 있는 예능이다.

최근 들어 지상파나 케이블, 종편은 점점 관찰카메라 같은 트렌드에 올라타며 새로운 시도가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신 카카오TV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색다른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웹예능'이 블록버스터화하는 경향이 생겨났는데, 이건 당연히 플랫폼의 성격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들이다. '플레이유'는 그런 점에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 탄생시킨 신개념 예능으로 기억될 듯하다. 훗날 훨씬 진화된 게임 예능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시작점으로 지목될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중문화평론가

일반부동산

달 서 구

▣유성부동산(김기원,달서)27290-2019-00205
성서 공장 매매
대2,500, 건2,100, 30M도접
고10M, 신축수준
010-3502-7932

▣동우부동산(류진수,달서) 27290-2018-00152
★창녕 모텔 급매★
보9천 月430, 직영시 보4천 月 천만원
매9억5천 010-9995-2299

동 구

▣모두부동산(안근희,동구)27140-2020-00130
군위IC 대로접
매45억 31,400㎡
타운하우스, 물류창고
등 다용도가능 053)942-4080

▣스타랜드공인(김재홍,동구)27140-2020-00009
범어동 최고 입지
투자 또는 건축 대344 건118
당2,600만원 010-5298-3557

♥법인·일반부동산 문의♥
☎ 053) 656-4448
FAX 053) 656-1118
대구은행 065-13-147595 (주)매일신문사

수 성 구

▣유명공인(박성현,수성)27260-2016-00126
月1억5천만 出,150억
(보20억, 대출 210억안고)지하철역세권,병원,금융 프랜차이즈, 최고상권, 유동인구최상
수성구요지 010-3701-0772

月4680出 총150억
(대출80%可)
수성구 통상가, 고급 ⒶⓅⓉ 밀집지역 상업지역,건4982㎡,프랜차이즈,학원 대기업, 핵심요지 010-3701-0772

月1100만出,매35억
대지628㎡, 건물1256㎡
프랜차이즈, 학원, 사무실, 대단지 아파트, 상권좋고 010-3701-0772

▣리더스트럼프(노유진,수성)27260-2017-00196
임대 수성못 전망최고, 레스토랑, 체인세계맥주점일식, 경양식, 가요방적지, 대형 주차장 신축 5층314㎡,옥상사용가능,신축, 유원지,답사후가격결정 053)768-9000

月950出 20억 522㎡
건1295㎡
수성구 코너 APT대단지 상권 식당, 요양복지타운, 학원, 보2억+융15억안고 053)768-9000

▣ 동진부동산(권영철,수성)가-16-3703
매2억2천 보1천 융6천
1억5천인수 月85만出 1칸 상가
업종양호 010-3509-4725

매11억5천 보5천,月300出 1층상가,범어동
최요지 지하철연계 인근 대형은행입점
사실상백화점상권 010-3509-4725

매20억 보7,500만, 융12억 7.25억인수
月500만出 대단지 코너
병원건물 010-3509-4725

▣엘지부동산(한창훈,수성)27260-2021-00095
月600, 신축 통상가
매23억 남구 사거리 코너 통상가, 대195㎡
건395㎡ 053)767-5200

▣신나라공인(조봉환,수성)27260-2021-00097
최요지 상가건물 대량 보유
337㎡, 733㎡, 5층건물
보1억4천/736, 18억인수
010-3821-4959

동남부동산(沈宗燮, 수성761-7501)가-16-1501
수성구 커피집 5층 상가
일반상업지역, 대341㎡, 건1500㎡
역세권, 보2억, 月1300出
인수가 25억 010-2714-1155

수성구 역세권 4층 상가
대162㎡, 건540㎡, 역세권
보1억, 月460出, 공실無
몽땅15억5천 010-2714-1155

月400 5층 상가주택, 205㎡
E/V有, 12억5천
月700 상가건물550㎡
전화상담, 투자용
010-9219-0481

★月1500,병원 약국
몽땅46억, 상업440㎡, 대로코너접 역출입구, 대단지Ⓐ입구, 유동인구多 핫상권,주차장, E/V 010-6630-8648

月1550 병원약국,역,대로코너접 대단지A상권, 인수20억
月850 수성구, 대로코너통상가 대단지A앞, 유명체인점
대220㎡, 매29억 010-6630-8648

月550 대로코너,대단지Ⓐ앞상가 학원건물, 공실無, 매23억
月400 수성구, 대단지ⒶⓅⓉ앞 학원, 통상가, 매17.5억
010-6630-8648

동구 중심상업지역
모텔 신세계백화점 동대구역세권
대390㎡, 매12억 053)762-6688

月350수성구 상가 주택
신축 E/V, 역세권 2차선접, 대185㎡
매매14억5천만 053)762-6688

남구 통상가 역세권
月955 대327㎡, E/V, 6차선접 공실無, 매매35억
053)762-6688

대광부동산(이상현,수성01086442066)27260-2018-00006
月2500 최요지 상가
삼면코너, 최고의 상권, 대209, 건1100
인수26억 053)742-8383

단층상가 月1000
대형브랜드 입점, 전철역앞
※20억 인수
053)214-8816

현대공인중개사(조경식,고령)47830-2020-00004
동고령 IC 2분거리
신축공장 500~ 면적 다양 추레라진입, 도로
8M, 대출80%이상 054)956-9080

황금부경부동산(장지혜,수성)27260-2021-00122
스타벅스+병원
대466㎡, 건903㎡, 코너, 月905만
20억 최고의 상권
053)762-6100

스타벅스 月1800
35억인수 시세이하 급처분 특급상권
인산인해 010-5683-6100

달 성 군

▣다산들공인(박영수,다산)47830-2020-00005
공장 매매, 대366, 건120 당125만
대2200, 건450, 당110만
땅 계획관리, 531, 대형차입 당26만
054)955-4949

▣한국공인중개사(엄진섭,달성군)가18-321
달성1,2차/국가산단/테폴 공장매매 / 임대 공장전문
경력20년 010-4504-6532

▣현대공인(김영근,가창)27710-2020-00069
가창 자연녹지, 허가有
562㎡(170), 당160만
카페부지 27,000㎡(8,200)
당8만원
010-6415-0051

북 구

▣더블리치공인(김태동,북구)가-15-2290
스크린운영상가 건물매매
580㎡, 최신8대, 매출4천이상
인수9억, 오토운영
순수익 32% 010-7437-5535

▣ 한백공인(김성현,북구)가15-2624
★창고, 공장★ 대146 건45
18억 농산물시장 인근 칠곡중앙 대로변
010-8588-7112

▣대구부동산부사(사공근,북)27230-2021-00004
북구 8차선대로, 철강공장매매 대2,005㎡,건1,470㎡
매매100억/유가읍유곡리 대형철강 공장매매, 대지25,936㎡,연14,000㎡, 급매195억 010-4964-9999

경 산 시

아주부동산(이재용, 경산) 47290-2021-00081
※진량4차 물류부지
대6,611㎡, 위치 최상
당230만 053)815-8000

※물류창고 IC근접
대3,966㎡, 건2,100㎡, 층고10M
당245만 상태최상 053)815-8000

동구창고부지10M접
대1276㎡, 1종일반주거지역
당365만 혁신도시 근처 053)815-8000

※조야동 공장,창고
대1084㎡, 건430㎡, 당550만
신축동구공장, 대843㎡, 건370㎡
당390만 053)815-8000

※경산월드컵도로접
물류,공장 대1497㎡
건879㎡,사무실
기숙사, 당185만 053)815-8000

한의대 입구 대로접
다용도, 자연녹지, 대1,650㎡
현재 개발 엄청되는곳
평당350만 010-9844-4343

수성구 달구벌대로
통상가 대로접, 136㎡, 지하철근접
몽땅16억 010-9844-4343

물류 창고 산업단지 반야월
공장 와촌, 대지700″, 건물150″ 매매, 당150만, 신축건물
010-9468-5022/ 010-3502-0322

고 령 군

▣양지공인(권영희,다산)가-4244-000049
★다산 준주거 공장
급매,대674,건324,고12.5M(10x8도접)2002년준공,입주6개월여유,물류창고추천,금액협의010-2878-8945

합 천 군

海印寺 전원 경내,친환경지역 전원주택, 대185,건62,5억
전원 주택지160, 170, 3필지 당65만, 수도, 전기,석축
건축허가完 010-5519-3287

해인사IC 급매 전원주택지
주변이 맑고, 물이 맑고, 공기가 맑고 남향,전기,물,경계석축 170~300면적 다양,7필지 당30만010-7379-9900

청 송 군

▣주왕산공인(조영해,청송군)가4228-34
2억인수, 월수5백
3층건물 노후대책확실
대지680㎡
수리필요없슴 054)873-3388

법인등록 **구궁태극성명 명장**
● 대법원 등기, 문화제청 허가
● 구궁 · 태극성명협회 중앙회장
● 이름력에 산다 태극성명 12진법 저자
● 아호, 상호, 기업명, 신생아 작명, 개명
●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어 주는 특수비법으로 개명하여 줌(상표 특허출원)
● 노벨문학상 후보 추천
● "독도 찬가" 작사 손기복, 동동동대구역 작사
대구 수성구 상동 152-60 극락산
손기복 시인 053-767-1440 010-3516-6730

제사를 모셔 드립니다
"제사는 조상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주신 은혜의 보답이며 효의 근본입니다."
신행상담 / 49제 / 천도제 / 구병시식
대구앞산 **성불사 : 053-626-7969**

모처럼 살아난 타선…삼성 5연패 끊었다

창원 NC전 10대3 승리
수아레즈 리그 첫 승 수확
김동엽도 시즌 첫 홈런 '쾅'

삼성라이온즈가 5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선발 라인업 변화가 통했다. 더불어 김동엽을 향한 허삼영 감독의 믿음도 화답받았다.

21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경기에서 삼성은 10대3으로 승리, 연패를 끊어냈다.

앞서 삼성은 SSG랜더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스윕패를 당한 뒤 NC와의 두 경기에서도 연패하며 루징시리즈에 빠졌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했던 삼성은 경기 전 라인업에 대폭 변화를 줬다. 김지찬을 리드오프로 내세우고 중견수 자리에 김헌곤이 빠진 대신 김성윤이 콜업돼 이름을 올렸다. 김성윤은 퓨처스리그 11경기에서 타율 0.417(24타수 10안타), 3도루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만큼 김헌곤을 대신할 카드로 선택됐다.

고정 리드오프 김상수가 9번으로 내려갔고 전날 퓨처스 경기에서 2홈런을 치고 바로 콜업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동엽이 지명타자로 나섰다. 콜업된 후 첫 경기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물러나긴 했지만 점차 자신의 스윙을 자신있게 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한번 더 기회를 부여받았다.

삼성은 1회부터 NC 선발 파슨스를 상대로 거세게 밀어붙였다. 김지찬과 구자욱이 연속 볼넷을 얻어 출루한 뒤, 폭투를 틈타 한 베이스씩 더 진루했다. 득점권에서 피렐라가 2타점 적시타로 8경기 만에 선제점을 올렸다. 파슨스는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또다시 폭투가 나왔고 피렐라가 홈 베이스를 밟았다. 김태군까지 적시타를 더하면서 첫 공격부터 4득점을 올리며 빅이닝을 만들었다.

2회에도 삼성은 김지찬이 볼넷을 얻고 도루까지 해낸 뒤, 다시 피렐라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추가점을 만들었다. 파슨스는 2이닝 만에 70개가 넘는 공을 던지는 등 부진했다.

5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선 김동엽이 NC 강동연을 상대로 올 시즌 첫 홈런을 쳐내면서 반등의 서막을 알렸다. 수아레즈는 손가락 부상을 털어내고 6이닝 7탈삼진 1실점 호투를 선보이며 KBO리그 첫 승을 수확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올 시즌 새롭게 디자인 된 삼성라이온즈 선데이 유니폼을 입은 삼성 투수 원태인(왼쪽)과 신인 내야수 이재현. 삼성은 이번 선데이 유니폼에 한국시리즈 첫 우승인 2002년 당시 유니폼에 들어있던 핀스트라이프 무늬를 20년 만에 다시 적용했다. 삼성라이온즈 제공

삼성의 일요일은 '선'데이

2002년 KS 우승 당시 '줄무늬' 유니폼 적용
24일 롯데전 첫 공개…착용 인증샷 경품도

삼성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선데이유니폼'을 선보이고 팬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2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롯데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 삼성 선수단은 새로운 디자인의 선데이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올해 선데이유니폼은 짙은 청색 바탕에 흰색 핀스트라이프로 디자인됐다. 삼성의 한국시리즈 첫 우승인 2002년 당시 유니폼에 들어있던 핀스트라이프 무늬를 20년 만에 다시 적용했다.

핀스트라이프 디자인은 올해 어린이 회원에게 제공된 흰색 유니폼에도 적용된 바 있다.

선데이유니폼 첫 착용을 기념하는 인증 이벤트도 열린다. 선데이유니폼을 입고 라팍에서 찍은 사진을 5회 말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린 팬들 중 10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한다. 경품은 원태인과 이재현의 유니폼과 모자 각각 1개씩, 선수별 사인볼 3개씩 등이 준비됐다. 선정 여부는 8회 초 종료 후 전광판과 DM을 통해 알린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또 '썬데이는 쏜데이' 2회차 이벤트도 진행한다. 식음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에 한해 각 매장에서 '꽝'없는 즉석복권 1매가 지급된다. 매장당 30매씩 약 1천200장이 준비돼 있다.

이날 경기 삼성 투수진이 탈삼진 5개 이상을 기록할 경우 선수 사인볼 등도 경품 추첨으로 팬들에게 제공된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김하성 시즌 첫 홈런
신시내티전서 7회 솔로 아치



김하성(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사진)이 10경기 31타석 만에 2022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터트렸다.

김하성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 9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7회 솔로포를 쏘아올렸다.

팀이 3-0으로 앞선 7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하성은 상대 우완 벅 파머의 시속 150㎞ 초구 직구를 받아쳤고, 공은 중앙 펜스 방향으로 124m를 날아갔다. 빅리그 입성 첫해인 2021시즌 김하성은 117경기에 출전해 홈런 8개를 쳤다. 올해 첫 홈런을 신고하면서 김하성의 빅리그 개인 통산 홈런은 9개로 늘었다.

김하성은 이날 주전 3루수 매니 마차도가 지명타자로 출전하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날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한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08에서 0.214(28타수 6안타)로 조금 올랐다. 타점은 3개, 득점은 8개로 늘었다. 이날 경기에서 샌디에이고는 신시내티를 6대 0으로 누르고 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전창훈 기자 apolonj@imaeil.com

양예빈, 총성보다 빨라 실격



10개월 만에 400m 개인 경기에 출전한 한국 육상 여자 단거리 샛별 양예빈(18·전남체고·사진)이 긴장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 출발로 실격당했다.

양예빈은 21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고등부 400m 결선에 나섰지만, 총성이 울리기 전에 몸을 내밀었다.

세계육상연맹은 2010년 1월부터 '단 한 번의 부정 출발이 일어나도 바로 실격한다'고 규정을 강화했다. 한국육상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400m에서 부정 출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모처럼 개인 경기 결선을 치른 양예빈은 부담감이 컸다.

오전 예선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1분00초39,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한 양예빈은 4번 레인을 배정받아 출발선에 섰다. 그러나 부정 출발로, 레이스를 펼치지 못하고 트랙을 떠났다.

양예빈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7월, 55초29의 400m 한국 여자 중학생 기록을 세웠다. 55초29는 한국 여자 성인 선수들을 합해도 역대 1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연합뉴스

FA컵 경기 시간 앞당긴 김천
27일 수원삼성전 무료 입장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27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삼성과 홈경기에서 전 관중을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김천상무는 이날 오후 3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수원삼성과 '하나원큐 FA 컵' 3라운드를 치를 예정이다. 당초 오후 7시 예정이었던 경기 일정은 김천상무의 구단 시설 공사 관계로 4시간 앞당겨졌다.

수원삼성과 FA컵 홈경기는 전 관중 무료입장으로 별도 예매없이 입장할 수 있다.

이 경기는 가변석과 원정석(일반석)만 운영하며 최대 수용인원은 4천683명이다.

가변석 출입 게이트에서는 입장 관중 대상으로 응원용 클래퍼, 종이 모자도 지급된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황대헌·최민정 60세까지 '치킨 연금'
베이징동계올림픽 메달 포상
'1일 1닭' 4억 수준 쿠폰 받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최민정(성남시청), 황대헌(강원도청)이 만 60세까지 매일 3만원 어치의 치킨을 받을 수 있는 '치킨 연금' 증서를 받았다.

두 선수를 포함한 베이징올림픽 메달리스트 19명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연금 증서를 받고 밝게 웃었다.

황대헌은 38년간, 최민정은 37년간 매월 혹은 매 분기 초에 치킨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멤버십 포인트로 받는다.

두 선수는 약 4억원 수준의 쿠폰을 받게 된다. 향후 포인트 조절에 따라 총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

제너시스 BBQ그룹은 "치킨 판매가격과 물가상승률, 배달비를 고려해 3만원을 책정했다"며 "지급 포인트는 판매가격 인상 시 상향 조정된다"고 전했다.

은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이유빈(연세대), 김아랑(고양시청), 서휘민(고려대),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곽윤기(고양시청), 이준서(한국체대), 박장혁(스포츠토토), 김동욱(스포츠토토), 스피드스케이팅 차민규, 정재원(의정부시청)은 주 2회씩 총 20년간 치킨 연금 혜택을 받는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계주 멤버로 참가했으나 올림픽 본 경기를 뛰지 못해 메달을 받지 못한 박지윤(의정부시청)도 은메달리스트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메달리스트인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IHQ), 김민석(성남시청)은 주 2회씩 총 10년간 치킨 연금을 받는다.

제너시스 BBQ그룹은 빙상종목을 제외한 동계올림픽 5개 종목 협회에서 추천한 총 5명의 국가대표 선수에겐 주 2회씩 1년간 치킨 쿠폰을 주기로 했다.

'치킨 연금'은 윤홍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베이징올림픽 당시 금메달 획득 포상으로 내걸면서 화제가 됐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 BBQ그룹의 수장이기도 한 윤홍근 회장은 지난 2월 선수 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베이징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평생 무료 치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남자 1천m 준결승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는데, 윤 회장은 상심한 선수들에게 힘을 주겠다며 특별한 포상을 내건 것이다. 연합뉴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대헌과 최민정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윤홍근 회장에게 '치킨연금'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산악연맹 창립 60주년
전국 60개 봉우리 동시 등정

대한산악연맹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인 23일 정오에 전국 17개 시·도 60개 봉우리를 동시에 등정한다.

대한산악연맹은 21일 "연맹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23일에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 한라산 백록담, 최북단 설악산 대청봉, 최동단 울릉도 성인봉과 독도 망양대 등 전국 17개 시·도연맹과 산하단체가 선정한 60개 봉우리를 동시에 등정할 계획"이라며 "대한산악연맹의 60주년 도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산악운동을 다시 부흥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손중호 대한산악연맹 회장과 스포츠클라이밍 여제 김자인, 대한산악연맹 소속 산악인들은 지난 15일 인수봉 정상에 오르는 기념 등반을 했다.

전창훈 기자



대구시청 여자배구팀 선수단이 19일 오후 대구일중 매화관에서 학생 선수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에 나서고있다. 김우정 기자

신예 세터·리베로 합류…한 단계 도약 '예열 중'

대구시청 여자배구팀

올시즌 실업연맹전 '준우승'
백목화·김현정·최수원 영입
전국체전 더 높은 목표 노려

한 주 2, 3회 대구일중 찾아
학생 선수들에게 재능 기부
고부건 감독 "행복한 팀 꿈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팀의 면모를 내비치고 있는 대구시청 여자배구팀이 올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예열에 한창이다.

올시즌 실업배구연맹전 준우승의 기쁨을 누린 대구시청 여자배구팀은 현재 전력보강 작업을 통해 전국체전을 포함한 올 하반기 예정된 대회에선 더 높은 목표를 노린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팀이 되기 위해 고부건 감독 및 코치와 선수단은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며 전력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후배 위한 재능기부 활발

19일 오후 3시 30분 대구일중 매화관 실내체육관에는 리시브를 연습하는 학생 선수들의 기합소리로 가득했다. 코트 위에서 대구시청 여자배구팀 선수단이 직접 공을 받아주며 자세와 움직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구일중 학생 선수단은 코치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위치를 교대하며 훈련에 집중했다.

실업연맹전을 마치고 하반기 대회를 위한 훈련 및 선수단 정비에 돌입한 대구시청 여자배구팀은 지역 후배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 주 2, 3회 정도 오후에 시간을 따로 빼 5월 말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준비하는 대구일중 여자배구부 학생 선수단의 집중 훈련을 돕고 있다.

소년체전이 열리기까지 남은 한 달여 기간 기본적인 리시브와 서브 및 1대1 포지션 맞춤형 훈련을 함께 하면서 실전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습경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일중 여자배구부는 2018년 제73회 전국남여배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배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배구 명문중학교로 유명하다.

박동훈 대구일중 배구부 코치는 "대구시청 배구팀 선수들이 어린 학생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있어 감사히 생각한다"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본기를 착실히 다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5월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배구 연맹전 준우승

대구시청 여자배구팀은 지난 3월 30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2022 신협중앙회장배 한국여자실업배구 연맹전에서 준우승 쾌거를 올렸다.



지난 3월 30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2022 신협중앙회장배 한국여자실업배구 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대구시청 여자배구팀. 대구시체육회 제공

리그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대구시청 여자배구팀은 비록 우승을 한 계단 앞에서 놓치긴 했지만 예선 3연승 가도를 달리는 등 대구의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신인 세터와 리베로가 실업리그 경기에 처음 나서는 데다 베테랑 이미애가 경기 중 부상으로 빠지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대구는 투지를 불태웠다.

먼저 베테랑 선수들이 포진한 포항시체육회와 상대한 1차전에서 대구는 고전했지만, 백목화와 주장 장영은 등 고참들이 신인들을 잘 이끌면서 3대2로 첫 승리를 따냈다. 그 기세를 몰아 양산시청과 수원시청까지 차례로 꺾으며 예선 3연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예선전 2위로 결승에 진출한 수원시청과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붙었다. 예선에서 이미 한번 이긴 상대였지만 대구는 대회 중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은 레프트 이미애의 공백이 있어 쉽지 않았다.

결승전에서는 초반 세트스코어 1대 2로 밀리다 2대 2까지 따라붙으며 역전 우승을 노려보았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진 못했다.

신재득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대구스포츠센터에서 동계강화훈련을 통해 팀 조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 이번 대회 준우승에 힘입어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팀 전략 보강 박차

프로리그가 끝난 현재는 실업팀의 전력보강을 위한 시간이다. 대구시청 여자배구팀은 올 시즌을 대비해 V리그 스타플레이어 출신 백목화를 영입한 데 이어 고졸 신인 세터 김현정과 리베로 최수원을 팀에 합류시켰다.

제천여고 출신인 김현정은 왼손잡이 세터로서 왼손을 활용한 페인트 공격 및 토스 등 활용도가 높은 선수로 안정적인 서브가 장점이다. 숱한 프로리그 선수들을 배출한 부산 남성여고를 졸업한 리베로 최수원은 발이 빠르고 코트 전체의 흐름을 보는 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청 여자배구팀은 6월 30일까지 3명의 선수를 더 영입할 계획을 갖고 좋은 선수들을 물색 중이다.

고부건 대구시청 여자배구팀 감독은 "올 하반기 대회는 7월 울진에서 실업연맹전을 시작으로 전국체전까지 경기가 예정돼 있다"며 "매해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선수들이 행복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 선수들이 즐기는 만큼 성적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대구시청 선수단에 수분보충제 디케이에스에이치 코리아 후원

디케이에스에이치 코리아가 대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위한 수분보충제 후원에 나섰다.

21일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디케이에스에이치 코리아는 대구시체육회를 직접 방문해 대구시 스포츠단에 수분보충제 2천4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제품은 영국 클리노바사의 ORS 제품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소화하는 엘리트 선수들에게 수분과 전해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임진환 디케이에스에이치 코리아 헬스케어 사업부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온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올해 보다 많은 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돼 선수들이 마음껏 준비된 기량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득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들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종목별 대회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후원 물품이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장애인 맞춤 비대면 스포츠 강좌 국민체육진흥공단 '키핏' 서비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장애인 맞춤형 비대면 스포츠 강좌를 개설해 서비스에 나선다.

공단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온라인 스포츠 코칭 전문 플랫폼인 키핏(KEEPFIT)을 이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키핏'은 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비대면 스포츠 코칭 플랫폼이다. 지난 1월부터 공단과 함께 장애인 특화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키핏은 장애인 대상 강좌(4종)를 개설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해당 강좌는 4월 말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키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공단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장애인 1만2천 명이 스포츠 활동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원범위를 만 19~64세 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은 월 8만원에서 8만 5천원으로, 최소 지원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다. 김우정 기자

합격 2021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합격!
고등부 (특별반) 수성점
전 O 우 (58세)
계명대학교(법학과) 졸업

검정고시·수능

수능반
고득점학생반
유학생반
성인반
속성반

8월·내년 4월 시험대비 / 중졸·고졸 1년만에 합격 / 과락제 폐지 / 평균 60점 합격 ➡ 대학진학

개원 19주년 수강료 특별할인이벤트!
중졸 고졸 수능 30% 할인
합격시까지(2년) KBS동영상+교재무료

고졸고득점 + 수능 시험대비
엘리트반 신설개강!
차별화된 수업 커리큘럼(8교시 수업)
내신1등급(평균97점 이상) + 수능최저등급으로
경북대·in 서울 대학 진학
• 수업시간 :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8교시)
• 마 감 : 각반 12명 담임제 선착순(문과·이과)

신설 중졸/고졸 특별반
속성합격반 (1:1수업)
• 수업시간 : 주1일~2일 오후반·야간반·주말반
• 대 상 : 자영업·지방거주자(대구·경북·경남) 시간·거리 불편한 분 (비밀보장)

2023년 수능반 개강!
• 시험일자 : 2022년 11월 17일(목) 확정
• 모집대상 : 중3졸업자·유학생·고교자퇴생·검정고시합격자
• 모집인원 : 각반 10명(문과·이과) 지정석
• 특별혜택 : 평가원 모의고사 실시(6월·9월) 매월 사설모의고사 실시 / 매월 모의고사 성적표 우송 수능원서접수 / 수시·정시 입시전문컨설팅
• 학생관리 : 담임제·매일 출·결관리/지각, 결석시▶부모님 통보
• 교 재 : EBS교재(수능기초+심화+특강+완성)
• 수 강 료 : 개원19주년 수강료 할인이벤트 실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고득점반 : 평균 97점이상 수시입학으로 4년제 지망(서울, 수도권), 6교시 수업
■수능반 : 수능기초·수능심화·수능총정리·문제풀이(이과·문과 각반 10명)
■학생반 : 중3졸업 유학생,고등학교 자퇴생을 위한 학생반, (영,수 기초수업) 6교시
■남, 여 성인반 : 배움의 기회를 놓쳐 대학진학을 준비하시는 분

대구 고려학원
www.grgosi.co.kr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205-4, 5층(주차장 완비)

수성점 746-1212
수성구청역 3번출구 (범어약국5층)

학원전용주차장 (학원건물 뒷편)
대구은행 송원학원
← 범어네거리 수성구청역 만촌네거리 →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KBS 방송국 ↓ 3번 출구 하나로마트 고려학원 학문당학원 농협
범어약국 5층 수성점

제2702호. 수강료 중졸 720,000원/고졸 810,000원

'보호 끝난 만 18세' 경북 청소년 홀로서기 돕는다

구미 '삼성 희망디딤돌' 문 열어
개인 룸 25개·자립체험관 5실
주거·진로 지원 최장 2년 거주
안정적 기반 위에서 자립 준비



'삼성 희망디딤돌' 경북센터 개소식이 2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은 2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자립 준비 청소년들에게 주거·교육·취업을 지원하는 '삼성 희망디딤돌' 경북센터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에는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김홍기 경상북도 아동복지협회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삼성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준비 청소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에서 지내던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데, 이들에게 주거·경제·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서 착안했다. 자립 준비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매년 2천400명에 달한다.

희망디딤돌 경북센터는 접근성이 좋고 편의시설을 갖춘 구미시 내 오피스텔 건물 안에 마련됐다. 개인 룸 25개와 자립체험관 5실을 갖췄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각종 가전제품과 주방용품·PC·가구 등이 구비돼 있다.

센터는 청소년들에게 경제 교육과 직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 센터 운영은 경상북도 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또 삼성 임직원들은 기부와 멘토 등으로 참여한다.

삼성 희망디딤돌센터는 지난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직접 모금한 기부금 250억원으로 출발했다. 여기에 회사 측이 250억원을 보태 500억원으로 운영된다. 지난해까지 디딤돌센터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1만 500여 명이다.

이번 경북센터에 이어 오는 11월 전남센터가 개소하면 전국에 10개의 삼성 희망디딤돌센터가 운영된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삼성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경북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은 "지역의 자립 준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은 "경북센터가 자립 준비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삼성 임직원 모두가 응원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수성소방서 가창119안전센터 신청사 준공

대구수성소방서는 21일 가창119안전센터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 등 주요 내빈,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풍기인삼엑스포조직위-경북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재)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일 경상북도 내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미시새마을회 헌혈운동 동참

경북 구미시새마을회(회장 오영환)는 20일 원활한 혈액 공급을 돕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수혈에 도움이 되고자 금오산대주차장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농협 영천시지부-금호농협 영농 폐기물 수거 캠페인

농협 영천시지부(지부장 조상진)와 금호농협(조합장 김천덕)은 19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깨끗한 농촌 환경 가꾸기를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한의대-영덕군-영덕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는 19일 영덕군청에서 영덕군, (재)영덕문화관광재단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 캠페인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봉기)는 21일 명덕네거리 일원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배은실), 녹색연합봉사단(회장 문태영), 한지사랑봉사단(회장 김순애)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성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대구 수성구는 19일 동도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에 수성구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와 수성경찰서, 수성구청, 동도초교 등에서 20여 명이 참가했다.



대구신세계, 중·고교생 130명에 100만원씩 후원

제6회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

대구신세계는 20일 '제6회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1억3천만원의 장학금과 환경보호 의미를 담은 모바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신세계 지역인재 희망장학금'은 올해로 6회째를 맞는데, 선정된 13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각 10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2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학업 환경이 어려워진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비중을 더 늘렸다.

또 대구신세계는 장학생들에게 제로웨이스트에 도전하는 의미에서 종이 장학증서 대신 모바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그간 대구신세계는 매년 장학금 전달식 때마다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텀블러, 환경 관련 도서, 수저 세트 등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자원과 쓰레기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기념품도 최소화했다.

백관근 대구신세계 대표는 "현지법인 대구신세계는 지역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미래가 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후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통일천사 대구본부, 대경언론인회 초청 워크숍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구본부(대표 신경호)는 대구경북언론인회 회원 30명, 임정배 사무총장 및 통일천사 임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거제 소노캄 리조트에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특별 워크숍을 가졌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란 슬로건 아래 가진 워크숍에서 서인택 중앙상임의장은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시민들이 통일 분위기 조성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이를 위해 "광복 80주년인 2025년 8월 15일 100만 인이 참여하는 시민 통일운동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천사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각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급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한반도 통일 시민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대경언론인회 류수열 회장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은 물론 세계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경언론인회도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호 대표는 인사말에서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태형 선임기자 thk@imaeil.com


경북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 이광휘(오른쪽 네 번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경북도를 방문, 이철우(왼쪽 네 번째) 도지사에게 의성군의 건의 사항 등을 전달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 신공항이전지원위, 道에 건의 사항 전달

주민 실질 지원 근거 마련 등 요청

경북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는 20일 경상북도를 방문해 통합신공항과 관련, 의성군의 건의 사항과 지역의 민심을 전달했다.

이날 이광휘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이철우 도지사와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의성군의 주요 건의 사항은 통합신공항 이전의 기본 조건인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소음 피해 및 이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의성군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광휘 위원장은 "현재 기본 계획이 연장돼 일정이 지연되고, 지역 발전 사업들이 군위군에 편중될까 우려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면서 "속도감 있고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공동합의문 이행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희대 기자 hdlee11@imaeil.com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20일 병원 시온실에서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계명대 동산병원 제공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병 안심센터' 열어

대구·경북권역 운영 기관에 선정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황재석)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대구·경북권역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0일 병원 시온실에서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센터장 정인성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진료 단계에서 업무 기인성이 의심되는 경우 직업병 안심센터로 의뢰해 업무기인성을 파악하도록 했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계명대 동산병원의 의료진과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조사 경험을 공유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엽 의료원장은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직업성 질환들을 예방, 치료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달빛동맹 추진 이용섭 광주시장 '대구 명예시민'

〈대구-광주〉

동서 화합·시정 발전 기여 '우정의 징표'
1964년 도입 이후 71번째 명예시민증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71번째 대구시 명예시민이 된다.

대구시는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21일 폐회한 제290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시는 올 상반기 중에 이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이용섭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대구와 광주의 우호 관계 증진과 상생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대구와 광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달빛동맹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대구가 광주에 보내는 우정의 징표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1964년 대구시 명예시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50명과 내국인 20명이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명예시민에겐 특권은 제공되지 않지만 대구시민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등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달빛동맹에 애정을 갖고 애써준 이용섭 광주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달빛동맹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국민 통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은 지난 2009년 '의료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작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달빛고속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2038 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양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대형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칠곡군 국내 최초 양봉 교재 '양봉요지' 왜관수도원 반환

독일인 구걸근 신부 1917년 집필한 교재


백선기(왼쪽) 칠곡군수와 박현동 왜관수도원장이 양봉요지 반환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칠곡군 제공

경북 칠곡군은 지난 19일 꿀벌나라테마공원에 전시 중인 국내 최초 양봉 교재 '양봉요지'를 왜관수도원에 반환했다.

양봉요지는 독일인 구걸근(한국명) 신부가 양봉 교육을 위해 1917년 집필해 1918년 등사기로 150권을 발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양봉 교재로 독일 뮌스터슈바르자흐 수도원 도서관에 유일하게 한 권이 남아 있었다.

이를 백선기 칠곡군수와 박현동 왜관수도원장이 2018년 1월 독일 수도원에서 왜관수도원에 영구 대여 형식으로 국내로 들여온 후 그해 3월부터 꿀벌나라테마공원에 전시해 왔다.

군은 원본을 왜관수도원에 반환한 후 영인본을 제작해 꿀벌나라테마공원에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칠곡군은 전국 유일의 양봉특구이자 국내 최대의 아까시나무 군락지를 갖고 있는 양봉도시다.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남한서 매일신문 기자 한국편집기자협회 '이달의 편집상'



매일신문 남한서(사진) 기자가 '촌스럽지만, 자연스럽다'(매일신문 4월 5일 자 25면)로 한국편집기자협회 이달의 편집상(피처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47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작으로 4편을 선정했다.

남 차장의 지면은 시골 땅에서 농약도 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자연 농법으로 '나뭇잎 밭'을 일궈낸 청년농부들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종합 부문 경향신문 유수빈 기자의 〈밖으로 나선 마크롱 빈자리 파고든 르펜의 '먹고사니즘'〉, 경제·사회 부문 서울경제 황원종 기자의 〈올드&뉴 '동거동락'〉, 문화·스포츠 부문 서울신문 강신 기자의 〈텅 빈 자리… 꽉 찬 분노〉도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김영경 기자 hope@imaeil.com



구미전자공고 2년 연속 '과정평가형자격 우수 교육기관' 뽑혀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과정 전국 유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과정평가형자격 우수 교육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구미전자공고의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과정은 전국 유일의 우수교육기관으로 인증돼, 과정평가형자격 기반 교육과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미전자공고는 전자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등 2개 종목에 384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올 2월에 실시된 1차 외부평가에서 174명의 학생이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92.6%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 밖에 구미전자공고는 시스템반도체반,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반, 기계설계 심화반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연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결과 2022년 졸업생 272명 중 256명이 취업에 성공, 94.1%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다.

또한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140명의 학생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13개 공기업, 삼성그룹 등 12개 대기업에 취업함으로써 마이스터고 전환 이후 10년 누적 1천531명의 학생이 대기업 및 공기업에 입사했다.

한편 구미전자공고는 6월 11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병용 기자 yong126@imaeil.com

계명문화대 '고등직업교육거점' 구축 협약
달서구·대경중기청 등 13개 기관 합심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와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최근 대학 보건관 동산홀에서 지역 기관들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달서구, 계명문화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등 13개 기관은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관들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분야 선정,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통한 인재 양성, 지역특화 분야 인재 정주 여건 마련, 기타 지역사회 상생발전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박승호 계명문화대 총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한식 대경중소벤처기업청장, 추광엽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대구소방본부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5년 연속 전국 1위, 인센티브 3천만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2021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소방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평가 제도이다.

대구소방은 국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종합상황실 재난상황 관리, 소방장비 매뉴얼 작성, 소방정책 분과위원회 평가 등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대구소방은 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과 3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대구소방 직원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대구관광재단·대구문화재단 업무협약
지역문화예술·관광산업 발전 상호협력

대구관광재단(대표이사 박상철)과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은 20일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대구관광재단 박상철 대표이사와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 문화의 관광자원화 추진 협력 ▷양 기관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현황 공유 및 홍보 등이다. 이러한 상호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협력사업으로 '메타버스 대구여행 콘서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구관광재단은 대구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K-POP 공연 등 플랫폼을 마련해 관광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대구문화재단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예술창작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대구국제고·UN 산하 IVECA 교류협약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글로벌 협력

대구국제고등학교가 UN 산하기관인 IVECA(International Virtual Schooling)와 상시적인 온라인 외국어 교육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가능발전(SDGs)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 백채경 대구국제고 교장은 미국에 있는 정은희 IVECA 대표와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SDGs 기반 세계시민교육 활동 ▷각 나라의 고유한 특징을 존중하는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온라인 외국어 교육활동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주제 통합활동 운영 등을 협력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채경 교장은 "개방성, 창의성, 리더십을 가진 세계 시민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오늘의 운세 4월 22일(음력 3월 22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나의 매력은 아직도 흘러넘친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48년생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60년생 상대방과 천생연분이네요. 하지만 오히려 너무나도 잘 맞아 걱정이 될 수 있어요. ▶72년생 새로운 유행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엄청 많네요. 자신감을 가져 보세요. ▶84년생 성실함과 정직함으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요령을 많이 익혀 보는 게 좋아요.


소

▶37년생 가까운 사람이 예쁜 선물을 가지고 오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세요. ▶49년생 일에 말썽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공적인 일은 아랫사람에게 부탁해도 좋아요. ▶61년생 눈앞에 있는 이득이 자칫 함정일 수도 있답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성을 가지세요. ▶73년생 자녀의 일로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억지보다는 살살 달래는 것이 좋답니다. ▶85년생 재주꾼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합심하여 일을 하니 최상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범

▶38년생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50년생 나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2년생 연예인처럼 빛나고 있답니다. 오늘은 어딜 가나 나의 인기가 많은 하루랍니다. ▶74년생 잔꾀를 부리다가 오히려 일이 틀어지네요. 평소와 같이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아요. ▶86년생 윗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을 하네요. 치맥으로 스트레스를 풀어 보세요.


토끼

▶39년생 괜스레 예민해져서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네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51년생 예리하고 뾰족한 물건을 조심하세요. 부주의로 다치면 한참 고생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기발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많네요.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75년생 다른 사람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87년생 총명함도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답니다. 자신의 총명함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용

▶40년생 알뜰한 경제관념과 소비 습관을 가졌네요. 꾸준하게 돈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52년생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오늘은 애교를 부려 귀여운 매력을 뽐내 봐요. ▶64년생 소인배인 상대를 만나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 경계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76년생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손이 가는 대로 읽어야 나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88년생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상 옆을 살피며 차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뱀

▶41년생 이상한 일이 따라오니 오늘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은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53년생 돈 계산도 너무 정확히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대충 해도 좋아요. ▶65년생 사소한 일로 친구랑 논쟁을 하면 끝이 없으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윗사람의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와요.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89년생 현재 하는 일이 안 풀려서 불안하나요. 결국은 다 풀리게 되니 걱정 말아요.


말

▶42년생 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면 나서서 계산하세요. 주변의 환호를 받을 수 있어요. ▶54년생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언변은 누구나 좋아하니 무뚝뚝함을 버리는 게 좋아요. ▶66년생 가족들에게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나라도 중심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78년생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90년생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

▶43년생 예쁜 자손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법이죠. 맛있는 음식으로 맞이해 보세요. ▶55년생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밀린 수다를 떨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67년생 서류상의 일들은 막힘이 있을 수 있으니 부족함 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79년생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더라도 참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된답니다. ▶91년생 허리를 삐끗할 수 있으니 무거운 짐을 들거나 무리한 운동은 삼가는 게 좋아요.


원숭이

▶44년생 주변 친구가 보기에는 화려해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 위로를 건네 보세요. ▶56년생 얼떨결에 받은 것이 알고 보니 엄청나게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득을 챙기세요. ▶68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 날입니다.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80년생 사랑도 재물도 복을 타고 났네요. 이제는 건강 관리만 잘하면 완벽하겠습니다. ▶92년생 화려한 외출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세요. 자신감이 배가 될 거랍니다.


닭

▶45년생 혼자 사색을 즐기려고 하네요.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지내 보시는 건 어떤가요. ▶57년생 재물 복이 타고 났네요. 하는 일 모두 대박이 날 것이니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69년생 음악적으로 천부적인 소질이 있으시네요. 연습하면 무대까지 설 수도 있겠어요. ▶81년생 예민해졌다고 스스로 우울해하지 말아요. 주변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해 보세요. ▶93년생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의적인 발상이 재물을 만들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개

▶46년생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해질 수 있으니 컨트롤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58년생 하고 있는 일에 서서히 장애물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미리 주의하는 게 좋아요. ▶70년생 재물은 얻었지만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니 무엇이 이득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82년생 적게 들어왔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쉬워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94년생 다 잘되려고 하는 일인데 결과가 안 좋다고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돼지

▶47년생 여행은 거창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주변에서 바람만 쐬고 와도 상쾌해진답니다. ▶59년생 기회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랍니다. 주어진 기회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해요. ▶71년생 팔,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요. 유연한 체조로 근육을 풀어 주는 것도 좋겠네요. ▶83년생 날카롭고 유연한 언변술로 꼼꼼하게 준비해 보세요. 결과는 나의 것이 된답니다. ▶95년생 친구와 쇼핑하러 가는 것은 삼가세요. 금전이 많이 지출될 수 있는 하루예요.

아이들의 히어로 슈퍼맨들의 육아 도전기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오후 10시 10분

KBS2 TV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22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된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좌충우돌 성장 스토리이다. 새로운 가족으로 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과 단우, 연우 남매가 새 가족으로 합류한다.

격투기 선수 아빠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이들의 건강한 에너지를 보여준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는 현재 축구선수 아빠 박주호와 나은, 건후, 진우로 이어지는 찐건나파블리 가족과 아들 젠의 엄마이자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방송인 사유리와 젠, 그리고 배우 신현준과 민준, 예준 형제와 막내 민서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육아와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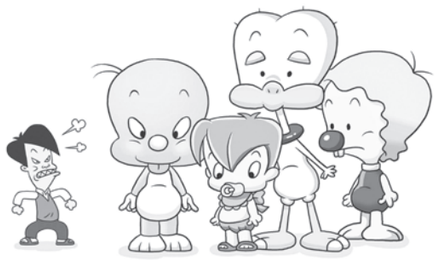
여기에 자칭 육아 만능 김동현과 아빠를 닮아 무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남매의 합류로 더욱 활기 넘치는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부 이신혜 tvbox@imaeil.com

cpbc FM 93.1 MHz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신우신 오후 1시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오늘의 역사

1983년 4월 22일 '아기 공룡 둘리' 탄생



만화잡지 〈보물섬〉에서 '아기 공룡 둘리'가 태어났다. 작가는 김수정 씨. 둘리는 빙하기 때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서울로 오게 된 초록색 아기 공룡이다. 항상 혀를 반쯤 내민 어리숙한 말썽꾸러기지만 돌발 상황에선 외계인에게서 전수받은 초능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둘리는 작가가 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 심의를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인간 대신 만든 동물 캐릭터다. 둘리는 국산 캐릭터 산업의 원조이자 수많은 창작 캐릭터들의 기폭제가 됐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TV 프로그램

• KBS 053)757-7321 • MBC 053)740-9500
• TBC 053)760-2000 • EBS1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재)	5:00 앙코르 세계 예술 기행1	5:00 테마 스페셜(재)	5:00 왕초보 영어 / 30 클래스 e (2)
10 행복충청전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6: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1부	50 한국기행(재)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25 모닝와이드 2부	6:10 세계테마기행(재)
7:50 인간극장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50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스페셜	7:10 TBC 굿모닝 뉴스	7:00 엄마 까투리(종합)
8:25 아침마당 대구	9:00 KBS 아침 뉴스타임	8:50 일일드라마	40 모닝와이드 3부	30 뽀로로 동화나라 / 45 로보카 폴리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0 일일연속극	〈비밀의 집〉(재)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00 딩동댕 유치원
10:00 2022 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으라차차 내 인생〉(재)	9:30 930 MBC 뉴스	50 좋은 아침	20 블루이 / 50 마샤와 곰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00 인간극장 스페셜	55 지방선거 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9:55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 2차	9:00 동그리섬의 버네사
	40 지구촌 뉴스	12:00 12 MBC 뉴스	12:00 SBS 12뉴스	15 토닥토닥 마음아
	11:00 주말드라마	20 탐나는 TV	25 민방 네트워크 NEWS	40 부모 클래스
	〈현재는 아름다워〉(재)		50 금토드라마	10:30 한국기행(재) / 50 최고의 요리비결
			〈어게인 마이 라이프〉(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 10 EBS 초대석
1:00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2:00 뉴스브리핑	1:00 EBS 스페이스 공감(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0 KBS 뉴스타임	50 2시 뉴스 외전	4: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스페셜	50 배움이 꽃피는 나무
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0 또봇V(재)	3:20 꾸러기 식사교실	20 필환경시대의 자구수다〈자원순환〉	2:20 야생의 작은 거인
30 쉬어가도 괜찮아 마이크로여행(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기분 좋은 날(재)	5:00 SBS 오뉴스	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재)
50 밭캐스트(재)	4:00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상어(재)	4:55 5 MBC 뉴스	30 TBC대경뉴스광장	3:05 클래스 e (3)
3:20 라이브 오늘 스페셜	5:00 뮤직뱅크	5:10 모두의 TV 스페셜	50 네모세모	25 지식채널e(1)(재)
4:00 사사건건				35 세상을 비집고(재)
5: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5 영어 스토리 타임
30 라이브 오늘				15 페파 피그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6:00 6시 내고향	6:30 2TV 생생정보	6:05 테마기행 길	6:50 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40 딩동댕 유치원(재)
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7	7:50 일일드라마	7:05 일일드라마	7:50 SBS 8뉴스	5:00 EBS 뉴스
40 동물극장 단짝	〈사랑의 꽈배기〉	〈비밀의 집〉	8:30 TBC 8뉴스	2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8:30 일일연속극	8:30 신상출시 편스토랑	40 MBC 뉴스데스크		30 로보카 폴리(재)
〈으라차차 내 인생〉		8:50 금토드라마〈내일〉(재)		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6: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9: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10 슈퍼맨이 돌아왔다	9:55 금토드라마〈내일〉	9:00 궁금한 이야기 Y	4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
10:00 한반도 운명의 봄	11:40 유희열의 스케치북	11:10 나 혼자 산다	10:00 금토드라마	7:00 타타와 쿠마(재)
50 다큐 온	1:10 우리끼리 작전타임(재)	1:00 MBC 드라마 프리미어	〈어게인 마이 라이프〉	20 자이언트 펭TV(재)
11:4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지금부터 쇼타임	11:30 골 때리는 그녀들(재)	35 자이언트 펭TV
12:10 독립영화관		25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1:10 열린예술무대 뒤란	50 건축탐구-집(재)
1: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8:40 세계테마기행
2:05 팔도밥상(재)				9:30 한국기행 / 50 명의
45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10: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3:45 아침마당(재)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5 EBS 스페이스 공감
				12:45 금요극장〈철목련〉

케이블·위성TV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카이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 TV
11:00 I♥베이스볼	11:00 베이스볼 투나잇	09:30 2022 KLPGA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12:50 2018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10:00 제27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선발전
13:00 2016 리우올림픽	13:00 2022 전국 씨름 선수권대회	12:00 2022 KLPGA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14:50 2022 KBO리그 한화:롯데	13:30 제8회 천태산배 세계여자단체전
15:30 스포츠人명불허전 스페셜	15:00 2022 고양시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15:00 2022 KLPGA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17:00 2022 KBO리그 롯데 명승부 BEST	14:30 제27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선발전
18:20 KBO리그 KIA:키움	18:30 KBO리그 +두산 : KIA	18:00 2022 KLPGA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18:20 2022 KBO리그 롯데:삼성	18:00 제27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선발전
22:00 I♥베이스볼	22:00 베이스볼 투나잇	22:00 더 리얼 라운드 : 골프에 반하다	22:00 베이스볼S	23:00 제15기 YES24배 고교동문전
23:00 I♥베이스볼	24:00 2015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23:30 2022 KLPGA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3:00 베이스볼S	24:30 명국 Replay 최정:저우홍위

영화·경제

OCN	스크린	씨네프	SBS Biz	한국경제 TV
12:40 홍진경의 영화로운 덕후생활	11:30 CSI:14	11:55 더킬팀	11:25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10:30 주식경제
14:00 결백	13:30 이온플럭스	13:30 미스에이전트2	13:00 휴먼다큐 사람들	13:00 나의 투자
16:20 침입자	15:20 인필트레이터:잠입자들	15:45 레지던트이블4:끝나지 않은 전쟁	15:00 경제현장 오늘	16:00 그녀들의 종목 콕! 톡!
18:40 나쁜녀석들:더무비	17:45 CSI:9	19:25 아웃랜더5	18:00 뉴스 프리즘	18:00 뉴스플러스
21:00 NCSI하와이	20:45 뒤틀린 미래:이어즈앤이어즈	21:50 크레이지.스투피드.러브	20:50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20:00 대박천국 프리미엄
23:00 모가디슈	23:10 초능력자	24:10 사채왕 페그	23:50 한문철의 블랙박스	21:00 국고처 프라임

드라마·오락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tvN	디스커버리
12:00 자본주의학교	10:30 라디오스타	10:00 당신이 혹하는 사이3	11:20 어쩌다 사장2	12:00 방구석 1열
14:40 1박 2일	12:10 내일	13:2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3:20 킬힐	15:15 도시어부 3
16:00 무엇이든 물어보살	14:40 라디오스타	17: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6:00 수상한 이웃	17:05 싱어게인
18:50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17:5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20:10 쌔클 하우스	19:20 홍진경의 영화로운 덕후생활	18:40 고생 끝에 밥이 온다
21:30 차트를 달리는 남자	20:40 안싸우면 다행이야	21:5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0:40 식스센스3	21:00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23:50 영화가 좋다	24:00 내일	24:50 접속! 무비월드	22:40 별똥별	22:15 도시어부3

종편·보도

MBN	TV조선	JTBC	채널A	YTN
11:00 속풀이쇼 동치미	10:30 위대한 유산 특별판	10:00 딸도둑들	10: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스페셜	10:50 뉴스N이슈
12:30 특종세상	13:00 보도본두 핫라인	12:00 그린마더스클럽	12:00 뉴스A LIVE	13:30 더뉴스
15:20 MBN 프레스룸	16:00 국가가 부른다 베스트	15:00 JTBC 이 시각 뉴스룸	14:1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15:50 뉴스Q
19:20 MBN 종합뉴스	19:00 건강한 참견	18:10 사건반장	17:20 뉴스 TOP10	17:50 이브닝뉴스
20:30 천기누설	21:00 TV CHOSUN 뉴스9	21:00 유명가수전-배틀어게인	20:0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21:45 뉴스나이트
23:00 고딩엄빠	22:00 우리 이혼했어요2	22:50 쇼다운	23:00 블랙:악마를 보았다	23:50 자정뉴스

어린이·다큐

투니버스	JEI재능TV	챔프	YTN 사이언스	내셔널지오그래픽
11:00 변신기차 로봇트레인S2	10:00 라바 아일랜드	11:00 극장판 키다리 아저씨	10:00 핫클립 베스트	11:40 Continent 7: Antarctica
13:00 몽키키드 시즌3	13:00 쉐어TV	13:00 가면라이더 세이버	13:00 톡으로 나누는 과학 이야기, 과톡	13:30 Ultimate Airport Dubai
16:00 민쩌미	15:00 가면라이더 이그제이드	15:00 디지몬 어드벤처	15:00 야생 생존의 법칙	16:15 Lawless Island: Surviving Alaska
18:00 브레드 이발소3	17:30 엉덩이 탐험 시즌3	16:30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18:00 추적 몬스터	18:05 Big Fix Alaska
21:00 체리툰	20:00 웃짜가족	19:00 신 도라에몽 3	22:00 나는 몸신이다	20:00 David Rocco's Dolce India
23:00 짱구는 못말려7	23:00 바쿠간 배틀 바쿠기어	22:00 소년탐정 김전일 Original3	24:00 관찰카메라 24시간	23:00 Big Fix Alaska

종교·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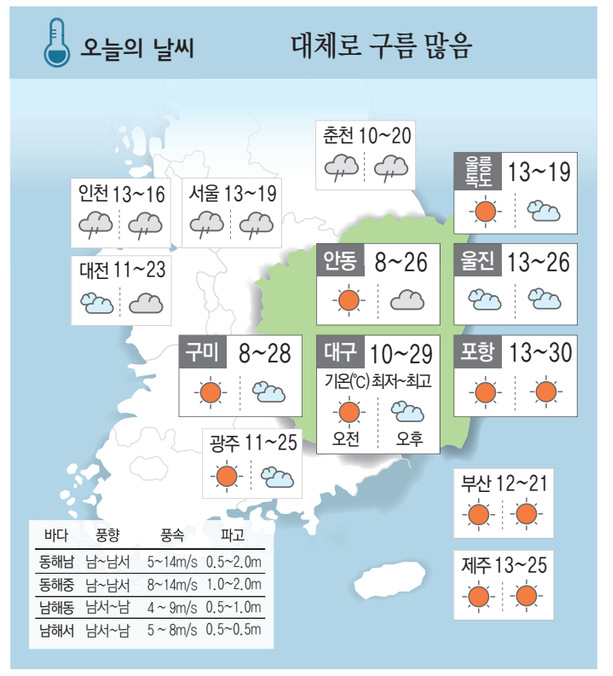
cpbc TV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CNN Int' l
10:00 cpbc 뉴스	10:30 사시불공	11:0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00 BBC World News	10:00 CNN Tonight
13:00 신앙과 지식을 키우는 교회사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시즌3	13:00 생명의 삶	12:00 BBC World News	13:00 CNN Newsroom
16:00 가톨릭 둘레 특강	15:30 증업스님의 불교설화	16:20 칩 잉그램의 CHRIST	15:45 World Business Report	15:00 CNN Newsroom
19:00 정인준 신부의 성경인물 이야기	18:00 저녁예불	18:10 CGN〈북세미나〉책걸음2	19:00 BBC News	18:00 Early Start
21:00 평화를 위한 기도	21:30 천년의 기다림	21:00 더사랑의 교회 주일예배	21:00 Impact with Yalda Hakim	21:00 New Day
23:00 명화극장 부활	22:30 현기 대선사 벽암론 전등 대법회	23:00 맥스 루카르도의 우리의 선한 목자	23:30 HARDtalk	23:00 Connect the World

교육방송

EBS플러스1				EBS2			
5: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세계지리	11:0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독해	17: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세계지리	23:40 발전[2023 수능특강] 기하	6:00 EBSe 생활영어(재)	10:00 초등1 – 통합	14:00 음악 나리의 앨리스	18:00 슈퍼두퍼 잉글리시
6: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한국지리	12: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I	18: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미적분	24: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과 윤리	30 EBSe 생활영어	30 초등2 수학	3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30 오즈, 마법을 찾아서
7: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영어독해	5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명과학 I	19: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한국지리	1:2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7:00 왕초보 영어(재)	11:00 초등1 – 창의체험(2)	15:00 할 수 있다고 2	19:00 형사 가제트
8: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영어	13:4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지구과학 I	20: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영어독해	2:30 문화유산 코리아	8:00 Seasame street	30 초등2 – 창의체험(2)	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30 하트가 빛나는 순간
9: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영어	14: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화학 I	21: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40 한 컷의 과학 시즌2	30 매일 10분 영어	12:00 형사 가제트	16:00 스쿨랜드-과학	20:00 정글 플래닛 / 30 세상을 비집고
9: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미적분	15:2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미적분	22:00 발전[2023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50 클래스 e (2)	9:00 초등1 – 국어	30 오즈, 마법을 찾아서	20 엉뚱남매 요리조리쇼	21:00 배움이 꽃피는 나무
10:0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독해	16:1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확통	50 발전[2023 수능특강] 미적분	3:10 매일 10분 영어	30 초등2 – 국어	13:00 방귀대장 뽕뽕이	17:20 즐거운 수학 EBS MATH	3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30 뭐든지 뮤직박스	50 영어 스토리 타임	50 가만히 10분 멍TV

TBN 대구교통방송 FM 103.9MHz 출발! 대구대행진 오전 7시
每日新聞 뉴스 오후 4시

오늘의 날씨 대체로 구름 많음



■ 5일간 예보

지역 \ 날짜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해 뜸	05:44	
해 짐	19:05	
달 뜸	00:25	
달 짐	09:55	

지역	만조	간조
포항	18:36	02:39
	–	–
부산	12:06	06:00
	–	18:01

· 일기예보 자동응답 131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 ——— 119

대학교병원

-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 1577-6622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서문시장앞) 250-8114
  www.dsmc.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1688-0077
  www.dcmc.co.kr
- 경북대학교병원 ——— 1666-5114
  www.knuh.kr
- 영남대학교병원 ——— 1522-3114
  www.yumc.ac.kr

종합병원

- 파티마병원 ——— 1688-7770
  fatima.or.kr 동대구역 옆
- 곽병원 ——— 252-2401
  kwakh.co.kr 서성네거리
- 구병원 ——— 560-9114
  gooh.co.kr 지하철2호선 죽전역 3번출구
- 천주성삼병원 ——— 790-0555
  Sungsam21.com 지하철 2호선 신매역 5번 출구
- 대구의료원 ——— 560-7575
  www.daegumc.co.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 320-2500
  www.tcmcch.co.kr 대구은행칠곡지점 건너
- 경산중앙병원 ——— 715-0119,0129
  www.gsjoongang.com
- 드림종합병원 ——— 640-8575
  www.dreamh.co.kr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4번출구

요양병원

-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054-743-6200
  www.kjho.co.kr 동국대→영천, 고경 방향
- 상주연세실버타운 ——— 054-533-1600
  www.syst.or.kr
- 연세한방병원 ——— 054-531-9988
- 연세요양병원 ——— 054-536-5588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제090804-중-14127호

심야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 심야약국(저녁10시~새벽6시) 768-3679 수성구 황금2동 757-3 대구시약사회관 별관1층

■ 365 연중무휴 약국

- 〈중구〉대하약국 ——— 254-8164
- 〈중구〉한성약국 ——— 425-5575
- 〈동구〉팜프라자약국 ——— 607-2733
- 〈서구〉경명약국 ——— 355-7255
- 〈수성구〉시지광장약국 ——— 792-8297
- 〈북구〉형우당약국 ——— 358-9696
- 〈북구/칠곡〉강북약국 ——— 323-8736
- 〈달서구〉삼일약국 ——— 568-3375
- 〈달서구〉메디칼중앙약국 ——— 586-7900
- 〈달성군〉중앙약국 ——— 615-0007

■ 365 자정약국

- 〈중구〉복음약국 ——— 252-1325

당직 변호사 (22일)남지현 (23일)조성윤 (24일)조소진 053)741-6338 FAX: 053)751-6006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40년 전통
정통원조 큰이름

053-241-3456 큰이름 ▼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임언미의 찬란한 예술의 기억

88서울올림픽 주제곡 '축제교향곡' 작곡가 김병곤

최근 지역에서 작곡가들의 발표 무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명한 작곡가의 잘 알려진 곡을 연주하는 것과 지역 작곡가의 창작곡을 연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창작은 그 도시 음악의 토대를 탄탄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대구는 훌륭한 작곡가를 많이 배출한 도시이다. 특히 올해는 대구 출신 작곡가 박태준(1900~1986)이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 '동무생각'을 작곡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박태준은 우리나라 대표 작곡가이자, 대구에 서양음악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다. 그리고 박태준이 남긴 씨앗에 싹을 틔우고 큰 나무로 키워낸 음악가들이 있다. 하대응(1914~1983), 김진균(1925~1986), 우종억(1931~), 임우상(1935~) 등 대구 음악의 오늘을 일군 분들이다.

국제 음악제서 윤이상 작품과 함께 소개

여기에 한 사람 더, 대구 출신으로 해외에서 이름을 빛낸 사람, 고향의 음악과 음악인을 사랑한 사람, 작곡가 김병곤(1927~2009)이 있다. 원로 음악인들이 입을 모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라고 손꼽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업적에 비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기에, 오늘은 작곡가 김병곤에 대해 소개한다.



작곡가 김병곤

대구시가 수집한 아카이브 자료에서 찾아본 김병곤에 대한 첫 기록은 1952년, 대구 음악인들이 모여 만든 '대구음악연구회'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구음악연구회는 테너 이장환, 바리톤 이점희를 비롯해 당대 음악가들이 순수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김병곤이라는 이름은 당시 기념사진과 공연 팸플릿에 남아 있다. 그 외에는 자료를 찾기 힘들었는데, 최근 작곡가 임우상 선생님이 악보와 팸플릿, 신문 자료 등을 기증해 주셔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작곡가 김병곤은 대구사범학교 심상과 출신으로 1950년대 대구 남산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계성학교와 대륜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했다. 196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68년 인디애나대학에서 작곡과 지휘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에 정착해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LA)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활동했다. 그는 특히 위촉 작품을 많이 썼고 지휘자로도 활약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뒤, KBS 교향악단으로부터 '축제교향곡'을 위촉받아 작곡했고, 그가 직접 지휘해서 1984년 올림픽주경기장 개장 기념 특별연주회에서 초연했다. 그가 인디애나대학 재학 시절 작곡한 교향시곡 '낙동강'(1964)은 고향에 대한 총체적인 감회를 엮은 곡으로, 1970년 서울시립교향악단 162회 정기연주회 때 한국에서 초연됐다.



1952년 문창서점에 모인 대구음악연구회 회원들(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병곤, 맨 오른쪽이 김진균).

1986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미국 순회연주를 위해 위촉해 '초엽'(初葉)을 작곡했다. 서울시향은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이 곡을 연주했다. 같은 해, 중국 정부가 초청한 첫 외국 작곡가로 베이징, 상하이 등에 음악을 소개하고 현지 교향악단을 지휘했다. 그 외 '하프를 위한 소리' '비명'(Epitaph) '음유교향곡', 일본에서 음반으로 출시된 '오케스트라를 위한 솔' 등 70여 곡을 남겼다.

김병곤은 1986년 태평양 연안 지역 40여 나라 작곡가들의 모임인 태평양현대음악센터를 만들었다. 이 센터 주최로 1989년 6월 제1회 태평양 현대음악제(Pacific Contemporary Music Center·PCMA)를 LA에서 열었을 때, 한국계 작곡가로는 윤이상과 김병곤의 작품이 발표됐다. 김병곤은 제2회 음악제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열 수 있도록 앞장섰다. 그는 PCMA의 회장을 맡아 제2회 음악제를 1990년 6월 대구와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 작곡가들이 세계 작곡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 작곡가들 세계 무대 진출 도와

한국 행사에는 미국, 소련(현 러시아), 한국, 일본, 멕시코, 중국 등의 작곡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향(지휘 강수일), 서울에서는 서울시향(지휘 박은성)이 연주를 맡았다. 당시 신문 기사를 확인해 보면 '대규모 현대음악제가 정부 주도가 아닌 음악가들의 힘으로 성사됐다.'(1990년 6월 19일 매일신문)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임우상 선생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작곡가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고, 또 알릴 기회였다. 김병곤 선생은 작품뿐만 아니라 인품도 아주 훌륭하셔서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다. 대구가 반드시 기억하고 현창해야 할 분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예술발전소 3층 열린수장고에서는 김병곤의 작품 '퍼쿠션을 위한 콘체르티노' '하프를 위한 소리' '비명' 악보를 만나볼 수 있다.

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팀장, 대구문화 편집장

그립습니다

김정자 씨의 남편 고 임학철 씨

당신이 사준 옷 지금도 입어…바람 부는 날 아들이 똑같이 챙겨줘 '부전자전'

옷장을 한번 열어 봅니다. 젊었던 시절 당신이 대구 시내 양장점에서 맞춰 줬던 옷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옷을 새로 살 형편이 안 돼서 따로 옷을 더 사진 않고 있지만, 그 옷들을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서 함부로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입어 보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같은 마을에 살면서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당신이었죠. 그러고 보니 항상 당신은 내게 다정했지요. 언제 기차 타고 영천인가 어딘가로 갈 때였나요. 지금이야 기차 창문을 열 수 없지만 그때 기차는 창문을 열 수 있었던 시절이었지요. 기차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기차가 터널로 지나갈 때 당신은 내 얼굴에 먼지가 앉을까 봐 코트를 벗어서 내 얼굴을 가려 줬었지요. 그 때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길을 가다가도 먼지바람이 불면 행여 먼지를 맞을까 봐 바로 코트를 벗어서 날 덮어 주고 가려 줬었죠. 그렇게 당신은 다정한 사람이었네요.

6·25전쟁이 끝나고 결혼할 때 참 힘들었지요. 전쟁에서 갈비뼈 쪽에 맞은 총알이 박힌 채 제대한 당신은 그 총상 때문에 늘 힘들어했지요. 상처 입은 당신을 보고 친정에서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당신은 더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해주겠노라며 친정을 설득했죠. 그렇게 결혼한 게 어찌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 당신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걸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줄까 생각해 볼 때가 많답니다. 당신의 총상이 가볍지 않았는데 전공상 등급이 6급으로 낮게 나온 데다가 나이가 드니 상이군연금을 받는다고 노령연금 같은 다른 연금이 안 나와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했으니까요. 당신이 나라를 위해 한 헌신을 국가도 알아 줬으면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4남매나 되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늘 열심이었어요. 영화 배급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항상 날 챙겨 줬었죠. 옷장에 있는 옷들이 그걸 알려 주고 있네요. 항상 대구의 제일 좋은 양장점에 가서 몇 벌씩 맞춰 줬었으니까요. 점심 같이 먹자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을 때 내 모습을 보고 "제2의 김지미가 왔네"라며 날 치켜세웠었죠.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당신은 참 낭만적이었어요. 항상 여행 가는 걸 좋아했고, 나와 데이트하는 걸 좋아했지요. 나이 들고 나서도 "오랜만에 칼질이나 하러 갈까?"라며 양식(洋食)을 권하면서 내게 데이트 신청을 하던 당신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당신이 세상을 잘 살다 갔고, 나 또한 당신만나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건 잘 알겠어요.

당신이 언제 제일 많이 생각나는지 아나요?



약 20년 전 시아버지 산소 방문 후 인근 공원에서 촬영한 김정자(오른쪽) 씨와 남편 고 임학철 씨. 김정자 씨 제공

밥 먹을 때랍니다. 혼자 밥상에 앉을 때면 당신과 다정하게 밥 먹던 때가 떠오르니까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나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들이 당신과 똑같이 날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도 바람 많이 부는 날이면 내가 날아갈까 코트 벗어서 챙겨 주는 건 똑같이 하더군요.

아직도 당신이 사 준 옷을 지금도 입고 다니곤 해요. 그럴 때마다 당신 생각 정말 많이 난답니다. 당신과 함께 키운 자식들도 남아 있는 나를 잘 챙겨 주고 있어요. 멀리 떠난 그곳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난 잘 살고 있을 테니 내가 갈 때 잘 맞아 주세요.

아내 김정자 드림



KTX 구미 정차 꼭 필요하다

기 고



배 용 수
구미시장 권한대행

서울역에서 KTX김천(구미)역까지 약 230㎞.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시까지 약 20㎞. 어느 구간의 이동이 더 편할까.

구미 투자 기업체들 사이에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로 가는 것이 서울에서의 이동보다 더 어렵다"는 불만이 심심찮게 들린다. 김천(구미)역에서 구미5산단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 50분 이상 소요되고, KTX보다 요금도 더 비싸다. 2010년 KTX김천(구미)역 개통으로 구미역에 정차가 중지된 이래 'KTX 구미 정차'는 지난 10여 년간 기업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 됐다. 구미시는 KTX 구미 정차가 생존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간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구미역 KTX 정차 ▷중부내륙선 연계 KTX이음 구미역 정차 ▷KTX 구미역 신설 등이 그것이다.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거나, 비효율적인 열차 운행 등은 미루자.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칠곡군 북삼(약목) KTX역 신설이다. 북삼(약목) KTX역은 구미산단까지 10분 내외, 5산단과 통합신공항 간 직선 거리도 7㎞에 불과해 첨단 교통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하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33호선 개통으로 도시 간 이동도 수월해졌다. 반면 지역 정치권의 입장은 다르다. 남부내륙철도사업(김천~거제)을 활용해 KTX 선로와 기존 국철을 연결하자는 것.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 없이도 KTX가 구미역에 정차 가능하다는데, 현실성은 그리 높지 않다. KTX가 고속철에서 국철로 갈아타게 되면 운행 속도는 최대 320㎞/h에서 100㎞/h 정도까지 느려진다. 15~20분 시간 소요는 물론 김천~구미 고속화사업이 추진되면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얼마 전 이웃 도시 지자체장의 기고문이 실렸다. 대구광역철도 구미~김천 구간 조기 개통을 통해 김천역에서 서울과 거제로 갈 수 있으니, KTX 구미 정차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다.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김천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구미 시민과 칠곡 군민, 기업인, 기업 투자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웃 도시의 발전을 외면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KTX 구미 정차는 포기할 수 없는 구미의 생존 문제. 아무리 여건이 좋은 기업 도시라 해도 교통편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KTX가 운행되고 있는 오송, 아산, 울산 등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해 구미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내륙국가산단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미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만, 교통 접근성은 그 명성에 못 미치고 있다.

구미는 이웃하고 있는 김천, 칠곡, 대구와 부담을 나눠 상생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산단과 통합신공항 활성화는 구미 시민만의 숙원이 아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함이다.

대구광역철도를 김천역까지 연장하자는 김천시 제안에 찬성한다. 나아가 김천혁신도시에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를 진심으로 바라고, 공동 협력할 수 있음을 밝힌다.

구미 KTX역 운영을 위해선 노선, 배차 간격, 정차 횟수 등을 두고 대구시와 김천시의 협조가 절실하다. 낙동강 광역취수원의 물을 함께 이용하는 김천시도 대구시처럼 KTX 배차 양보라는 큰 상생의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러다 20년 지나도 정권 못 잡는다

춘추칼럼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적폐 청산 초점에 민생 경제 실종
민주당 위기는 최전성기 때 시작
리더십 상실 386을 대체할 40대
더 극단적 주장으로 대중과 유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 1년 후 2018년 이해찬은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 집권을 이야기했다. 다음 해 당 대표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자,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1933년 이후 30여 년 민주당 장기 집권 선례도 있다. 집권 전략으로 정책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해 그린 뉴딜을, 통치는 조선의 태종과 세종을 모델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20년 집권 꿈은 5년 만에 끝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은 헌법상 대통령 5년 임기와 상관없이 지난 30년간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면서 보수와 진보, 다시 보수가 차례로 각각 10년 집권하도록 했다. 즉 우리 헌법은 5년 단임제이지만 국민은 10년 통치의 기회를 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0년 집권은 고사하고, 30년간 이어져 오던 10년 연임에도 실패했다.

분명 대선에서 패배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공천, 국회 '검수완박' 강행에서 민심과의 괴리, 대선 후 당내 패배주의, 그 와중에 헤게모니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향후 20년 내에는 다시 집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민주당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위기의 구조는 무엇인가. 놀라운 것은 민주당의 위기가 당이 가장 전성기 때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2017년 탄핵의 중심인 촛불 시민 세력을 19대 대선 이후 통치의 기반으로 두고, 이은 2020 총선 대승으로 입법 일방주의와 법적 정합성만 따지는 전성기 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위기 출발은 탄핵이다. 입헌민주국가에서 탄핵은 민주적 원칙이나 역사적 평가에서 매우 논란이 된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탄핵의 정당성을 역사에만 맡겨 놓을 수 없었고 임기 중에 스스로 정당성을 만들어야 했다. 그 과정은 전 정권의 탄핵을 정당화시켜 줄 정치 적폐와 부동산·재벌 등 기득권 적폐를 통한 카타르시스 프레임이 필요했다. 결국 민주당은 집권 이후 180석 의석이라는 힘에도 불구하고 적폐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 버렸다. 문제는 국정이 적폐 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법 정의가 왜곡되고, 생활경제와 민생이 실종되어 지방에서는 토착 기득권 세력의 천국이 되어 갔다. 그리고 적폐 프레임은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피로감을 만들었다.

그 결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는 딱 21대 총선까지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철회했다. 문제는 이번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졌잘싸'로 간단히 정리했다. 그 중심에는 민주당의 사실상 집단 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이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실패 후 당원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당의 의사 결정과 당내 선출직 결정에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졌다. 문제는 40대가 권리당원 세력으로 당의 중심이 되었지만, 당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점이다. 현실은 이들이 386세대를 대체할 정치력도, 국가를 이끌 역량도 검증받지 못했고, 대중적 지도자로도 성장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학 생활을 공유한 386의 아바타로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세대교체는 할 수 있어도 386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 그나마 학생운동이라도 해본 386과 달리 40대들은 오히려 더 극단적 주장을 하고 대중과도 유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당내 문자 폭탄과 왕따, 인격 경시 정치 문화가 그렇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이러한 당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386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40대조차 당내 기득권화가 되어 버렸다. 포스트 탄핵 정치 상황에서 스스로 깨시민이라 생각하는 이상 변하지도 않을 것 같다. 또한 세대 역할에서도 이들 40대가 더 이상 세대 중심 역할을 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2030 세대를 이끄는 세대 리더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현재의 민주당 상황이 지속되면, 20년이 지나도 정권 잡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 집권 보수 정당의 국정 파탄이다. 그러나 그걸 바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정권을 잡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도 아니고 국가만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每日 희평 김경수



관풍루 觀風樓

○…문재인 대통령,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물가 안정" 주문. 임기 5년 동안 물가에 가장 영향 주는 부동산 화끈하게 올려놓고 임기 말에 와서 물가 잡으라고?

○…스트리밍 업계 압도적인 1위 넷플릭스 11년 만에 가입자 감소 기록하며 주가 35% 폭락 시총 67조 원 증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요금 올리고 배짱 영업 할 때 이 정도는 감수했겠지.

○…하루 0~5명 접종하는 얀센 백신 49만2천 회분 국내 도입해 국내 접종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여 검토 중. 정작 필요할 땐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더니 필요 없으니까 뭉텅이로 들어오네.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창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실장 김해용 뉴스국장 김교영

대표전화 053)255-5001
대표팩스 053)255-8902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경북본사 054)855-1700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

찜찜한 소변, 침침한 눈, 지구력까지 하루 한알로!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
흐릿하고 침침한 눈
하루 한 알로 활력있게!

남자가 중년을 넘어서면 시들해진 전립선과 침침한 눈, 떨어진 지구력이 고민이다. 유니바이오의 '쏘팔루테인' 은 전립선, 눈 노화, 지구력까지 남자의 3가지 걱정을 하루 한 알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남자가 나이 들면 소변 참기가 힘들고 소변줄기가 약해지는 걸 경험한다. 배뇨 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찜찜함과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는 불편함도 마찬가지.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인 로르산은 식약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쏘팔루테인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켜 남자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자! 중년 이후부터는 눈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한다. 20세 이후 루테인이 감소하면서 나이들수록 눈이 침침해지는데 루테인은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구성성분으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충해야 한다.

루테인이 함유된 쏘팔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하면 망막 및 황반 성분을 보충, 맑고 선명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중년남자의 지구력 증진과 활력을 위한 옥타코사놀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아연까지 들었다. 수천 km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철새의 에너지원으로 알려진 옥타코사놀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운동시간 증가, 심폐지구력 향상 등이 확인됐다. 쏘팔루테인에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 4종을 1일 섭취량 최대치로 채웠다. 전립선, 눈 건강, 지구력… 따로 챙기느라 애쓰지 말고 이제 '쏘팔루테인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

쏘팔루테인은 ▷노화로 전립선 건강이 걱정인 남성 ▷소변이 마려워 자주 잠을 깨시는 분 ▷눈이 침침하거나 흐릿해짐을 경험하신 분▷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활력 증진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권한다. 유니바이오에서는 출시를 기념해 쏘팔루테인 2개월분에 2개월분을 더한 총 4개월분을 200,000원에서 약 50% 할인해 99,900원에 판매한다. 쏘팔루테인 하루 한 알로전립선과 지구력을 관리하고, 남자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자.

www.unibio.kr
〈신용카드 3~6개월 무이자 할부〉
▶ 문의전화 : 080-808-1616



쏘팔루테인

굵고 시원하게 쑥~ 장 속까지 쾌변!

묵직한 아랫배 더부룩한 고민
가스가 잘 차 불편한 장
하루 한 포로 상쾌한 하루

배가 아파 변기에 앉아 있어도 소식은 없고 어쩌다 볼 일을 봐도 영 시원하지가 않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은 이 같은 배변 문제로 고생한다. 나이 들수록 장 운동은 느려지고 대변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우선 변의가 왔을 때 참지 말아야 한다. 만일 대장에서 발생한 신호를 참아버리면 대장은 적절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망설이게 되어 장 건강을 해치게 된다. 40대 이후부터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쾌변을 위해서는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등 운동을 생활화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면 대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해 장건강에 도움을 준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의 '보령장쾌장'은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주원료로 담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알로에 아보레센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알로에 아보레센스에 함유된 무수바바로인은 장 점막을 자극해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보령장쾌장은 섭취 시 빠른 시간 내 활발한 배변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장운동의 리듬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배변 습관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보령장쾌장에는 차전자피 분말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다시마 분말, 유산균혼합물, 사천쑥 분말, 퉁퉁마디 분말 등의 부원료도 들어있다. 보령장쾌장은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는 ▷분 평소 장 기능이 약하신 분 ▷화장실에 앉아있는 배변시간이 긴 분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아 있으신 분들께 적극 권한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에서는 보령장쾌장 출시 4주년을 기념해 2개월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개월 분을 추가로 드린다. 이번 행사는 200세트 한정 판매로 진행한다. 시원한 배변을 위해 이것저것 다 해보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보령장쾌장'을 만나보자. 장 속까지 시원해지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www.boryung365.com
〈신용카드 3~6개월 무이자 할부〉
▶ 문의전화 : 080-808-1616



보령장쾌장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실효성 있는 대안 나와야

청라언덕



김봄이
디지털뉴스부
차장

#제주도에서 강아지를 땅속에 '생매장'한 사건이 벌어졌다. 목격자가 찍은 사진 속 강아지는 입과 코만 겨우 밖으로 내놓은 채 흙 속에 묻혀 있었다. 심지어 나오지 못하게 주변을 돌로 눌러 놓은 흔적까지 확인됐다. 얼마나 땅속에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이 강아지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에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하고서 사진과 영상을 SNS로 공유한 사건도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이 학대범은 자신의 주거지와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해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톱, 칼, 망치, 버너 등 학대에 사용된 듯한 물건들이 있었고, 선명한 핏자국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동물학대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992건으로 1천14명이 검거됐다. 2010년 6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4배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동물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을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로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기존 매뉴얼이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만 하고 있던 것에서 ▷112 신고 접수자부터 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 조치 및 지자체 공조 방법 ▷수사 실무자를 위한 동물 사체 부검 의뢰 및 양형 기준 등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총 12만 8천여 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 출동 및 수사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5%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고충을 느끼는 이유로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30.6%) ▷증거 수집 어려움(22.1%) ▷신고·고소·고발 내용 부실(11.6%) 등의 의견이 많았다. '동물보호법이 부실하다'(11.6%)거나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을 기대해 본다.

이에 경찰 수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함께 전문가나 행정공무원이 고발권·수사권을 갖게 하는 '동물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천398명 중 정식 재판이 청구된 피의자는 93명(2.7%)에 불과했으며, 실형 선고는 12명(0.3%)에 그쳤다. 반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천741명(51.2%)에 달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한 경우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사례는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동물학대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단순히 동물복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가 반복되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사람을 향한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다음 달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을 기대해 본다.

야고부 野鼓賦

혁명 vs 쿠데타

혁명과 쿠데타는 비슷한 면이 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배자'만 교체되는 경우를 '쿠데타', 구질서가 신질서로 바뀌는 경우를 '혁명'으로 본다. 프랑스 혁명(1789~1794)을 '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은 구질서(성직자와 귀족이 특권을 누리는 왕정)를 무너뜨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왕이 저 왕으로 바뀌기만 했다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로 규정됐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유럽의 '산업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생산 방식의 변화가 사회 변혁(영주·농노→새로운 시민계급 형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촛불 시위를 바탕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혁명을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에서도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정부'라는 입장을 자주 피력했다.

문 정부 등장으로 '권력자'는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었지만 '구질서'는 바뀌지 않았다. 자신들은 지난 정권과 다르다며 만든 '인사 5대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 청문 절차를 무시한 장관급 인사가 30회가 넘었다. 전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몰아세우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임기 말까지 알뜰히 공공기관 '알 박기'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부처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 신속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만드는 꼼수를 서슴지 않았다.

문 정부는 걸핏하면 '촛불' 운운했다. 정치 분야는 물론이고 검찰, 언론에도 '촛불 정신'을 갖다 댔다. 심지어 대통령은 법원에다 대고도 촛불 정신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촛불 개혁'은 '숙청'에 다름 아니었다. 반대파를 제거하고 제 편을 앉혔을 뿐이다.

문 정부는 '촛불'이니 '혁명'이니 하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그저 '무능한 정부' '퇴행한 정부'라는 평가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혁명'이니 '촛불'이니 하는 말을 자꾸 입에 올리면, '혁명'의 이복형제인 '쿠데타'가 생각날 뿐이다.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사 설 社說

검수완박 강행하는 민주당, 범죄 집단과 무엇이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것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노린 기획 탈당이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은 민주당과 야당 의원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최장 90일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즉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무소속 민 의원을 민주당 쪽에 세워 4대 2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꿍꿍이다.

당초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활용하려 했다. 지난 7일 법사위에서 박성준 의원을 빼고 양 의원을 사보임한 이유다. 안건조정위에 양 의원을 배치한 뒤 민주당 쪽에 세워 역시 4대 2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민주당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방위 소속인 김진표 의원과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을 맞바꿨다. 관례상 안건조정위 의장은 최고령자가 맡는 점을 노린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75세로 법사위 최고령자다.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김진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강행 처리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왜 이러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 대못을 박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이상직 비리, 대장동 특혜 등 문재인 정권 대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양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은 그런 추론에 힘을 싣는다. 문 정권 비리 연루자 이외에 검수완박으로 덕을 보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범죄 집단이나 진배없다.

尹 정부 하루빨리 국정 정상화해 부민강국 터전 닦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 20여 일을 앞두고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뒤집는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이더라도 안전성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하면 폐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7천억 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월성 1호기를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하면서 폐쇄한 문 정부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다. 계속운전 제도를 개선하면 최대 18개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고,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과 함께 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호남 방문 일정 중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제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문 정부와 달리 각종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를 통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밑그림을 내놓고 있다. 인수위는 또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윤 당선인과 새 정부가 직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비정상으로 치달은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탈원전 등 문 정부가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 등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필수적이다. 국방력 및 한미 동맹 강화 등으로 흔들리는 안보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정상화에 가속도를 붙여 부민강국(富民强國) 터전을 닦기 바란다.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명확히 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의 처벌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 3개월이 안 된 중대재해법에는 무거운 형벌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상존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령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해 각종 조치들을 하도록 했다.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재해 피해자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의 매뉴얼을 알아서들 만들라는 것이다. 언뜻 자율성을 강조한 듯하지만 조치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책임은 무겁다. 법률 위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병과(倂科)도 가능하다. 기업 경영 위축 요인으로 지목된 배경이다.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는 높다. 국내 기업 열 곳 중 여덟 곳이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을 정도다. 경영 책임자 의무 내용 및 책임 범위 구체화 요구가 압도적이다.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 사고의 복잡성을 고려한 기준이 명시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은 줄곧 개진됐다. 장단을 알아야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엇박자가 적잖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다.

처벌 완화라는 운을 뗀 인수위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형벌을 낮추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거운 처벌이 자발적 대비와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다소 폭력적이다. 엄포만 놓을 게 아니다. 엄벌에 맞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그래야 대책도 바로 선다.

계정 맛자랑
※ 타 제품과 비교하여 맛 없으면 반품하세요.
※ 원산지 별도 표기란에 기재합니다. (상담하세요.)
※ 주문 상담 : 문자로 부탁합니다.
1kg 명란젓 특창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갈치속젓 전어젓 밴댕이젓 갈치젓 황석어젓(조기)
2kg 양념깻잎무침 고들빼기무침 더덕무침 무말랭이무침 된장깻잎 된장고추지
2kg 표고버섯장아찌 명이나물장아찌 브로컬리장아찌 고추지장아찌 초석잠장아찌 궁채장아찌 황토로구운소금
500g 새싹보리분말 노니분말 모링가분말 여주분말 강황분말 ※피쉬콜라겐 400g
1kg 특미 능이버섯장아찌 5만원
전품목 한가지 3만원 두가지 5만원
2kg 특미 간장게장 양념게장
지리산 흑돼지 삼겹살 1kg 50,000원 앞다리살 1kg 25,000원
전국무료배송
담당자 조선일 H·P 010-5500-5925 농협 150095-52-094791 계정(이상인)



쌈주 산중식당 백년가게
SINCE1981 - 대표메뉴 : 곤드레밥 보쌈세트
팔공산 케이블카 입구 / 강원도 영월 햇 곤드레나물 직송
● 대구광역시 향토음식점 1호 ● 힐링푸드전문점 웰스푼 인증
● 대구광역시 동구맛집 ● 2002 FIFA 월드컵 대통령시장 수여업소
● 2019년 2대 김경환 대표 외식산업학 박사학위 취득
● 2020년 백년가게 선정 ● 2021년 KBS 〈생생정보 전설의 맛〉 출연
동화사점 : 동구 팔공산로 185길 55 / Tel : 053-982-0077
파계사점 : 동구 파계로 596 / Tel : 053-982-0076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유효기간〉
2019. 3. 9 ~ 2023. 3. 8

치 유 의 봄
희 망 의 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과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